

제 43 책
제 41 권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증거기록 (병재)

추징금

구공판

| | | | | | |
|-------|--|---|----|------|---------|
| 검찰 | 사건번호 | 2021년 형제 47137호, 47060호, 48255호, 48313호, 50855호 | 법원 | 사건번호 | 고합, 단 호 |
| | 검사 | 김익수 | | 판사 | |
| 피고인 | 구속 1. 가.나.마. 유동규 구속 2. 나.다.라.바.사. 김만배 구속 3. 나.다.사.아. 남욱 4. 나. 정영학 | | | | |
| 죄명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라. 업무상횡령 마. 부정처사후수뢰 바. 뇌물공여약속 사. 뇌물공여 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 공소제기일 | 2021. 10. 21. 2021. 11. 01. 2021. 11. 22. | | | | |
| 신병 | 1. 2021.10. 3. 구속 (2021.10. 1.체포) 2. 2021.11. 4. 구속 (2021.11.3. 구인) 3. 2021.11. 4. 구속 (2021.11.3. 구인) 4. 불구속 | 석방 | | | |
| 변호인 | 별첨참조 | | | | |
| 증거물 | 있음 | | | | |
| 비고 | 기소전 미결구금일수 : 1. 20일, 2. 19일, 3. 22일, 4. 없음 | | | | |

[별첨첨부]

| | |
|-----|----------------------------------|
| 번호인 | 유동규 : 김만배 : 남 옥 : 정영학 : |
|-----|----------------------------------|



검찰
PROSECUTION SERVICE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별책 3-1 권]

수 사 사 건 기 록

| | | | |
|-------|--------------------------|------|-----|
| 사건번호 | 2021 형제 47137호 등 | 주임검사 | 김익수 |
| 피고발인 | 김만배 외 17명 | | |
| 죄 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 | |
| 단 서 | 직고발 | | |
| 접 수 | 2021. 9. 28. | | |
| 구 속 | 불구속 | | |
| 석 방 | | | |
| 증 거 품 | 없음 | | |
| 비 고 | | |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21. 9. 27.

수신 주임검사 김익수

제목 수사보고 [정영학 임의제출 녹취록 사본 별책 첨부 보고]

- 정영학이 2021. 9. 26. 변호인 박환택 변호사와 같이 우리 청에 자진 출석하여 임의 제출한 녹취록을 사본하여 별책으로 첨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정영학이 2021. 9. 26. 박환택 변호사와 같이 자진 출석하여 본건에 관해 진술하던 중 같은 날 15:55경 수사 협조를 위해 본인(정영학)이 갖고 있던 ① 녹취록 6권, ② 그 녹음파일이 있는 녹음기 3대(케이스 포함), ③ 같은 녹음파일이 저장된 USB 1개, ④ 사건요약서(사본) 1부를 임의 제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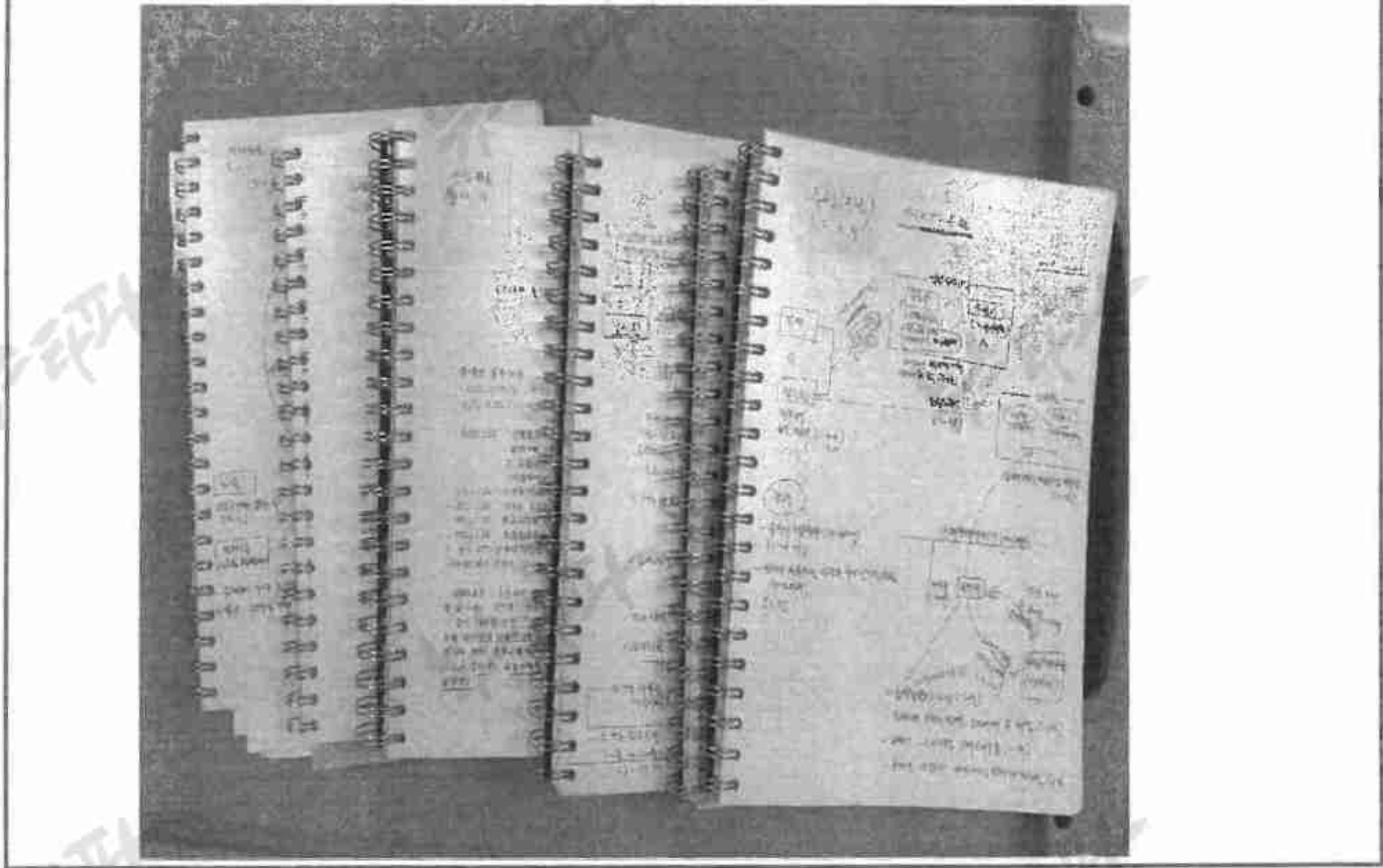
- 임의제출자 : 정영학

- 임의 제출물 : 녹취록 6권, 녹음기 3대, USB 1개, 사건요약서(사본) 1부

- 임의 제출 일시 및 장소 : 2021. 9. 26. 15:55경, 서울중앙지검 604호 검사실

○ 본건 수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위 임의제출물 중 녹취록 6권을 사본하여 별책으로 첨부하였음

정영학 임의제출 녹취록 6권



< 침 부 >

1. 녹취록 6권 사본 1부. 끝.

2021. 9. 27.

위 보고자

검찰주사 오

제 43 책
제 42 권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추징금

구공판

증거기록(변적)

| | | | | | |
|-------|---|---|----|------|--------|
| 검찰 | 사건번호 | 2021년 형제 47137호, 47060호, 48255호, 48313호, 50855호 | 법원 | 사건번호 | 고합,단 호 |
| | 검사 | 김익수 | | 판사 | |
| 피고인 | <p>구속 1. 가.나.마. 유동규 구속 2. 나.다.라.바.사. 김만배 구속 3. 나.다.사.아. 남욱 4. 나. 정영학</p> | | | | |
| 죄명 | <p>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라. 업무상횡령 마. 부정처사후수뢰 바. 뇌물공여약속 사. 뇌물공여 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p> | | | | |
| 공소제기일 | <p>2021. 10. 21. 2021. 11. 01. 2021. 11. 22.</p> | | | | |
| 신병 | <p>1. 2021.10. 3. 구속 (2021.10. 1.체포) 2. 2021.11. 4. 구속 (2021.11.3. 구인) 3. 2021.11. 4. 구속 (2021.11.3. 구인) 4. 불구속</p> | 석방 | | | |
| 변호인 | 별첨참조 | | | | |
| 증거물 | 있음 | | | | |
| 비고 | 기소전 미결구금일수 : 1. 20일, 2. 19일, 3. 22일, 4. 없음 | | | | |

[별첨첨부]

| | |
|-------|----------------------------------|
| 변 호 인 | 유동규 : 김만배 : 남 욱 : 정영학 : |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별책 3-2 권]

수 사 사 건 기 록

| | | | |
|-------|--------------------------|------|-----|
| 사건번호 | 2021 형제 47137호 등 | 주임검사 | 김익수 |
| 피고발인 | 김만배 외 17명 | | |
| 죄 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 | |
| 단 서 | 직고발 | | |
| 접 수 | 2021. 9. 28. | | |
| 구 속 | 불구속 | | |
| 석 방 | | | |
| 증 거 품 | 없음 | | |
| 비 고 | | | |

제 43 책

제 47 권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증거기록

추징금

구공판

| | | | | | |
|-------|--|---|----|------|------------|
| 검찰 | 사건번호 | 2021년 형제 47137호, 47060호, 48255호, 48313호, 50855호 | 법원 | 사건번호 | 고합, 단 호 |
| | 검사 | 김익수 | | 판사 | |
| 피고인 | 구속 1. 가.나.마. 유동규 구속 2. 나.다.라.바.사. 김만배 구속 3. 나.다.사.아. 남욱 4. 나. 정영학 | | | | |
| 죄명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라. 업무상횡령 마. 부정처사후수뢰 바. 뇌물공여약속 사. 뇌물공여 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 공소제기일 | 2021. 10. 21. 2021. 11. 01. 2021. 11. 22. | | | | |
| 신병 | 1. 2021.10. 3. 구속 (2021.10. 1.체포) 2. 2021.11. 4. 구속 (2021.11.3. 구인) 3. 2021.11. 4. 구속 (2021.11.3. 구인) 4. 불구속 | 석방 | | | |
| 변호인 | 별첨참조 | | | | |
| 증거물 | 있음 | | | | |
| 비고 | 기소전 미결구금일수 : 1. 20일, 2. 19일, 3. 22일, 4. 없음 | | | | |

[별첨첨부]

| | |
|-------|---|
| 변 호 인 | <p>유동규 :</p> <p>김만배 :</p> <p>남 욱 :</p> <p>정영학 :</p> |
|-------|---|



검찰
PROSECUTION SERVICE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별책 3-3 권]

수 사 사 건 기 록

| | | | |
|-------|--------------------------|------|-----|
| 사건번호 | 2021 형제 47137호 등 | 주임검사 | 김익수 |
| 피고발인 | 김만배 외 17명 | | |
| 죄 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 | |
| 단 서 | 직고발 | | |
| 접 수 | 2021. 9. 28. | | |
| 구 속 | 불구속 | | |
| 석 방 | | | |
| 증 거 품 | 없음 | | |
| 비 고 | | |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주임검사



2021. 10. 12.

수신 주임검사

제목 수사보고[정영학 임의제출 녹취록 사본 별책 첨부 보고 2]

● 정영학이 2021. 10. 1. 변호인 박환택 변호사와 같이 우리 청에 출석하여 임의제출한 녹취록 2권을 사본하여 별책으로 첨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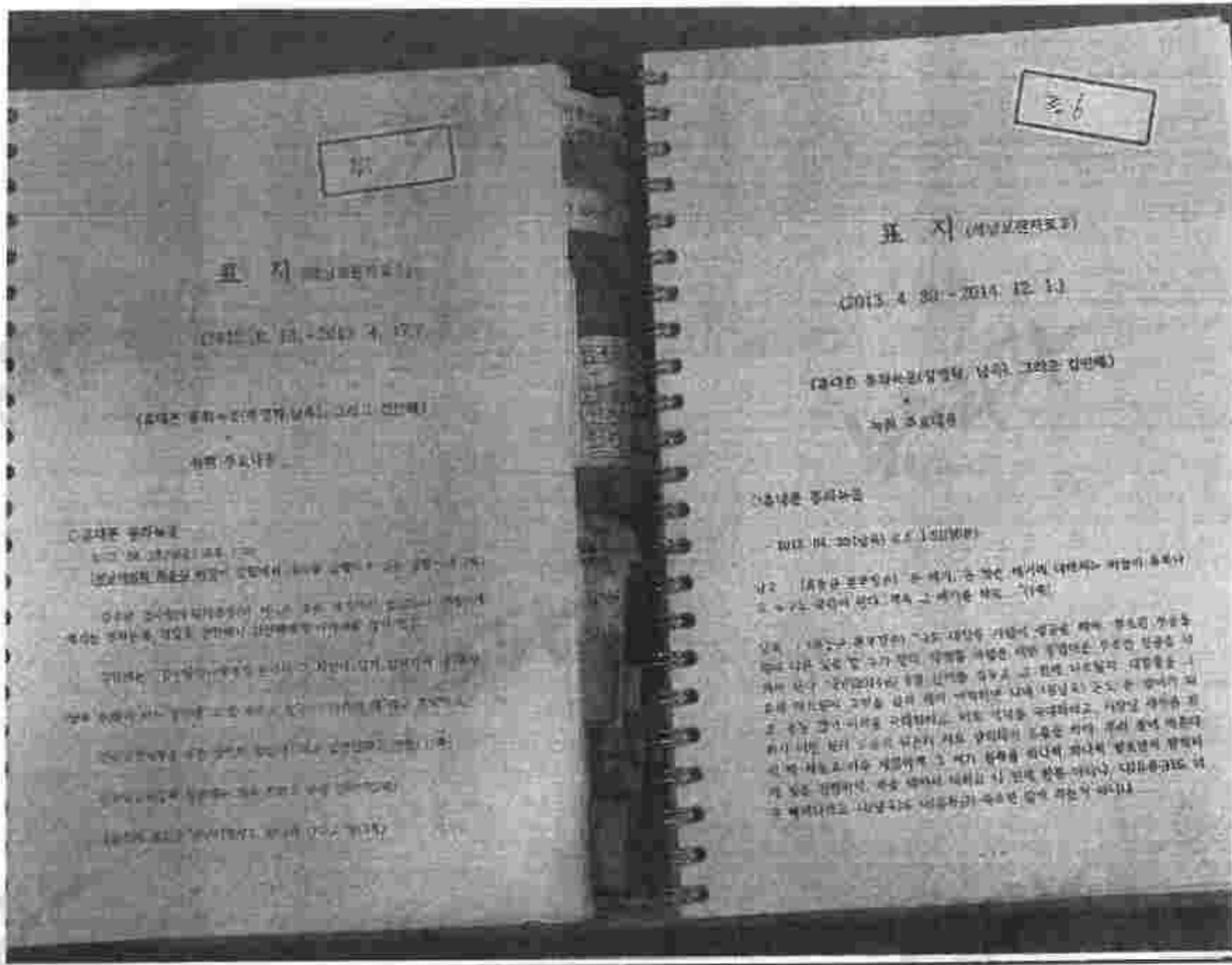
○ 정영학이 2021. 10. 1. 박환택 변호사와 같이 출석하여 같은 날 15:10경 수사 협조를 위해 본인(정영학)이 보관하고 있던 ① 사업계획서, ② 고소장, ③ 합의서, ④ 내용증명(요약) 등, ⑤ 녹취록 2권, ⑥ 휴대폰 2대, ⑦ 외장하드 2개, ⑧ USB 2개 등 총 12개의 물건을 임의 제출하였음

- 임의제출자 : 정영학

- 임의 제출물 : 사업계획서 등 총 12개

- 임의 제출 일시 및 장소 : 2021. 10. 1. 15:10경, 서울중앙지검 604호 검사실

정영학 임의제출 녹취록 2권



○ 본건 수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위 임의제출물 중 녹취록 2권을 사본하여 별책
 으로 첨부하였음

< 첨 부 >

1. 녹취록 2권 사본 1부. 끝.

2021. 10. 12.

위 보고자

검찰주사



표 지 (해남보관자료 I)

(2012 .8. 18. ~ 2013. 4. 17.)

(휴대폰 통화녹음(정영학,남욱), 그리고 김만배)

+

녹취 주요내용

◇휴대폰 통화녹음

- 2012. 08. 18.(남욱) 오후 1:19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이 검찰에서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6쪽)

: 김수남 검사장(수원지검장)이 어디서 무슨 얘기까지 들었는지 자세하게 얘기는 안하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김만배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고...

김만배는, “김수남검사장에게 본인이 그 사업에 깊게 참여해서 내 동생 (남욱 등)들이 하는 일인데 그 일 봐주고 있고, 도와줘야 돼”라고 부탁했고,

김수남검사장은 무슨 말인지 알았다. 라고 답변했다고 전함) (1쪽)

김수남검사장과 김만배는 매우 친하고 완전 감이다(2쪽)

다음주에 윤갑근 성남지청장도 만나러 간다고 함(3쪽)

남옥은, “ 저희(김만배기자)가 검찰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7쪽)

- 2012. 09. 07.(남옥) 오전 1:01

: 윤창근 대표(성남시의회 의원)는 “ 의회가 어쨌든 빨리 개원해서 퇴로를 열어줘야 그게 가능할 텐데, 이 모든 각을 유동규(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이재명(성남시장), 최윤길(성남시의회 의장) 세사람이서 처음부터 각본을 짜서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는 직접 개입을 못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거기서 더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3쪽 참조)

- 2012. 09. 27.(남옥) 오후 6:09

: 이███(김태년의원 보좌관)이 김만배로부터 돈을 가져간 사람이다.(2쪽)

윤창근 대표는 김태년 국회의원과 사무실을 같이 쓰는 관계다(5쪽)

“ 이███ 보좌관은 김만배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런 사이다”(6쪽)

: 남옥과 김만배는 (성남시 인.허가 관련하여) 두달동안(2012.7월부터 9월 경까지) 매일 만나서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다.(8쪽)

: (대장동 사업 등 개발사업은) 니들(남옥 등)끼리 해라, 니들끼리....내(김만배)가 분란 안 일으킬게.....(9쪽)

: 김만배는 정재창 보고 싶지 않다고 하자,

남옥은 정재창과 끝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김만배에게(10쪽)

: 김만배는 윤창근 대표 만나서 밤에까지 얘기를 했고.....나(김만배)에게 물어보면, “ 나는 시에서 어떤 방법을 요구하든지 일단 시작을 해놓고...”라고 남옥에게 전했다고 함.(13쪽)

- 윤창근 대표의 의견도 같은 생각이다. 일단 받아들여라. 그래갖고 묶어

놓고, 도시개발공사 설립되면 토스해 주던지, 그것도 의회에서 도와줄수 있다.
라고....(14쪽)

: 김만배는, “니들(남옥 등)이 주인이다.”(14쪽)

- 2013. 01. 27.(김만배) 오후 10:39

: 유동규는, “김만배에게 개(남옥)는 참 웃긴 놈입니다. 아니 형님(김만배)이 잘 봐주라고 그래서 잘 봐줄라고 그랬더니 전화도 안받고, 주둥이는 싸고.....형님(김만배) 그러면 누가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전화도 안받고...”라고 말했다고 (4쪽)

“(남옥은) 사업을 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만배는 “야, 대장동 사업 나(김만배)한테 얘기하지마, 내가(김만배) 대장동 뭐 주인이야 뭐야 이새끼야(유동규를 말함). 대장동 로비스트야 나(김만배)는...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최의장(최윤길의장)이 시장과 협상을 해야 되고, 김만배는 최윤길과 좀 통화를 해야 된다.(5쪽)

- 2013. 03. 05.(김만배) 오전 12:17

: “이게 나가면 남옥은 나오지 못함” 그래서 예전에 김만배와 강호식 행정관이 잘 막았어(1쪽) 터지면 이 대장동 사업 못함(김만배)(2쪽)

김만배는 조우형 검찰 사건 잘 처리해 주고 15백만원 받았다(3쪽)

김만배는 “ 강한구 의장한테 가서 본인이 다른 제안(돈을 챙겨드려야 한다는 뜻)을 해도 좋은지” 여부를 물어봄.(4쪽)

김만배는 “ 최윤길 의장도 고생하고....강한구(시의원)형도 하고 이랬는데...”(4쪽)

김만배는, "남옥이가 대표이사로 있는 한 이 사업은 난망해, 남옥은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고...."(5쪽)

- 2013. 03. 07.(김만배) 오후 9:35

: 조우형 검찰 사건은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 내 양재식 변호사에게 맡기고, 남옥 사건은 김만배가 맡고.....(2쪽)

- 2013. 03. 09.(김만배) 오전 1:40

: 강한구 시의원 부분도 김만배가 해줘야 된다.(2 내지 3쪽)

: 남옥이가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달들(수원파 홍광식 조폭 두목)한테 많은 약속을 해서....홍광식 회장에 뭐 해준다고 그러고....(6 내지 7쪽)

- 2013. 03. 14.(김만배) 오전 12:29

: "최윤길 의장 전화 온다....."(김만배)(1쪽)

- 2013. 03. 18.(김만배) 오후 11:16

: "김만배는, "남옥이는 도시개발공사가 통과된다고 믿지를 않았어. 남옥이랑 정재창은 믿지 않았던 애들이야. 왜냐면 도시개발공사는 너(정영학)랑 나(김만배)만 믿었어....통과되는걸."(3쪽)

남옥은 김우희로부터 2012년에 25억원을 차입함(6쪽).

- 2013. 03. 20.(남옥) 오후 9:52

: 유동규 본부장은 (돈 관련하여)"한 2주면 되겠냐?"라고 했고,(1쪽)

유동규가 세장(3억원)을 요구함(3쪽). 그러면서 "그리 구획제도 니네 마

음대로 그리고 다 해라 원하는대로, 땅 못사는 것 있으면 나(유동규)한테 던져라 내가(유동규) 해결해 줄 테니까” 라고....(4쪽)

그리고 유동규는 남옥에게 “대장동 하고 말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컨트롤 할려면 총알이 좀 필요한데. 니(남옥)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유동규 본부장 본인이 먼저 이야기 했음(5쪽)

저기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 원하는대로 다 해죽하면서 김만배는, “남옥이는 도시개발공사가 통과된다고 믿지를 않았어. 남옥이랑 정재창은 믿지 않았던 애들이야. 왜냐면 도시개발공사는 너(정영학)랑 나(김만배)만 믿었어....통과되는걸.”(3쪽)

-나(유동규)는 너(남옥)를 믿는다. 의장님(최윤길)도 알아서는 안되고...(6쪽)

- “ 하여튼 남옥 대표가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성남시 일(인허가 등)은....”7쪽)

- 남옥은 “오늘 여기 오늘 쇼부는 다 났습니다.”(8쪽)

- 최윤길의장은 “ 나 도와주고, 내 자리 지쳐줘라 그러면 의리 지키고 너(남옥) 끝까지 책임질게 내가(최윤길)....”(9쪽)

- 2013. 03. 21.(남옥) 오전 11:37

: (유동규 본부장이) 던지길래 멍칫도 안하고 받았었거든요...

(유동규가 돈을 요구하면서)그 대신 얼마 시간을 주면 되겠냐? 열흘이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남옥)이 숨도 안쉬고, 2주만 주십시오. 라고 그래버렸거든요 일단은.(1쪽)

- 저(남욱)도 (돈 조달관련하여) 장인어른 한번 만나야 되겠다(1쪽)
- 유동규는 " 나에게 돈 주겠다고 줄 서는 놈 많은데 그런 돈 필요 없다. 나(유동규) 개인적으로 돈 쓸일 없고, 자기가 대책을 좀 해야겠는데, 용도가.....용도를 얘기하더라구요."

너(남욱)에게 대장동 딜 할려면 그렇게 얘기 하겠냐 몇백억을 달라고 하지.....

내가(유동규) 크는데 내가 좀 베팅을 좀 해야 될 곳들이 있다.(3쪽)

유동규는 "이거는 2층도 알아서도 안되고 그 다음에 너 말고는, 니(남욱) 부인도 알아서도 안되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둘(남욱, 유동규)만 평생 갖고 가....(3쪽)

유동규와 대장동 관련 얘기를 하면서, 시장님이 남욱 등을 싫어 하는데 괜찮겠냐고 하니, 유동규는 그것이 리스크라고 한다면 미리 얘기 했을 것이고 그 정도는 유동규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함(4쪽)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다 해줄꺼니까 다 이야기 하라고 하면서...."

전화기(대포폰) 두 개를 만들어 와라고...남욱과 유동규 둘이만 비밀통화 가능하도록....(4 내지 5쪽)

- 2013. 04. 01.(남욱과 유동규가 통화한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온 자료임)

오후 6:57

: 유동규 본부장이 (이미 약속한 3억원 중) 한 개반(현금 1억5천만원)을 요구하고,

남욱은 지금까지 만든게 한 0.7천 몇백만원(7천 몇백만원) 만들었고...계속 만들고 있다.(5쪽)

유동규는 일단 그것 7천 몇백만원이라고 내일(2013.4.2.) 저녁에 강남 룸싸롱으로 가지고 오라고 함.(6쪽)

남옥은 위와 별도로 강한구 시의원에게도 돈 전달함(5쪽)

- 2013. 04. 02.(남옥) 오전 10:48

: 남옥은 정재창에게 2시에서 3시 사이에 삼성동 사무실로 오라고 문자 했음. 유동규 본부장은 남옥에게 4시까지 좀 가지고 오라고....(1쪽)

- 2013. 04. 04.(남옥) 오후 11:24

: 남옥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전달한 돈 1억6천 받아와야죠" 라고 함(1쪽)

- 2013. 04. 16.(남옥, 정재창) 오후 6:57(23초)-----동영상

정재창 : 살아도 같이 살고, 돈독해다 된다고.

정재창 : 이리 와. 세명 한번 단체사진 찍게 (1쪽)

- 2013. 04. 16.(남옥, 정재창) 오후 8:15(33분23초)

정재창 : 나는 정말 3천만원 내가 어거지로 맞췄다.(1쪽)

남옥 : 나는 3천만원...천만원만 추가해 줘요.(1쪽)

남옥 : (유동규 본부장이) 내일(2013.4.17.) (돈) 갖다 달라는데 아주....

정재창 : 그러면 알았어. 이미 다 (...) 이미 봤어
애(유동규 본부장)는 어차피 거의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이지...(2쪽)

정재창 : 아무튼간 단체사진 한번 찍어. 단체사진

이거는 서로(...) 돈 놓고 단체사진 한번 찍어야지

어차피 씨벌 판짓 못하게 다들. 이 사람(...) 이리와, 단체사진 찍어.

가만있어봐. 유동규 전달.(3쪽)

정재창 :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명판 돌려놔어.(8쪽)

남욱 : (유동규 본부장이) 꼭 1억이 필요하다고 그 마을 계속 해서...(10쪽)

남욱 : (돈 전달 장소는) (분당) 서현궁 5층 일식집.(10쪽)

- 2013. 04. 16.(김만배)

김만배 : 유동규는 한 천억 정도 남는 구조를 짜고 있어.

김만배 : 자기가 하기, 구조를 하기 나름이라고 그러면서.

김만배 : 한 2천억 정도....(2쪽)

- 2013. 04. 17.(남욱) 오전 12:12(21분14초)

남욱 : 유동규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내가 시장님 설득할 수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니냐. 최종적으로...”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유동규)는 갭을 어떻게 할 건지 너(남욱)랑 나(유동규)랑 상의해서 하면되고, 포장해갖고 시장님한테 던져만 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나(유동규)는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없어. 니가(남욱) 알아서 해. 그것만 만들어.....

그러면, 니(남욱)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형(유동규)하고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1 내지 2쪽)

유동규는 김만배가 너(남욱)에 대해서 리스크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3쪽)

남욱 : (내부 업무 분장 관련하여)

남욱은 지주들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 예금보험공사 관련 등 업무를 맡아서 하고,

정재창은, 시공사, 금융권, 경찰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고,

정영학은, 개발사업에서의 회계 업무에서 대한민국에서 정평이 나 있고,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하는데 잘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서서 일만 주로 하셔서 주로 페이퍼작성 등 업무만 주로 잘 하시고 계십니다.(4 내지 5 쪽)

남욱 : 유동규는 오늘 콜프치고 왔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실분(황무성 초대 사장)하고 했다(5쪽)

남욱 : 유동규는 대외적 명분으로 전문가(황무성 사장을 의미) 얹혀 놓고 일은 내가(유동규) 결정해서 해야지. 형(유동규) 믿고 일하지.....라고(6쪽)

남욱 : 돈을 어디서 구하지. 씨발. 꼭 그 돈이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8쪽)

정영학 : 우종이 통해서 6백 보내드릴까요(8쪽)

남욱 : 아니 그냥....그거야 뭐 사실은 상관 별로 없거든요. 저(남욱) (빌려) 주시는 거니까.(9쪽)

남욱 : (유동규 본부장은)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형(유동규)이 결정할 거다. 계속 그래요. 내가(유동규) 결정할 문제다. 그렇다고 니(남욱)가 10원도 안 내놓는다는 생각은 없는거 아니냐. 한 천억이면 될거다. 천억 정도면.

구역계도 니네 원하는 대로 해....라고 하면서(11쪽)

남욱 : 실무적인 부분은 형(유동규)이 큰 틀에서 맡기면 실무자들이 검토하면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니(남욱)가 도와줘야 될 문제가 애들을 정규직으로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만만치 않아 보인다. 옆에서 그걸 니(남욱)가 좀 도와 줘라.(12쪽)

○ 통화일시 : 2012. 8. 18. 오후 1:19 (11분51초)

○ 통 화 자 : 정영학, 남옥

(0:00~7:56)

→ 김수남 리점장

남 옥

김수남 검사장이 어디서 무슨 얘기까지 들었는지는 자세하게 얘기는 안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죽 하면서, 그래서 만배형이 형, 저 그 최회장님 하고 내가 이 사업 대장동.. 대장동 사업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최부장의

정 영 학

예..

↳ 김만배기라

남 옥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형 얘기했는데, 했지만,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주라고 돈 받고 이런.. 형, 내가 이 사업 관여하고 있어. 현장에서 깊게 관여하고 있어. 그 양반 지역구는 진짜 많이 도와주는데. 주민들하고 친하고. 소문이 많아. 나도 아는데.

정 영 학

예..

남 옥

근데 뭐 땅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시행사에서 돈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정 영 학

아, 그쪽에서 이야기가 먼저 나왔나 봅니다.

남 옥

예. 그런 것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런 줄 아시오. 그랬더니, 응 알았다. 다, 뭘 말인지.

내가 여기 (형) 저기 그 참여하고 있어. 깊게 참여해서 내 동생들 하는 일인데 일 봐주고 있어, 내가 (형)도 도와줘야 돼. 뭘 말인지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김만배

형이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놓고 의장님한테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라. 걱정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시세요.

김수남 변호사

대구 청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6회에 합격, 2015년 12월 대검찰청 검찰총장에 취임.

학력

청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경력

- 1984년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 1987년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7년 :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90년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92년 :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 1994년 : 법무부 검찰3과 검사
- 1997년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99년 :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00년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 2001년 :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 2003년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3과장
- 2004년 :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 2005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장검사
- 2006년 :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
- 2007년 :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 2008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 2009년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2009년 8월 ~ 2010년 7월 : 제60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0년 7월 ~ 2011년 8월 : 제33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2011년 8월 ~ 2012년 7월 : 제10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2년 7월 ~ 2013년 12월 : 제33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3년 12월 ~ 2015년 2월 : 제56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5년 2월 ~ 2015년 12월 : 대검찰청 차장검사
- 2015년 12월 ~ 2017년 5월 : 제41대 대검찰청 검찰총장
- 2019년 8월 : 변호사김수남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년 10월 ~ 2020년 6월 :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 2020년 7월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변호사

정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남옥 예.

정영학 진짜 고맙죠 뭐.

남옥 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토요일날 아침에 쉬시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야 임마 급하다고 달달..

정영학 아닙니다.

→ 김만배기자

남옥 아니아니, 제가 만배형한테. 그랬더니, 야 임마 급하다고 달달달달 볶았
잖아, 임마 니가. 하하하하.
↳ 남옥

정영학 하하하하. 아, 원래 그쪽하고 좀 친하신 사이?

남옥 김수남 검사장하고 정말 친하대요.

정영학 김만배 기자 님 이 요? → 배성준 기자 [머니투데이, 빙그레 이 기자]

남옥 예예예예. 성준이 형 도 야, 수원 일 은 이 제 만배형 한테 얘 기 해. 김수남 검
사장 하고 완 전 감 (...) 야. 하하하.

정영학 알겠습니다.

남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배형이 걱정 하지 말라 하시 니까.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그 양 반 은 안 되 면 안 된 다 고 딱 이 야 기 하 거 든 요. 나 안 친 해, 그 사 람 이
랑.

↓
김만배기자

윤갑근(尹甲根, [REDACTED])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

~ 1982년 : 청주고등학교

~ 1986년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검사로 활동했고, 2016년 8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특별수사팀장.

2019년 7월 10일 결국 자유한국당에 입당.

1987년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3년 - 2004년 : 대구, 부산, 서울, 대구, 청주, 평택지청, 성남지청 검사

2005년 4월 ~ 2006년 2월 : 제38대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지청장

2006년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과장

2008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2009년 1월 ~ 2009년 8월 : 제51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지청장

2010년 :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2011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검사

2012년 7월 ~ 2013년 4월 : 제29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2013년 4월 ~ 2013년 12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2013년 12월 ~ 2015년 2월 : 대검찰청 강력부 부장

2015년 2월 ~ 2015년 12월 : 대검찰청 반부패부 부장

2015년 12월 ~ 2017년 6월 : 제47대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

2016년 8월 ~ 2016년 12월 : 우병우 이석수 특별 수사팀

2017년 6월 ~ 2017년 12월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18년 1월 ~ 2019년 : 변호사윤갑근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년 2월 ~ : 제12대 한국청소년충북연맹 총장, 한중도시우호협회 안보위원회 자문위원

2019년 ~ : 법무법인 청녕 대표변호사

2019년 7월 : 자유한국당 입당

2020년 3월 ~ : (사)청주청원경찰서모범운전자회 자문위원

2020년 3월 : 미래통합당 충북도당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2020년 7월 ~ 2020년 9월 : 미래통합당 충북도당 위원장

2020년 9월 ~ 2020년 12월 :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정영학 이쪽 성남 쪽에서 그 저기 그.. ↳ 성남리청량
김진성이가

남옥 다음주에 한번 들어가실 것 같아요. 윤갑근 차장 만나러.

정영학 오케이.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남옥 예. 일단 그런 내용입니다.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영학 네네네. 그다음에 어제 재창이 전화 와가지고 밤에 늦게 전화 왔더라고요 한번.

남옥 아 예.

정영학 그 김진성이 얘기를 하긴 해요. 연락이 없다.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해서 하여튼..

김용민이가 그랬다면서요. 남 대표 설득할 사람은 정 대표밖에 없으니까 설득 좀 해주라.

남옥 예. 그거 이제, 그 얘기를 김진성이가 했겠죠. 김진성이가 거기서 했겠죠.

정영학 예.. 뭐라고 그러면서 그래요?

남옥 아니 이제 재창이형이 김진성이한테 딱 놈 말은 하나도 안 듣는다. 저 새끼가 꼴통이라. 내 말만 듣는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저기 이원빈 대부한테 했겠죠. 김진성이가. 그래서 이원빈 대부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재창이형한테.

정영학 그럼 50 대 50의 대표이사?

남옥 그러겠죠. 저는 이렇게 뭐 설득당할 그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정영학 맞잖아요.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그 사건에 대해서.

남옥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정영학 세 사람 다 합의가 됐어요, 그때는. 필요없다.

남옥 예.

정영학 그다음에, 그냥 그 어떤 방해하지 마라는 차원에서 그냥 주는 정도. 거기까지 얘기가 된 것 같긴 한데, 그건 아니었었나 보네요?

남옥 저도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제, 그제 어제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창이형하고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김진성이 꺾어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뭐. 굳이 뭐.

정영학 거기에 대해서 저야 뭐. 예예.

남옥 형님은 중간에 그냥 제십시오. 중립지대. 제가 재창이형 잘..

정영학 터지면 사고예요.

남옥 예. 기분 안 나쁘게 잘 설득하겠습니다.

정영학 알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남옥 예, 형님.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정영학 어떻게 오실래요? 그.. 그제..

남 옥 저 혼자 가겠습니다.

정영학 끝나고.

남 옥 잘.. 저기, 기분 안 나쁘게 잘 얘기하겠습니다.
아니면 얘기.. 그냥 제사 때문에 가야 된다고 나와야죠. 그게 낫지 않을까요.

정영학 저를 부르다 했거든요. 재창이가 밤에.

남 옥 아! 그러면..

) 정영학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 남 옥 그러면 제가,

) 정영학 아 그럼 (...)이니까 부르지 말고 그냥 간다고 하세요. 좀 그런가요?

) 남 옥 제가 하여튼, 하여튼 제가 골프 치면서 고민 좀 하고, 그리고 전화 미리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할지.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네네.

남 옥 예, 형님. 쉬세요.

정영학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하여튼 김만배 기자님 하여튼 뭐.

남 옥 예. 그 부분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남 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학 (...)이죠 뭐. 요즘.

남 옥 예. 아유, 대표님 어제 막 저한테도 달달달달 볶으시더라고요.

정영학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표님은. 강한구 의원 문제예요.
본인 문제로 스트레스 받긴 하시는데, 안 받았으니까 대표님이야 뭐.

남 옥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 최윤길} 제기 그 누구지. 호근이 아저씨는 강한구 위
원장 왠, 본인하고 최대표가 최의장이 검찰 수사관 관련해서 완전히 쫓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대표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한구 위원장이 ^{→ 최윤길의랑} 내가 검찰에서 내사받고
이런 걸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호근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강한구 위원
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강한구 위원장하고 대표님하고도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안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윤길

정영학 이 부분을 안하고 있겠죠.

남 옥 예. 그런 것 같아요.

정영학 그래서, 그래서..

남 옥 따로따로 정보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 서로서로.

정영학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쪽에서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강한구 위
원장.

남 옥 그러면 이제.. 아, 이쪽에서..

정영학 공동으로, 예.

남옥 던진 얘기가 이쪽으로 너네.. 우리 하는 식으로, 우리가 돌려서 다른 사람들 통해서 너네 뒤져, 이걸 한번 당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고.

정영학 아.. 같이. 그쪽도 안하겠습니까. 날고 깰다는 사람들 다 끼어 있는데.

남옥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영학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틀림없이 동원, 힘 쓰겠죠. 하여튼 다행입니다. 하여튼 우리 힘의 근원이 있어서.

남옥 예. 저희가 검찰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끝)

↓
김만배기자

○ 통화일시 : 2012. 9. 7. 오전 1:01 (11분15초)

○ 통화자 : 정영학, 남옥

(0:00~05:05)

남 옥 아직까지 답이 없답니다.

정 영 학 공무원들이요?

남 옥 예, 예. 아직까지 반대 그 께 논리를 못 얘기를 한다네요.

정 영 학 아..

남 옥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합개발은 안 되는 걸로 대장동하고, 결론이 나서 그 저기가 이재명 시장이 명칭한 공무원 새끼들 때문에 빨깃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 영 학 아, 그 윤.. 윤..

남 옥 윤창근 대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명칭한 공무원 때문에 빨깃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시장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정 영 학 그렇죠. 예.

남 옥 그게 시의회다. 시의회에서 그걸 까고 반대하고 그거를 받아줘야 된다. 이재명 시장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의회가 열려서 그걸 까기 전에 성남에 뉴스리더라는 데서 이러이러해서 법적으로 결합개발 불가능하다고 터질 것 같다네요 미리.

정 영 학 뉴스리더가 그 저기에서 한 거 아닌가요? 그 민철훈이.

남 옥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학 그럼 거기를 막아야죠 그럼. 철홍이한테. 철홍이.

남 옥 아니 뭐 상관은 없었.. 그거는 뭐 상관없어 보이는데. 만배형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 안하시고, 먼저 터질 것 같다. 의회가 열리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대장동 가는 길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가는 방법. 수용을 해서 가는 방법. 2번, 민관합동사업을 해서 가는 방법. 3번, 민영이 가는 방법. 그런데 세 가지 중에 니네는 민관합동사업을 원하는 거 아니냐.

정영학 예, 맞습니다.

남 옥 그런데 돈도 많이, 만배형이 어떻게 되든 간에 빨리 가야 되는데 민간은 힘들 겁니다. 민관합동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꼭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도 특수목적, 10억짜리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대장동 사업만 같이 하는 방법도 있다.

정영학 그러면 시에서 출자를 해야 되는데요.

남 옥 예. 시에서 출자를 해갖고.

정영학 10억짜리로요?

남 옥 예. 그런 방법도 있다. 도시개발공사 만일 못 만들면, 그거는 방법 중에 하나지 뭐 어쨌든. 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하든 뭐하든 10억만 있으면 된다. 돈 많이 안 든다. 대장동에 참여하는 건, 도시개발공사가. 그것까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맞아요.

정영학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남 옥 윤창근 대표가.

정 영 학 아, 윤 대표님이?

남 옥 예. 윤창근 대표가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들었겠죠 뭐. 누구한테. 공무원한테 들었던 자기 누구, 시에서 들었겠죠. 만배형이 얘기를 해준 게 아니니까.

정 영 학 공사설립을 안하게 되면 시에서 지분투자 우리 50억의 20%인 10억을 직접 투자를 하면 되죠 뭐.

남 옥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뭐 방법은 10억만 있으면 된다. 돈 많이 안든다. 그 얘기를 먼저 윤창근 대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형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시간이 없습니다 했더니, MOU가 됐든 보도자료가 됐든 이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상황에서 윤창근 대표 왈, 지금 상황에서 MOU나 보도자료를 시에서 바로 써주기는 어려워보인다. 의회가 어쨌든 빨리 개원해서 퇴로를 열어줘야 그게 가능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든 각을 유동규, 이재명, 최윤길 세 사람이서 처음부터 각본을 짜서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는 직접 개입을 못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거기서 더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창근 대표가.

정 영 학 예..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 같다?

남 옥 예, 예. 대충 상황이 이해 가지죠, 형님?

정 영 학 예에예.

남 옥 요 얘기,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다야, 이게. 그러면서 지금 요 얘기 하고 나왔어. 들은 얘기가. 그래서, 너 혹시 이미 알고 있는 얘기 아니

야?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 얘기 민주당이 15명 협의하고 이런 얘기 몰랐지 않습니까.

정영학 예, 맞습니다.

남옥 이개명 시장이 멍청한 공무원들 때문에 빨깃 했다는 얘기도 처음 들은 얘기고.

정영학 예.

남옥 그래서 가긴 대충 방향은 다 잡혀가는 것 같다.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 그 얘기는 좀 편하게 주무시라고.

정영학 하하.

남옥 좋은 얘기 아닌가요?

정영학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내부적으로.

남옥 그러니까요. 예. 정리 다 됐다, 실제로. (끝)

○ 통화일시 : 2012. 9. 27. 오후 6:09 (21분34초)

○ 통화자 : 정영학, 남옥

남 옥 대장동하고 결합개발.

정 영 학 예. 해야.. 그러니까 신영수 의원이 틀렸다, 해야한다,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남 옥 예, 예. 그래서 만배형 알, 그 씩새끼는 속마음을 모르겠다. 만배형 알. 하하하.

정 영 학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다시 입장이 다시 바뀌어버렸어요.

남 옥 네.

정 영 학 예. 이걸 수습을 해야 돼요.

남 옥 그 씩새끼는 속마음을 모르겠다. 근데 속으로, 겉하고 속이 표현하는 거 하고 내심이 다른 거는, 다른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스탠스를 보면..

정 영 학 옛날하고 달리 지금 (...) 힘이 굉장히 세요.

남 옥 거기가 최고죠 지금은.

정 영 학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개발계획을 해지한 뒤 결합개발구역으로 고시하는 절차만 밟으면 된다 라고 해놔서, 그다음에 신영수가 도시개발법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뭐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걸 상당히 세게 던진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국회의원 정도라고 했으면 그냥 합시다만, 이재명이 재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숙여야 되는 입장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 1 -

김태년 국회의원 보좌관.

남 옥 네. 이형. 돈 갖고 간 사람.

정영학 그분을 설득을 해야 돼요.

남 옥 예. 우리 돈 갖고 간 놈이 그놈이에요. 우리 돈 받은 사람이 그 사람 아님.
니까. 돈 직접 받아서 전달한 사람.

정영학 예..

남 옥 이형.

정영학 네?

남 옥 이형이 직접 만배형하고.. 만배형하고 친해요, 들이.

정영학 그러면 이번 기획도 이분이래요. 파악을 꼭 해봤어요, 오늘. 전부 파악을 해본 거가, 이분이 기획을 해서 이번 것도 이 사람이 의견을 내서 했지, 김태-의 의견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그냥 준대로 하지 않았겠느냐. 이 보좌관이. 비서관인지.

남 옥 보좌관입니다.

정영학 아, 보좌관입니까.

남 옥 예, 예.

정영학 여기가 그럼 지난번에 저긴가요?

남 옥 김진성이랑 붙어있다가 떼어났죠.

정영학 아..

남 옥 네. 거기서 김진성이 늘어진 거 아니에요.

정영학 그럼 여기가 지난번에 그 전달이 된 데예요?

남 옥 네, 맞습니다.

정영학 그런데 왜..

남 옥 입장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식적인 입장과 내심과, 내심과 공식적인 입장은 다르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만배형한테 계속 들었고, 만배형은 걱정하지 말라는데, 어제인가 그제는 '이 새끼는 속을 모르겠어 요새' 그러시더라고요.

정영학 그 입장이신가요? 이 [REDACTED] 보라지

남 옥 예. '이 새끼는 속을 모르겠어'
1년 후배잖아요. 김태년 의원이.

정영학 음.. 아, 지난번에,

남 옥 이 새끼 경희대. 경희대 나왔다는데.

정영학 아.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지난번에 그 배.. 배 건이 여기네요 그럼.

남 옥 이 건이죠. 이 건이죠. 배 건이 이 건입니다.

정영학 그게..

남 옥 네.

정영학 음.. 그러면 우리 이야기 듣겠는데요. 좀 설득을 하면.

남 옥 설득 안해도 듣긴 듣겠죠. 뒤질라고? 딴 사람도 아니고 김만배한테 받았는 데, 죽을라고?

정영학 예.. 아니 그러면 설득을 하십시오. 좋게.

남 옥 그런 거는 제가 얘기 안해도 해주실 겁니다.

정영학 그냥 전략적으로 지금 입장만 바꿔주면 완전히 끝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 되니까.

남 옥 아니, 공식적인 입장은 안 바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영학 그래요?

남 옥 예. 내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놓고 우리 일은 진행해라. 내부적으로 도와 줄 테니까, 이런 입장인 거죠. 공식적인 입장을 바꾸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거는.

정영학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발표를 안해야 되지 않아요?

남 옥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신영수를 되게 미워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영학 네.

남 옥 그게 파급효과가 있나요 지금? 만배형은 '신경쓰지 마라, 그쪽 부분은. 그냥'

정영학 신경쓰지 마라.. 공무원들이 다시 그 공무원들 입장이 확 바뀌어서 나온 대요. 이야기가 다시.

남 옥 아. 왜냐면 윤창근 대표가 붙은 이유가 태년이 의사 아니면 붙었겠느냐.

윤창근 대표가. 태년이가 오케이를 했고 내가 공식적으로 나설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표한테 말긴 거고. 그래서 윤 대표가 붙어서 일을 진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라가 계속적인 얘기였거든요. 재창이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어필을 계속 했었어요. 저도 계속 물어봤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윤 대표하고 김태년 의원이 사무실을 같이 쓰는 사이인데.

사무실을 같이 썼답니다. 계속. 시의회 밖에서 사무실을.

그런 관계인데, 윤 대표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부분이 지금 태년의 의사가 포함이 안 되면 도와주겠느냐.

정영학 그러겠죠.

남 옥 예.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데, 공식적인 입장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건 이해해달라고 하니, 그 대신 우리 일은 우리 일대로 가게끔 해줄 테니까 그 부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만배형이 몇 번, 한 세 번 정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만배형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영학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믿어도 만배형님 이야기는 믿습니다. 하하. 그 정도 신뢰는 있어요. 믿고 가야죠.

그런데 이제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하더라고요. 공무원들.

남 옥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학 예. 오늘 발표가 뭐라고 발표를 하셨냐면, 대장동 같은 경우는 구역지정 해제하고 다시 밝아서 진행을 하자. 신영수가 틀렸다. 법도 모르고 한 이야기다. 이렇게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그럼 다시 또 진행해도 되는가 보더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그.. 어차피 이 시장이 김 말을 따를 수밖에 없대요.

남 옥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 영 학 네, 완전히 발발이랍니다.

남 옥 예, 지금은 그렇죠.

정 영 학 해놔서 지금 완전히 홀딩 상태라는데요. 다들.

남 옥 아니 그 얘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태년이가 맹주가 돼서 태년이 말 안 들을 수 없다.

정 영 학 성남에서. 그래서 지금,

남 옥 성남의 맹주는 김태년이다.

정 영 학 맞아요, 맞아요. 잘 보셨어요. 그래서 그게 혼수상태라서 약간 조금 스톱을..

남 옥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돈 진짜 갖다 줬냐고, 그게 효과가 있냐고 그래버리니까.

정 영 학 그건 아니고. 그거는. 그건 아니고. 설득을 해야죠. 이 ■■■ 보좌관 가서 설득을 해야죠. 이제 공식적인..

남 옥 설득할 일이 아니라, 만배형한테 꼬랑지예요. 이 ■■■ 보좌관은.

정 영 학 그러니까.

남 옥 야 와, 하면 오고, 가 하면 가고 그래요. 이 ■■■ 보좌관.

정 영 학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하시지 말고 좀 좋은 쪽으로 도와 주십시오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남 옥 글썄요.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 제가 그 부분.

정영학 좋게요. 좋게.

남 옥 예. 좋게. 그럼요. 좋게. 아니 어차피 마무리는 해주시고..

정영학 아니, 오히려 잘된 거 아니에요? 아니 자. 자.

남 옥 마무리는 해주시고 빠지겠다고 했으니까.

정영학 남 변호사님.

남 옥 예.

정영학 남 변호사님, 오히려 잘된 거예요. 왜? 연이 있으니까. 오히려 잘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걸 떠나서 우리한테는 얼마나 좋은 힘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이 보좌관을. 모르니까,

남 옥 왜 모르세요? 저도 아는데 형님. 저도 알아요.

정영학 직접 가서 의견 바꾸라 할 정도 힘은 없잖아요.

남 옥 그건 만배형 시키면 되죠.

정영학 그러니까. 그런 거 도와주시란 얘기죠. 좋게.

남 옥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는 잘 해주실 거라니까.

정영학 아니, 싸울까봐. 팬히.

남 옥 예?

정영학 괜히 오해할까봐.

남욱 아니 아니,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십니다. 그냥 쿨하세요. 마무리 해주
고 빠질게. 너희들끼리 해.

정영학 ↳ 남욱 + 정영학 + 남욱
빠진다는 이야기도 좀 그렇고. 계속 도와주시라 하세요.

남욱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 분란의 중심에 더 이상 서고 싶지는 않습
니다 형님. 그냥 없어도 가요, 이제 형. 제가 보기에. 충분히. 충분히 갑
니다.

정영학 둘이 증재하면 돼요. 아니 저도 증재하면.. 아니 남 변호사, 저도, 저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는 싫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막 뭐
라 해서 싫었는데.

남욱 저도 처음에 그래갖고 얘기 잘 안했어요. 처음에 보자마자 이 새끼 저 새
끼 하더라고요.

정영학 (...) 되게 좋아요. 마음에 들고 좋아요. 지랄해도 좋아요.
그런데 일을 위해서는 그게 낫겠다 는 얘기죠.
양완범이도 아주 시니컬하고 좀 싸늘하잖아요. 싫어. 스타일이 싫는데, 그
래도 일 때문에 좋아요. 잘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좀 참고 가요.

남욱 아니 그게 참고 이게, 형,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요 제가
형, 형은 저한테 얘기를 지금 요 근래에 하시잖아요.
저는 두달 동안 매일 만배형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만배형이 약간 각을 세우시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완전히 스탠스가 다르..
어제는 제가 이제 뭐, 만배형은 나가시겠다고 하고 뭐. 이 얘기만 드리고
말았잖아요. 어제는 좋은 일만 있었으니까.

정영학 네, 네.

남욱 예. 그런데 만배형이 딱 그.. 제가 매일 거의 매일 통화하고 매일 보는데, 스타일을 너무 잘 알죠. 만배형 되게 쉬운 사람이에요.
제가 보는 김만배라는 스타일은 다 눈에 보이는 스타일이고, 본인이 그걸
알아요.

정영학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더군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걸
좋게 봐줘야 되는데, 아니 저는 좋게 보여요 이제. 왜? 진짜 열심히 하시
잖아요.

남욱 예. 그런데 형님, 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지치셨대요.

정영학 아까 제가 재창이한테도 얘기했어요. 정말 고맙다, 나는.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욱 예. 그러니까 하여튼 형님, 이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 잘 갈 거니까 니들 분란 일으키게 하고 싶지
않고, 형도 이제 좀 지쳤대예요. 지쳤으니까, 형도 형 일 하고, 언제든지
도와줄게. 언제든지 도와줄게. 그 정도예요.

뭐 요새 그렇다고 해서 말한 것처럼 니네 잘 되나봐라, 이거 절대 아니고.
형, 절대 그런 사람 아니구요. 예예. 그냥 니들끼리 해라 이제. 니들끼리.

김만배.

← 내가 분란 안 일으킬게.

↑ 김만배

정영학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예 맡겨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것
도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아시잖아요. 정치적인거나,
아니, 그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욱 그건 안하실 겁니다. 그 설득을 제가 계속 했는데, 저도 포기했어요.
형 하시자는 대로 할게요 했어요. 이제 안하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했거든요. 형이 싫다 하셔도 재창이형하고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사이입니다. 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도.

제가 그렇게밖에 얘기.. 뭐 그렇다고 해서 만배형이 재창이형 싫으니까 재창이형 나가게 하면 일하는 이런 건 아니지만, 나 재창이 보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저는 재창이형하고 끝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남욱.

정영학 남 변호사 머리 터져버리겠네요.

남욱 예.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형들이 빠질게. 나는 그건 싫다 이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니들 일을 도와줘야 되느냐. 난 돈도 싫고, 다 싫다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 뭐뭐 본인이 그렇게 본인들이 결정을 하신 부분인데.

정영학 예..

남욱 형,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하면 처리해주실 거예요 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나 몰라라 하지는 않으실 거고.

정영학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남욱 예예예. 그냥 내비두시자고요. 뭐 또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내비두겠어요? 설득하겠죠. 추석 때 가서 얘기하고 또 할 건데, 일단은 어제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 각 잡는 분위기가 아니라, 지쳤더라고요. 지치고, 진짜 서운해.

정영학 신영수가 (...)

남욱 예.

정영학 예예예. 고생하신 거 보여요.
그다음에, 대표님 (...) 하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남 욱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좀 마음을 접으신 것 같아요. 확실하게, 거기도 결정하면 안 바꾸는 스타일이라. 올인할 때 딱 올인하고, 너무 잘 알죠. 제가 붙어봐서, 진짜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녔잖아요. 매일 새벽까지.

정영학 인정해요. 맨날 우리 2시 3시까지..

남 욱 아니,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됐습니다, 돈도. 됐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야 돈도 싫다. 그럼 뭐라 합니까, 형님. 하하하.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정한 거예요.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는 재창이형을 선택할 거고, 뭐 그래야 뭐 그거는 근본이니까. 그래서 저도 오케이 한 거고. 그렇게 하십시오. 편하신 대로 형님. 어차피 재창이형 계속 뛰어다니시면 또 방법이야 많지 않겠습니까 형님.

정영학 그러십시오. 예.

남 욱 예. 재창이형 저 이제 관여 안할라고요. 그 부분은. 맡겨놓고.

정영학 아니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우리 쪽으로 왔다가 분위기가 확 하루만에 바뀌는 거가 안 좋아보여서 그래요.

남 욱 음.. 그거 모르겠어요. 만배형이 그걸 작업하거나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정영학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남 욱 그렇게 무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영학 절대 그럴 거라고 생각도 안하고. 이번 건 단순히 그 두 사람 싸움이에요. 신하고 김하고 싸움인데, 그런데 애가 저쪽에 갔으니까 이쪽으로 와 있는 것 정도라고 생각은 되구요. 그래서 그냥 지금이라도 그 뭘니까. 조금 공식적인 입장 쪽은 계속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래요.

) 남 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쪽 그거는 제가..

) 정 영 학 좋은 쪽으로. 괜히 오해 안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남 옥 예예. 만배형한테 잘 말씀 드릴게요.

) 정 영 학 고맙다고 꼭 좀 전해주시고.

) 남 옥 예, 알겠습니다.

정 영 학 하하하. 저야 감사하죠.

남 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형, 어차피 사업 아녘니까.
사업인데,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 정 영 학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죠. 당연히.

) 남 옥 예. 그런데 어쨌든 왔지 않습니까, 형님.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안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역
량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씨발 저 새끼 안 봐. 재창이형처럼 그런 스텐
스도 아니에요. 그냥 야, 형도 그냥 빠질게. 니들..

나 감안대

정 영 학 아니 개인적으로 저나 남변호사 성향 자체가 되게 개인적으로 이간질 안하
고 가급적으로 붙여줄라고 노력은 하잖아요.

남 옥 그러니까요.

정 영 학 옛날에는 에이, 가서 막 했는데, 지금은 안해요. 왜냐면 다 죽으니까.

싸워봐서 알잖아요.

남 옥 그래봐야 지금 이래도 우리꺼고 저래도 우리건데, 얼굴에 침 뱉는거지.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영학 그래서 그냥 서로 이렇게 좀 잘 지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남 옥 예.

정영학 아니 잘 돼야. 진짜 이 판에 괜히 이렇게 막 흔들 필요 없잖아요. 다 됐는데.

남 옥 그러니까요. 형도 제 생각을 좀 솔직히 이해해 주셨으면, 제 결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님.

저, 형하고 생각 똑같아요.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 성향을 충분히 그 사람 그분들이 알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해도 저 믿고 어떤든 간에 기다릴 사람..

정영학 아니,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이제 시작이에요. 뭐가 시작이냐면, 이제 원구성했을 뿐이에요. 예?

남 옥 예.

정영학 그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은 시에서 투자한다고 그러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했다가 그러면 나중에 다시..

남 옥 만배형이 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밤에도. 윤창근 대표 와갖고 12시 반까지 얘기하고 헤어지셨는데, (형)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면 (나)는 시에서 어떤 방법을 요구하든지 일단 시착을 해놓고,

정영학 오케이. 오케이. 저도 그 생각이고,

김만배

남욱 + 정영학 + 정영학

남 욱 그리고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니들이 주인이다.

정 영 학 맞아요. 맞아요. 아침에 양완범 이사랑 한 1시간 정도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일단 공사설립 절차를 어제 알아보니까 윤 원장님이 빨리 안 된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럼 시하고 출발을 하자, 일단, 출발을 해놓고 나중에 바뀔시다 라고 의견을..

남 욱 윤창근 대표의 의견도 똑같습니다. 일단 받아들여라. 그래갖고 묶어놓고, 그리고 나서 도시개발공사로 토스를 해주든지. 그것도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정 영 학 맞아요. 그렇게까지 할라면 의회가 완전히 우리 손에 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왜냐면 김만배 기자가 그걸 잡았잖아요. 양쪽 다. 느낌이. 느낌이. 그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남 욱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달라면 도와주실 겁니다. 향후에도.

정 영 학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남 욱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정 영 학 걱정은 아니고, 나중에 써먹게요. 혹시 진짜 필요하다면 나중에 써먹게요.

남 욱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잘 유도해서 할 건데, 만배형이 딱 선을 그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거죠.

정 영 학 네네. 그다음에, 한 5백 정도는 좀 제가 저녁에 만들어보자 할게요.

남 욱 예, 예.

정영학 내일 혹시 오전에 전화해서 잘 좀 설득을 하세요.

남욱 예, 형님, 알겠습니다.

정영학 예, 오케이.

남욱 하여튼 저기 그, 재창이형 부분은 저는 무조건 동의 오케이입니다, 형님. 저 의견제시 안할 거니까. 그냥 내일 형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해주세요. 형님이 그 대표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만 아니면 그 부분은 반대고요, 저는. 그것만 아니면.

정영학 제가 지금 절ripp죠, 되게.

남욱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도..

정영학 조례안을 바꾸자고 나오는데, 저는 조례안 얘기는 안된다라고 벌써 이미 공청회까지 끝났는데 뭐냐.

남욱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정영학 조례안에다 뭐를 넣고 싶어하냐면, 넣으시겠다 하냐면, 대장동 환지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넣어주겠다.

남욱 네. 누가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정영학 박성수가.

남욱 박성수가?

정영학 네.

남 옥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몇달 걸리겠네.

정 영 학 예?

남 옥 몇달 걸리겠어 또, 공청회까지 끝난 걸 어떻게 바꿨니까.

정 영 학 제가 설득할게요.

남 옥 하하하. 아니 그 뭐, 아니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유. 제가 지쳐갖고. 하하. 저도 지금 지쳤습니다. 이제 더..

정 영 학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남 옥 예. 안 지를라고요. 내비둘라고요. '형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까도 '예, 형. 저 없어도..' '야, 너 없어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예, 저 없어도 하시잖아요. 영학이형 만나서 상의하세요'

정 영 학 오세요.

남 옥 아니요. 저 약속 있습니다, 형님.

정 영 학 예.. 아니 그런데 아직 시간도 안 정해져 있고. 조례안을 건드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는 할게요.

남 옥 예, 형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여하튼 그쪽으로 놔둬볼게요 그럼. 여하튼 뭐 이미 발표까지 했는데. 여하튼 수습은 해주세요. 이 보좌관.

남 옥 제가 그건 수습하겠습니다. 이 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영 학 예. 오늘 난리. 뉴시스 네이버에 짝 나왔어요. 전부다. 네이버에 다 실려

서 알았어요. 네이버에 뭐라고 나왔냐면, 대장동 치면 쪽 나와요.

) 남 옥 아, 알겠습니다.

) 정 영 학 여야 공방전 뭐 뭐, 국회의원 간 티격태격. 주민반대로 표류. 오늘 많이 나왔어요.

남 옥 아 예, 알겠습니다.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남 옥 제가 이 보좌관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정 영 학 예. 아니 그냥 부드럽게.

남 옥 예, 알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그럼요.

) 정 영 학 어디 계실 거예요? 저녁에.

) 남 옥 저요? 뭐.. 집사람이랑 나와서 다니고 있습니다.

) 정 영 학 아, 지금요? 아.. 그럼 예예. 죄송합니다.

) 남 옥 아 예, 알겠습니다.

) 정 영 학 네, 수고하십시오.

남 옥 내일 또 전화 올리겠습니다.

정 영 학 예, 수고하십시오. 예.

남 옥 예. 예. (끝)

○ 통화일시 : 2012. 12. 24. 오후 8:01 (2분10초)

○ 통화자 : 정영학, 남옥()

) 남 옥 그렇다 해서 제 입으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아무리.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도 참 저도 같은, 본부장님이랑 같은 생각이지만, 의장님하고 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혹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저야 그 방법이 제일 쉽지만. 그리고 자꾸 이리저리 피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정 영 학 하하하.

→ 유동규 본부장

남 옥 유 본부장은 계속 그거를 돌려 돌려 압박하는 거고. 뭐하러 저한테 전화하겠습니까. 주민들 때문에? 아이! 아니죠. 니가 돈 줄 사람이죠.

) 정 영 학 그런 것 같아요.

) 남 옥 그럼요.

) 정 영 학 보통분이 아니에요.

) 남 옥 그럼요. 예.
그 정도 내용입니다, 형님.

정 영 학 네..

남 옥 그러니까 이제 좀, 두분 정도는 좀 작업이 되면 일단 선으로 베풀고 후 개런티를 뉘앙스라도 드리면. 뉘앙스 정도만. 어떻게 하겠다 아니고, 뉘앙스 정도만 알아듣게끔 해줘도 기대들을 할 테니까. 그때 저희들이 따로 붙어서 정리해줘도 되는 거고. 그거는. 그렇지 않습

니까.

정영학) 그런 것 같아요. 예.

남 옥 강한구.. 정용환. 정용환 제가 따로 만나도 되고 나중에.
강한구 위원장이야 저기 호근이형 시키면 되고.

정영학 └─> 박호근 시의원 (민족의)
거기 시켜서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남 옥 그럼요. 예. 그러니까요. 그 정도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시면 어떨
까 싶어요.

정영학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남 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영학 네네, 하여튼 고생하시구요. 내일 잘..

남 옥 네. 쉬시고요. 내일 만나고 나서 전화 올리겠습니다.

정영학 예. 전화 주십시오. 오케이. 대단한 분이세요.

남 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학 진짜로. 진짜로. 김민기 다음이에요.

남 옥 알겠습니다. 진짜인지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영학 정말로 세신 분이예요. 그분이 나오면.. 아니 진짜로 나오기가 쉽지 않
겠더라니까요. 정말 거물이에요. 보통분이 아니더라고요.

남 옥 프리. 프리. 프리 어디 무슨 호텔에서 보자고 그러던데. 프리 뭐가. 프린

스호텔.

정영학 예. 사진 자세히 보시고.

남옥 알겠습니다. 사진 자세히 보고 가겠습니다.

정영학 수고하십시오.

남옥 네. 내일 전화 올리겠습니다.

정영학 네, 수고하십시오. 예.

남옥 예. (끝)

○ 통화일시 : 2013. 1. 27. 오후 10:39 (16분16초)

○ 통 화 자 : 정영학, 김만배

(5:31~11:40)

) 김 만 배 유동규가 나한테 한 얘기를 정확히 성준이한테도 얘기 안했다고.

) 정 영 학 아 예. 저는 전혀 전달 안했습니다.

김 만 배 성준이가 옥이가 전화가 왔대. 성준이한테. 자기를 불신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정 영 학 하하하. 하여튼 참.

김 만 배 내가 그랬어. 미친 새끼네. 지가 꼼꼼이 생각해보라고 그래. 그런 걸 느꼈으면. 너 같으면 형이 여기서 일 볼 때 가장 뭘 중요시 여기냐. (...)

정 영 학 맞습니다. 예.

김 만 배 그러면 형이 왜 화를 냈겠냐. 그러니까 뭐, 옥이가 떠벌렸어요? 그러길래, 그거는 개가 너무너무 잘 알아. 물어봐.

정 영 학 예. 잘 알겠습니다. 술 먹고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좀 뭐..

김 만 배 왜냐면 내가 그 전날 니 앞에서 교육 시켰잖아. 넌 봤으면서 그러니. 너는.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너 봤어, 안 봤어?

정영학 예. 같이. 예.

김만배 그래 교육 시켰잖아. 만나러 간다고 그러기에, 옥이 스타일을 알아서 옥이한테 교육을 시켰어. 응? 나는 딱 보면 스타일을 아니까. 그래서 만나러 가서 어느 정도 시점에 옥이가 또 저기할 것 같아서 내가 옥이한테 조금 조금 조금 설명을 해줬잖아. 갑을관계서부터 다. 그런데 본인은 내 얘기를 내가 목 아프게 얘기를 했는데 가서 그런 질문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식으로 막 떠들어댄 거 아냐.

정영학 하하하. 예.

김만배 나는 유동규가 어떤 얘기를 옥이한테 할지 짐작을 하고 있었거든. 옥이는.. 아니 동규는 되게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그런 거야.

정영학 예..

김만배 저 형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도 다 하니까 그냥 썩썩썩 한거지. 시장한테 안 갔겠니? 그런 얘기들이 다 갔지.

정영학 아.. 잘 알겠습니다. 조심, 조심, 입조심 해도..

김만배 시장한테 했대.

정영학 예. 그러면 완전히 거의 뭐.. 참. 예. 여하튼 입조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만배 전화를 받아야지 왜 안 받아. 그 새끼 개새끼지 그거. 응?

정영학 예..

김만배 시골에 있어서 전화가 안 터져서.. 그러면 문자가 왔거나 그러면 나와서라도 전화를 해야지. 아니 세종시 어디에 있는데 전화가 안돼. 내가 아는

장패들 오지에 가 있어도 전화 다 되더구만.

정영학 로밍 잘 됩니다. 자동로밍. 요즘은.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일만 하니까. 일만 하니까. 하하하.
아니 지금 근데 그럼 유 본부장님 아직도 지금 완전히 그냥 틀어져있는 상태입니까?

김만배 아니, 유동규는 이미 경고를 했잖아. 이상락인가 개 (...)
앞으로 남욱이 전화도 하지 말고, 남욱이 일에 일체 협조 안한다고 경고를 했잖아.

정영학 그 위원장님 충격이겠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위원장님 자체가요.

김만배 위원장?

정영학 예.

김만배 모르지. 뭐 들이 통화했겠지. 위원장이랑 남욱이랑 안했겠냐. 친척이라는 데. 친척이라는 데.

정영학 예.. 들어와서 잘 수습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만배 아니, 지가 똥 썩 것 지가 수습하고 다니고 이래야지.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요. 많이 좀 이쁘게 봐 주십시오.

김만배 유동규 (...)

정영학 하하하. 남옥

김만배 '형님, 개는 참 웃긴 놈입니다' 그래서 '뭐가 웃겨 입마?'
'아니, 형님이 남옥이 잘 봐주라고 그래서 잘 봐줄라고 그랬더니 전화도 안 받고, 주둥이는 싸고' 그러면서 '뭐 저를 어떻게 편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형님 그러면 누가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요'

김만배

정영학 하하하. 아유 참.

김만배 '사업을 안하겠다는 거 아녘니까' 그래서 '야, 대장동 사업 나한테 얘기하지 마, 새끼야. 내가 대장동 뭐 주인이야 뭐야 이새끼야. 대장동 로비스트야, 나는,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아 형님, 다 알아요'
'뭘 알어? 이 새끼야'

김만배

정영학 다 다 다 다, 다 알지 않겠습니까.

김만배 '형님, 저 나중에 형님이 부탁하면 들어줄게요' 근데 하여튼간.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아유, 그러면 뭐 뻔한 거 아니냐. 우리 중에서 유동규한테 누가 얘기했겠니.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14:40~16:16)

김만배 그래서 주는 대로 받지, 뭐가 부족하니 많으니 이런 소리 절대로 안해. 왜냐면, 나는 니네들한테 가오 상하고 싶지 않아 이제.

정영학 예..

김만배 쪽팔리게 내가 니네들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

정영학 예.. 아주 뭐. 예. 그.. 예. 하여튼 뭐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 최윤길 의장

김만배 응. 단, 최의장 부분만 정리해봐. 왜냐면 최의장 섭섭하지 않게만 해봐.

정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김만배 결국은 최의장이 시장하고 협상을 해야 돼.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 최윤길 성삼자의회의장 [2012.1.1 ~ 2014.6.30]

김만배 그래, 들어가고. 나는 최의장님이랑 좀 통화를 해야 돼.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그래 들어가고, 내일 통화하자.

정영학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이나 한번 찾아뵙 생각입니다. 다음주 중에는요. 의장님도 한번.

김만배 그래. 다른 애들이 안하더라도 니가 의장님한테 자주 드리고 이런 상의 좀 하고 그래.

정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저야 뭐. 저야 뭐 그냥 현장을 포기할 해도 의장님은 지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는.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김만배 그래. 응~

정영학 네네. 고맙습니다. 네~

김만배 응~

정영학 감사합니다. 예.

김만배 응~ (끝)

○ 통화일시 : 2013. 3. 5. 오전 12:17 (42분59초)

○ 통화자 : 정영학, 김만배

(0:00~5:35) → 남쪽

김만배 이게 나가면 옥이는 나오지 못해.

정영학 예..

김만배 그거를 예전에 형하고 이형이 틀어막아놓은 거야. 홀딩.

정영학 네,네. → 행랑떠나.

김만배 중지돼 있는 상태야. 검찰.

정영학 예. 아, 그건 종결된 게 아니라 그냥 중지?

김만배 응응, 중지. 응. 중지. 그러기 때문에 저거는 나랑 호식..
이제 뭐 최윤식이 가면 형이 해야 되겠지. 저거를 계속 케어를 해야
돼.

정영학 예예예.

김만배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예예, 예.

김만배 그 당시에 그것..

정영학 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 만 배 그렇지. 터지면 이 대장동 사업 못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응. 그것 돈 한푼도 안 왔어. ■■■이형한테 돈 주기로 하고 한푼도 안 줬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몰라. 니네들한테 찾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푼도 안 왔어. 형한테.

정 영 학 예.. 그건 욕이 지 일이지 않습니까?

김 만 배 그렇지.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다 깔끔히 막았잖아. 응?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응. 그런데 돈 한푼도 사실 안 왔어.
난 어떻게 썼는지는 알어, 대충. 왜냐면 성준이가 한 말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형은 일체 안 갖는다. 니네들 나중에 받아오더라도 안 갖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왔겠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나는 업무, 형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영학아.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응. 지금 왔다갔다 계산하면 지금 뭐냐면, 형이 공적으로 쓴 것 말고 사적으로.. 공적으로 들어간 돈 따지면 형이 더 받아야 돼.

↓
- 2 -
"로비"한 돈

정영학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뭐..

김만배 응.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형 핑계도 대고 많이 가져왔을 거라고 나는 봐. 왜냐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옥이 성격상. 응?

정영학 예, 예.

김만배 근데 나는 성남 일이든 서울 일이든 한번도 돈을 받아온 적이 없어. 받아본 적이 없어.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만배 응. 다 형 돈 쓰다가 모자라서 달라기 시작한 거야. 백만원씩 쥐라 뭐해라. 왜냐면 맨날 샀어, 형이. 최윤길 의장한테 물어봐. 맨날 형이 사다가 요새 돈이 없어서 유동규가 세 번 정도 사고, 최윤길 의장이 한번 정도 사고 그랬던 거야. 저번에 최윤길 의장 카드로. 아니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써. 형도 빌려오는 데에 한계가 있고. 맨날 니네들 없다고 죽느니 사느니 이러는데.

정영학 예..

김만배 그리고 검찰 일에 돈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
우형이 일할 때 뭐 형한테 조금 주고. 왜냐면 형이 변호사비를 깎아줬으니까. 그건 정상적인 대가. 그래서 천5백인가 얼마 주고. 그..
아니 하여튼간 형이 거의 혈값에 해줬어. 우형이라고 지 일 할 때. 우형이 돈 가져온 거에서 두놈이 또 나눠 썼겠지. 형은 그게 천5백만원 받았나 천만원 받았나. 그리고 검찰 일에 돈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어.

우형

정영학 예..

김만배 아니 진짜로 받아본 적이 없어.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하여튼 그..

김만배 그런데 내가 보면 니 성격에 100% 졌을 거여. 안 봐도 뻔해.

정영학 그거 다 밝히면 폭발해버립니다. 아니 그냥 뭐 생활비도 있고 뭐 그 돈도 있고.

→ 2012. 8. 18. 수원지검 수사 무마전

김만배 응, 그래. 왜냐면 형은 최윤길 의장 건도 그렇고,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다 형 돈 썼지. 왜냐면.. 응, 응. 한번도.

정영학 예. 하여튼 전 속사정 잘 알구요. 그다음에, 하여튼 공사 설립할 때 제일 고생 많으신 것도 충분히 다 알고 있고.

→ 강한구시역원

김만배 아니 아니, 그거는 형이 고생한 게 아니라 한구형이 고생을 했지. 최윤길 의장하고. 이삼우 선배하고. 그런데,

정영학 네, 네. 강 위원장님 이렇게까지 저희는 못했었거든요. 설득을. 그거 다..

→ 김만배

김만배 그래, 응. 형이 얘기했잖아. '강한구 의장한테 가서 형이 다른 제안을 해도 좋으냐' 너한테.

정영학 예, 예.

김만배 그러니까 이거는 너랑 나랑 나중에 한구형을 챙겨드려야 되는 부분이야. 그지?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김만배 응. 그런데 이제, 뭐 형이 한 게 사실 없지. 그런데 최윤길 의장도 고생 하고 한구형도 하고 이랬는데.

나는 욱이가 좀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 어떤 태도냐면, 돈 씹씹이라든가 책임감 있는 행동.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

(10:35~13:30)

김 만 배

우선은 ^{남욱} 욕이가 대표이사로 있는 한 이게 난망해.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왜냐면, 욱이의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조건 안 되면 뺐어. 대표이사가 뺐으면 안 되지.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남들은 시다발이인가, 남들은 다 해서, 진짜 이 공이 깨지면 안 되니까 남들이 지키는 거지. 대표이사는 늘어지잖아 그냥. 혹 하고. 나는 그런 게 싫은 거야.

정 영 학

예.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도 전문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만 배

응. 그런 생각. 그리고 나중에 그 이외에 차선이 생기면 또 이렇게..

정 영 학

모아야죠. 전문인을 포스트로 해놓고. 아니 저도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고, 재창이한테도 계속 설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창이도 그렇게 갈 거고, 또..

김 만 배

왜냐면, 욱이라는 놈이 내가 이렇게 딱 보면 성준이 그 돈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심혈을 했니. 넷이서. 응? 재창이 죽일놈 살릴놈. 그런데 재창이 명예회복도 못하고, 나는 씨팔 그거 해서 반만 값은 줄 알았더니, 재창이 딱 눈치가 다 값은 눈치야. 그러면 그것도 병신, 나한테 얘기도 못하고. 형 다 값았어요 소리로 한마디 못하고. 그 새끼 바보새끼 아니냐, 그거. 응?

정 영 학

예.. 아니 왜냐면 배 기자하고 재창이가 통화를 아예 안합니다. 확 갈라

놔가지고, 도저히 통화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김 만 배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나한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냐. 정확하게. 그거 바보새끼지 그거.

정 영 학 거기도 갈라놔죠. 욕이가.

김 만 배 나하고 재창이도?

정 영 학 예. 하하.

김 만 배 아..

정 영 학 확 갈라놔죠.

김 만 배 그래서 재창이 태도가 재창이가 그러는구나, 나한테. 애새끼.

정 영 학 예. 그러니까 재창이는 애도 좀 약간 좀 그런 거가 사실 욕이 작품이거든요.

김 만 배 아니, 단순한 거지 그게. 한번 물어보면 되지. 등신.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아니면 너한테 만배형 태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든가. 난 진실하게 했잖아. 니네들한테 지금까지. 응?

정 영 학 아니 중간중간 이야기는 해줘도, 하도 욕이가 그걸 조절을 잘 해요.

김 만 배 아.. 하긴 뭐 맨날 만나서 떡치는 사이일 테니까.

정 영 학 예.. 그래가지고 배 기자하고,

김 만 배 내 말을 믿겠니.

정 영 학 배 기자하고 재창이 사이도 확 벌려놨고, 또 형님하고 재창이 사이도 확 벌려놨고. (끝)

○ 통화일시 : 2013. 3. 7. 오후 9:35 (2분16초)

○ 통화자 : 정영학, 김만배

김만배 왜냐면 그 부분을 진짜 몰새지 않게 잘 해놔야 돼. 그래야지 그 저기가 그 뭐야, 지장이 없잖아.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만배 그게 뭐 나중에 끝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터져도 상관은 없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니네들 외국에 가 있을 거니까. 응?

정영학 하하. 그거는 저하고 재창이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김만배 알어. 알어. 너하고 상관없는 거 알아.

정영학 그냥 옥이만.

김만배 응. 근데 이강길이는 관련 있대.

정영학 예에에.

김만배 근데 이제 그거를 그때까지는 몰새지 않게 해놔야 될 거 아냐.

정영학 예, 맞습니다. 예에.

김만배 그래서 성준이한테도 얘기 안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만배 응. 재창이한테도 하지 마. 괜히 오해 사. 오해 사.

정영학 예. 전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전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원래 지난번 거는 그거는 배 기자가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만배 어떤 거?

정영학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신 거는.

김만배 아니 아니, 저기, 금조1부에 있는 거는 형이 맡았어. 형이 맡고,
풍동꺼는 배 기자가 맡고 있는 거지.

정영학 아! 예예, 잘 알겠습니다.

→ 조우형

김만배 풍동꺼에 남욱이 문제는 성준이가 맡고 있고, 우형이 문제는 형이 박영수
고점장님네 양재식 변호사보고 하라고 했고. 응?

정영학 네.

김만배 그리고 이강길이 저 옥이 문제 그거. 그거는 형이 맡고 있고. 그건.

정영학 예.. 여하튼 잘 덮어야 됩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예,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김만배 그래 그래. 음.

정영학 여하튼 끝나자마자 전화는 드리겠습니다. 예예.

김만배 그래 그래. 전화 줘.

정영학 네, 고맙습니다. 네.

김 만 배 - 아니 아니야. 너 고생이 많다.

정 영 학 -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 만 배 - 그래~ 음~

정 영 학 - 네, 고맙습니다.

김 만 배 - 음~ 음~ (끝)

○ 통화일시 : 2013. 3. 9. 오전 1:40 (1시간10분33초)

○ 통화자 : 정영학, 김만배

(41:47~46:30)

김만배 나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것 같애? 니가 볼 때, 액수를 떠나서.

정영학 액수를 떠나서 형님은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용역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냥 형님 혼자의 법인, 혼자의 회사.

김만배 응.

정영학 예.

김만배 아!

정영학 그래서 그냥 그 법인에다가 가지고 있으시면.. 왜 그러냐면요, 욕이 누구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 자체는 그 사람..

김만배 응응. 욕이는, 욕이 통하지는 안해.

정영학 휘둘릴 겁니다. 예.

김만배 난 만약에 통하면 너를 통해서 가져가지, 욕이를 통하지는 않아.

정영학 하하. 저를 통해서 가져가면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뭐 나중에..

김만배 그리고 이거는 너랑 나랑 얘기인데, 그럼 나중에 형이 약속했던 사람들은 어차피 잘라서 쥐야 될 거 아냐. 깎아서. 그거는.

정영학 깎아서 주는 부분, 형님 회사에, 이 부분은 각자 회사로 가져가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안 주셔도 되고, 주셔도 되고.

김만배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지금부터 전화가 오니까.

정영학 그거는 형님이 준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본인 리스크에 빠지는 겁니다.

김만배 음, 그래 그래.

정영학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절대 옥이한테 의장님 만난 이야기도 안합니다.
왜냐면 애가 그걸 노리고 나중에 언제 협박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아예 의장님 만난 이야기 자체도 안합니다.

김만배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갈 돈을 어떻게 받아? 니네들한테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냐.

정영학 제가 그 비용부분 만큼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 회사에 그냥 회사에 세금 계산서 끊고 회사에 그냥 파킹해놓고 쓸.. 이렇게 하십시오. 이 정도 책정해놓고 쓰든 안 쓰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아는 체 하지 마라, 이렇게 만 하시면 되죠.

↳ 강하구시역원.

김만배 아. 한구형은 누가 전달해야 되나?

정영학 아마 제 생각에 저희도 종종이나 이런 거에서 만들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형님이 맡으셔야.. 비자금은 나중에 받는, 받는 것.. 비자금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나갈 돈이 그런 용도가 한 100억이라고 하면요, 가져가는 비율대로 소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만배 아.. 한구형 부분도 그러면 내가 해줘야 된다?



강하구시역원.

정영학 가져가시든. 저희가 얹어는 드리겠습니다만,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거는 아예 이야기를 안하.. 그걸 주셨단 이야기 자체도 하실 필요도 없고. 그건.

김만배 나중에 잘못되면 그냥 다 내가 떼먹었다고 해야지.

정영학 아 그럼요. 그래야지 말이 되는거죠.

김만배 그렇지.

정영학 전달을 확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뭐.. 배달사고가 안 났다라는 걸 증명하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김만배 음음음.

정영학 예예. 그래서 그런 것 자체는 좀 그냥 뭐..

김만배 ^{→ 강한다} 그래 그러면 한구형 부분도 (형) 선에서 처리하는 절로.

정영학 ^{→ 김만배} 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뭐 그.. 그렇게 가져가실 거에서 한 뭐 10억 20억 가져가셔서 거기서 정리를 하셔야죠 그냥. 주든 안 주든 알아서 하겠다. 그다음에, 나중에 말.. 대신 그쪽에서 문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책임 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받아서 못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거는 안 나와요.

김만배 응, 응.

정영학 그러면은 뭐 10억을 받아가서 1억으로 정리를 하시든, 10억을 받아가서 100억으로 정리하시든 그건 그냥 알아서 할 일이고. 10억 받아서 정리 안하셔도 됩니다. 대신 일단 처리가 잘 되면.

김만배 정리를 해야지.

정영학 네. 그거는 그렇게 해야.. 안 그러면 언제 저기서 찌를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만배 그럼.

→ 남쪽, 정재형

정영학 저는 안 찌를 겁니다. 그런데 저쪽은 전 안 믿습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그거 갖고 흔들면서 돈 내놓으라 하면 답답할 겁니다. 욕이가 싸우겠다 라고 하는 거가 그런 거거든요. 돈 받아놓고 싸워서 뺏어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싸우는 거가 뭐로 싸우겠습니까. 협박하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죠. 이런 것 책 안 잡히고 해야 됩니다. 단 하나도 잡힐 거 없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했을 때 단 하나도 잡힐 게 없습니다.

김만배 그러면 무슨 용역비로 할까? 가운데 연결해준 용역비로 해야 되겠네. 그렇지?

(58:07~1:03:00)

김만배 성준이한테 그러면 욕이가 얘기한 근거는 영학이가 추측하는 그거네. 로비자금.

정영학 예.. 욕이가 하는 거요? 저는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

김만배 만배형이 죽지.

정영학 형님요? 그러면 욕이는 더 죽습니다.

김만배 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갈 때 누구 준다고 구체화시키고 가져가면 안 되겠어.

정영학 그런 말씀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집에 생활비 떨어졌으니..
여태까지 단 한번도 저는 쓴다고 이야기 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고 말
죠 그냥. 왜냐면 그 자체가 좋은 거 같지만요, 나중에 본인 무덤이거든
요.

김만배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정영학 그걸 가지고 평가사를 제거를 그걸로 하더라고요. 욕이가. 평가사 제거
를. 신영수 갖고 흔들면서 나가라 한 거 아닙니까.

김만배 음~~

정영학 바보죠.

김만배 그렇지.

정영학 아니, 그 평가사가 바보죠 진짜.

김만배 그렇지.

정영학 예, 예. 좋을 때는 고생했다 하지만, 안 좋을 때는 그냥 뭐 너 언제 이거
고 언제 이거고 언제 이거고.

지 평가사가 어디 은행 갖다 준다고 돈 받아가서 하고 그거를 송금을 한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할라고. 지 돈으로 해버렸으면.. 지 돈 몇억만 썼으면,
지 돈 한 4,5억만 썼으면 안 쫓겨났을 거거든요. 쫓아낼 명분이 없습니다
쫓아내도 안 나가고 버티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애는 지가 감방 가기
싫으니까 홀라당 하고 나간 거죠.

김만배 음.. 저 황평 사장을 또 이용하는구만. 그냥 팽 시키겠구만.

정영학 예.. 그다음에, 옥이는 그거는 안할 겁니다.

김만배 어떤 거?

정영학 옥이는 앞으로 그 짓거리는 안할 거예요.

김만배 어떤 짓거리?

정영학 방금 그거는. 왜냐면,

김만배 아, 내치는 거?

정영학 아니, 그 돈 갖고 협박하는 거는. 왜냐면 지가 제일 먼저 죽게 생겼습니
다. 누구한테. 장부 관리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김만배 아.. 그렇지.

정영학 예. 옥이꺼는 이만큼 쌓아놨습니다. 옥이 죽일 수 있는 자료들을.

김만배 하하하하. 그래.

정영학 절대 형님 공격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해야 합니다. 다.

김만배 그래. 나는 염려하는 게 서로..

정영학 서로 절대 안도록 계속 할 겁니다. 왜냐면 한 사람 먼저.. 예예.

김만배 박수치고 그냥 딱 끝내서 니네들 외국 나가서 살고, 그게 좋아.

정영학 예예예. 그렇게..

김만배 옥이는 나갈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달들한테 많은 약속을 해서 그

↓
수원관 홍희강 (크리스탄)

래. 너무.

정영학 예..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만배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다른 쪽으로 불뚱이 안 튀겠습니까?

김만배 아니 그건 안 튀어. 우리가 뭐 아니? 뭘 아니.

홍광식이 부분이야 형이 철거를 해줘서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그거야 뭐 문제 안 되는 거니까.

정영학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그런데 거기 쫓아다니던 이강길에 붙었던 애 하나 있어. 누구냐면, 광주 애인데, 개한테 홍광식 통해서 뭐 얼마 해준다고 그러고, 또 홍광식 회장 뭐 해준다고 그러고. 또 뭐 조창로 회장 뭐 해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다 해결할 수가 없을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가야지. 외국에. 그게 가장 좋을거야.

정영학 예..

김만배 응.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예예.

김만배 아니, 절대로 우리 쪽에 불뚱은 안 튈거야. 왜냐면 개네들은 우리를 모르고, 또 알아도 상관없는 거고. 형이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정영학 네, 잘 알겠습니다. 예예.

김만배 응. 하여튼간 일을 깨끗이 정리해서 손 털자고. 그게 가장 좋아. (끝)

○ 통화일시 : 2013. 3. 14. 오전 12:29 (3분10초)

○ 통 화 자 : 정영학, 김만배

(2:30~3:10)

김 만 배 그래. 그렇게 해서 니네 셋이 나중에 서로 내가 너한테 사인을 줄 때 도장을 니네들 셋이 찍어. 니네끼리.

정 영 학 제가 데려가서 공증을 저희들끼리 하든지 하겠습니까.

김 만 배 해.

정 영 학 예. 한 다음에..

김 만 배 하하하하. 지금 굳이 할 필요 없고. 나중에. 응?

정 영 학 예, 예. 제가 신호를 공증을 했습니다. 계약서 썼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만 배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최윤길 의장 전화 온다. 내가 전화 금방 줄게.

정 영 학 네네네.

김 만 배 음. 음.

정 영 학 예. 수고하십시오. 예.

김 만 배 음. 음. 음. (끝)

- 통화일시 : 2013. 3. 18. 오후 11:16 (7분55초)
- 통화자 : 정영학, 김만배

김만배 받아온 것 같던데.

정영학 예?

김만배 니네들한테 받아온 것 같던데.

정영학 아, 그때?

김만배 어 어.

정영학 으음~~ 으음~~ 그거 거기까지..

김만배 그게 우형이 바로 직전일 거야.

정영학 예예예. 음..

김만배 그 김영한이라는 애 있잖아. 이강길이가. 개네들이 고소한 그 국회의원. 이강길이. LH공사 그거 풀어준다고 그 건.

정영학 네네. 옥이. 예예.

김만배 음.

정영학 그런데 그걸 옥이가 받아서 돈을 줍니까?

김만배 아니 그거를 누구한테 뭐야..

정영학 그거 옥이가 쓰면 안되죠.

김 만 배 그거를 옥이랑 저기가 쓴 것 같은데. 성준이가.

정 영 학 아..

김 만 배 응. 나 필요없다 그랬잖아. 나는. 나한테 가져오지마 그랬어.
내가 10원, 그래서 10원 한푼 안 썼어.

정 영 학 그걸 그럼 배?

김 만 배 응?

정 영 학 배? 배쪽?

김 만 배 배하고 저기가 썼잖아. 옥이랑.

정 영 학 네,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뭐 3천만원 받아서 옥이랑 나눠썼다니까.
뭐 그게 3천만원인지 더 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정 영 학 네,네.

김 만 배 응. 그렇게 된 건데.

정 영 학 지 사건 갖고 지가 돈 받아 씁니다.

김 만 배 그렇지.

정 영 학 하하하. 야아~ 대단하다. 이거는 재창이한테 알려주면 폭발합니다.

김 만 배 알려주지 마, 그거. 왜? 그거 재창이한테 나갔구나? 그 돈. 응.

정영학 예예예.

김만배 나는 니네들 싸움시킬 생각은 없는데, 진짜로 없어. 싸움시킬 생각.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근데 뭐냐면, 명확히 달이 잘 끝났으면 좋겠어.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싸우지 않고 딱. 왜냐면 싸우면 그때서는 내가 욱이 혼낼 거야.

정영학 네,네, 안 싸우겠습니다.

김만배 응. 그리고 싸우지 마. 왜냐면,

정영학 충분합니다. 예.

김만배 응,응. 나는 김우희 건으로 욱이 날랐을 때 그때 알아봤다. 그리고 애는 도시개발공사가 통과된다고 믿지를 않았어. 욱이랑 재창이
는. 믿지 않았던 애들이야. 왜냐면 도시개발공사는 너랑 나랑만 믿었어.
통과되는 걸.

남욱

정영학 전무님도 혹시 믿고 계셨더라구요.

김만배 전무님은 나를 아니까.

정영학 그러신 것 같아요.

김만배 응. 나는 허언을 안해. 어떤 일을.

정영학 네네네. 공사현장

김만배 그러니까 통과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정영학 아, 예예예.

김만배 응, 응. 그러니까.

정영학 네네네. 하여튼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싸우도록 정말 잘 하겠습니다.

김만배 응. 그래. 형한테는 돈 안 왔어, 영학아.

정영학 하하하.

김만배 니네들이 그걸 오해하면 안돼.

정영학 저하고 재창이 인제는 충분히 잘 압니다.

김만배 응, 응. 왜냐면,

정영학 아니 지난번에 재창이도 저기까지도 건네줬어요. 배한테.

김만배 뭐?

정영학 휴가비도.

김만배 아. 그래?

정영학 그런데 그것도 옥이가 중간에 닦아 써버렸죠.

김만배 언제쯤, 언제쯤 한 건데?

정영학 여름에. 여름에. 여름에.

김만배 아. 그런 거야?

정영학 골 때립니다. 하여튼 참.

김만배 아주 이새끼 웃기는 새끼구만 이거.

정영학 예. 말도 못합니다. 돈 문제는.

김만배 응. 양아치 같은 새끼야. 저거 내가 보니까.

정영학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벌려놨죠, 사이를. 짹 벌려놨죠.
여하튼 뭐. 아니 이것저것 그래도 다 떠나서 잘..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잘
끝고 가겠습니다.

김만배 나는 욕이 전혀 편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냐면, 나는 김우희가 어마어
마한 잘못을 한 줄 알았어. 맨날 김우희 혼낸다고 하길래.

정영학 거기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돈 빌려준 죄밖에 없습니다.

김만배 아니 아니 그래서. 그런데 뭐 나가 있는 사이에 들어보니까 잘못은 없고
그냥 돈 빌려준 거..

정영학 정말 없습니다. 돈 빌려주고. 돈 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 하기로
했는 거.

김만배 46억은 그건 언제 빌려온 거야?

정영학 그건 한참 됐습니다.

김만배 아.. 같은 건은 아니고?

정영학 네네네. 보십시오. 그런데 돈 빌려주고 그냥 땅 담보로 잡았을 뿐이고, 뭐 그거 외에는 솔직히.. 그다음에 이자 8%짜리 이자를 받아갔구요. 그다음에 이자 선불을 떼었고. 그 정도 돈이면 초기단계에는 멀티플 이렇게 초기에 자금 투자하는 건 다 뺏어가는 자금들이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김만배 그럼.

정영학 그 정도는 정말 클리어하고 깨끗한..

김만배 그게 아파트 그때 하는 거야, 아니면 그 전에 빌려준 거야?

정영학 한참 전입니다.

김만배 아파트 하기 한참 전에 20 몇억을 빌려준 거야?

정영학 25억은 작년꺼구요. 그 이전에 하는 거는 저때부터 했습니다. 초기 조금 이후부터. *↳ 2012년*

김만배 아. 46억은?

정영학 예. 여기 땅에 관심이 많았죠.

김만배 그러면 25억은 도시형아파트 빛 할 때 그때인 거야?

정영학 예. 그때 했습니다. 요거 쓰고 이제 더 이상 못 준다 해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뽑아 해준 겁니다.

김만배 그러면 뭐 그 여자는 그냥 고마운 여자네.

정영학 고맙죠. 진짜로.

김 만 배 성준이도 그 여자 근데 욕하던데. 안 좋은 여자라고.

정 영 학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해준 게 정말 돈 주고 욕먹는 거
 죠 이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네 사람이 아니고 제 사람이니까 욕을 하는 거죠.

김 만 배 아. 김우희가?

정 영 학 예. 욕심낸 것도 없고, 솔직히 그냥 객관적으로. 재창이는 되게 고마워해
 요. 재창이 객관적이잖아요.

김 만 배 그렇지.

정 영 학 거기는 되게 고마워하고. 되게 고마워하고, 대신 남들은 다 욕하고.
 옛날에 아니 사실 뭐 중간에 최대표도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욕이하고
 황평 사장하고.

김 만 배 그렇지.

정 영 학 지네가 데려온 사람이 아니니까. 지네 패밀리가 아니니까.

김 만 배 음음.

정 영 학 아, 도착하셨나 봅시다.

김 만 배 어. 이제 다 도착했고,

정 영 학 네네네.

김 만 배 저기, 그래 그래 영학아. 하여튼간 우리는 그 무슨 카페베네 약속 어기지
 말자.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응응응.

정영학 네. 수고하십시오.

김만배 그래 그래. 응~

정영학 네, 감사합니다

김만배 응~ (끝)

0 녹음일시 : 2013. 3.20. 오후 9:52 (7:42)

0 통화자 : 정영학, 남옥

남 옥 한 2주만 되겠냐 이러던데. → 유동규가 남옥에게 돈을 요구하여
2주간을 지칭함

정영학 예? 예?

남 옥 '2주면 되겠냐?'

정영학 2주? 지금부터?

남 옥 예

정영학 헐~

남 옥 일단 제가 일단 오케이 했습니다 형님. 지금 술 먹으러 와서.

) 정영학 시간을 벌어야지. 시간을 조금만.

) 남 옥 일단은 하여튼 형, 이거는 아직 재창이형하고 상의하지 마시고요

정영학 아 그건 보지는 않았지만, 좀 그런거 같고.

남 옥 예, 예. 일단 한 얘기가 있어요. 골프장 얘기 등 등 등. 백현유원지 얘기
참여할 수 있게 해줄게. 그 얘기를 한참하고 술 먹으러 왔는데, 내일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형, 이거는 진짜로

정영학 응, 오케이 오케이. 얘기를 안해요. 사고죠. 요건 이야기 안하면 사고인
것 같고

남 옥 예, 그래서 이 얘기 하고나서 의장님 그 부분 얘기한 거니까, 의장님을 혼

들려고 한건 아니고요, 의장님 역할을 드리자.

정영학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남옥 예. 그러니까 혹시 물어보셔도 뭐 얘기..

정영학 의장님한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처음에 너양스는 그냥 의장님 일부분은 조금..

의장님 조금 물려서주실-

남옥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셔야 될 것.. 의장님께서 역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갑갑해 하네요 일적인 부분은. 요 정도-

정영학 아 그 정도만 해드리면?

남옥 예

정영학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그러면 제가 의장님한테 징징대면은..

정영학 본인이 풀어주는 걸로

남옥 예.

정영학 그게 유 본부장의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그냥?

남옥 유본부장 아이디어입니다. 제 생각은 아닙니다.

정영학 아. 처음에 제가 그걸 잘못 들었어요

남옥 예, 예, 예

- 정영학 처음에 제가 잘못, 뭐라고 잘못 들었나하면, 일적인 부분은 의장님 조금 좀 빠져주세요, 움직이게 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 남욱 아니요 아니요, 의장님이 본인을 조아서 의장님이 만드는 걸 모양 선에서, 의장님을 좀 잡고 해드리자, 취지가 그거예요 취지가.
- 정영학 아, 그렇게?
- 남욱 그래야 의장님이 신이 나서 자꾸 다 도와주시고, 너하고 나하고 같다고 알면 또.. 같아 그게.
- 정영학 (하하하) 아까 알고 계세요
- 남욱 아니, 얘기는 드렸어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적인 부분은 조금 딱딱하네요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렸어요
- 정영학 아..아.. 오케이 오케이. 일적인 부분이 좀 딱딱하다고 말씀을 드려놔야, 본인이 의장님을 통해서 조금씩 푸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편하다.. 오케이 이해 했습니다.
- 남욱 예, 예
- 정영학 오케이,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아유, 그거 세네.
- 남욱 나머지 부분은.. 예. 아니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일. 제가 내일 오전에 재판이니까, 끝나고 사무실 가서 상의 좀 드릴게요.
-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예.
- 남욱 그런데 충분히 뭐.. 저도 좀 놀랐어요. 얼마나 그, 세장을 얘기해서,

↓
3억원

정영학 '유' 가?

남 옥 예.

정영학 직접? 들이?

남 옥 직접. 예.

정영학 이야, 대단하다

남 옥 그런데 세(..) 돼

정영학 예?

남 옥 세요.

정영학 사고인데,

남 옥 그 대신 술 먹으러 가자. 술은 니가 사라 딱 이ردة요

정영학 예.

남 옥 그래서 (..)에 왔습시다 지금

정영학 예, 예. 저기 다 해주겠다고 합니까. 하여튼 뭐 우리 원하는 원하는대로 다 해주겠다?

남 옥 그거 구획계도 니네 마음대로 그리고 다 해라 원하는대로. 땅 못사는 것 있으면 나한테 던져라 내가 해결해줄 테니까.

정영학 그거 해결 다, 해결 가능해요 공사는.

남 옥 예? 예, 예, 다 해줄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정 영 학 공사는 원 없이 가능해요. 저는 저는 오케이를 하는데

남 옥 그것보다, 야 대장동 하고 말 것 아니지 않느냐.

정 영 학 대장동 하고 말아야죠.

남 옥 다른거 일단 리스크 없는 것들 자기들 일하는데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줄게.

정 영 학 예, 예. 그건 잘못하면 리스크가 있는데

남 옥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면 시공사 묶어줄게. 내가 옆에 흔들어서 배팅하게 해줄게. 그것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 만나본 사람들 많이 있고,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여튼 다 짚어요 지금.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컨트롤 할려면 총알이 좀 필요한데 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취지는 그거예요. 남 옥

유동규 ← 나도 커야 될거 아니냐 너를 도와줄려면. 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형이 부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유동규 본방장

정 영 학 그걸 그런데 어디서 만들어요?

남 옥 예?

정 영 학 어디서?

남 옥 휴~ 내일 좀 상의해 보시죠. 일단

정 영 학 오케이, 오케이.. 저는 시간은 있을 것 같긴 한데

남 옥 예, 충분히 뭐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먼저 얘기했는데,

정영학 좀 받기만 한다면.

남옥 받기만 한다면 무조건 땡큐인데, 본인이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스타 일도 아니고, 형님 보시다시피. 이게 차라리 지금 차기가 배팅할 데가 있는데 돈 구할려면 줄 서는 사람 많은데, 나는 그렇게 해서 죽고 싶지는 않다.

유동규

정영학 우리는 믿는 거죠? 인제

남옥 예. 너는, 너는 너네는, 너는 믿는다야. 너네는.. 솔직히 너는 믿는다 의장님도 알아서는 안되고

삼우

정영학 예

남옥 그래서 제가 좀 생각, 뭐 좀 생각해 놓은게 있긴 한데.

정영학 네네, 급 뉴스 그냥 뭐

남옥 네, 예 예. 저는 금융적으로는 일단 받아들였는데

정영학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남옥 예, 하여튼 내일 좀 낮에 갈테니까 형님, 하여튼 그때까지는 형님만.

정영학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남옥 오늘은 술 좀 먹겠습니다 형님

정영학 저기, 재창이 좀 전화 좀 해주죠. 섭섭해 해요.

남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정영학 섭섭해 해. 재도 챙겨야죠.

남옥 예, 예, 형님 알겠습니다

정영학 그래요 땡큐

남옥 예, 예, 예

정영학 오늘 아니, 같이 가고 싶었는데요 뭐라고 좀 핑계를 좀 대줘야 돼요.

남옥 음..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들이만 보자고 한 것 같더라고요.

정영학 아 그러니까 오케이. 이해를 했어요. 그냥 급하게 와서 그냥 어쩔수 없이 아침 인사 정도만. 다음번에 같이 가십시오 정도만 이야기 해주세요.

남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학 그게 편해요. 오케이.

남옥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학 네네네. 수고하세요

남옥 예, 형님

정영학 하여튼.. 아니 남 대표가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성남시 일은.

남옥 예, 예 그렇죠.

↓
인허가.

정영학 잘 했네 나는

남 옥 예. 오늘 여기 오늘 쇼부는 다 났습니다 형님

정영학 오케이 그래요.

남 옥 알겠습니다 형님

정영학 하여튼 큰일 하셨습니다

남 옥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영학 아니, 진짜로. 예. 네네네. 네, 파이팅~ 파이팅~

남 옥 네. 형님 끊을게요.

정영학 진짜 큰일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남 옥 예, 전화 올리겠습니다 형님

정영학 의장님 신경 많이 썼어요. 어제 밤에도 신경 쓰셨고

남 옥 그러니까요. 오늘 낮에도 불러서 잠시.

정영학 오늘 낮에도 물러서 했고, 어제 밤에도 이야기를 했고 빨리 현장 좀 챙겨라
현장이 한달내내 뭐하냐,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제일 좋은 방법이 빨리 옥이랑 협상을 빨리 시작을 하는게 좋습니다 이게 가장-

남 옥 그런..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전화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사 검사 했는데, 많이 떠도 보고 재도 보고 했다, 같이 하자~ 너마다.

정영학 오케이 오케이. 요번에 힘 있잖아요

남 옥

예. 나 도와주고 내 자리 지켜줘라 그러면 의리 안, 의리 지키고 너 끝까지 책임질게 내가. 취지는 그겁니다

정영학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파이팅

남 옥

예, 형님, 알겠습니다 전화 올리겠습니다

정영학

세 개.

남 옥

예. (하하하)

정영학

세다. 2주 이내에

남 옥

예.

정영학

우-- 뭐, 방법 찾아보시자고요

남 옥

예, 형님, 알겠습니다.

정영학

네네네네 네. 들어가십시오

남 옥

예, 형님. 예 형님

정영학

예. (끝)

0 녹음일시 : 2013. 3.21. 오전 11:37 (9:29 003)

0 통화자 : 정영학, 남옥

(00:00~5:40)

남 옥 속으로, 제가 속으로는 생각했는데, 멈칫도 안하고 그냥 받았었거든요 딱 던지길래.

정영학 그냥?

남 옥 예.

정영학 아. 보자 마자-

유동규가

남 옥 그 대신 얼마면 되겠냐- 얼마면 되겠냐. 얼마 얼마 시간을 주면 되겠냐.
열흘이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숨도 안쉬고, 2주만 주십시오 그래버렸거든
요 일단은.

정영학 (하하하) 그러면 그 대책은요, 만약에 저기서 안되면, 다른 대책은?

남 옥 일단은 저는 이게 일단 뭐 일부 쪼개서 2주일 후부터 쪼개서 좀 가면서 시
간을 벌어야 겠다고 생각을 했고,

정영학 네네

남 옥 그 쪼개는 방법의 이도 저도 안되면 인제 장인어른 한번 만나야죠.
그런 대책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해요

정영학 오늘-

남 옥 그러면 일단.. 예

정영학 오늘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번주나 다음주,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 저기 잘 적극적으로 하여튼 뭐 거의 뭐 어느정도 입장 표명 않겠느냐 명확한 스케줄하고 그 정도 생각이예요.

남욱 예. 그런데 하여튼 자기가 한번 녹음을 해다가 들려드려야 돼. 왜냐하면 오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약간 놀랐어요.

정영학 저도 그러네요.

남욱 예.

정영학 원래는 그게 그, 원래 그게 정상 아닙니다 (하하) 우리 좀, 죄송한 이야기긴 하지만,

남욱 그렇죠.

정영학 우리 입장에서야 최고의 코를 끼고 가는 거는

남욱 그렇죠. 그런데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저번에 실수한 거 맞다, 나한테 실수했다. 내가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내가 강한구 위원장 얘기.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너 그게 실수한거다, 끝까지 나한테 얘기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 때문에 너 저기한테 욕먹었지. 만배형한테.
내가 좀 풍기니까 만배형 얼굴 빨개져갖고 길길이 뛰더라.
형님 그런데 내가 서운했던 거는, 그러면 나한테 전화를 해서, 형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야 너도 정말 대단한 새끼더라
그 연락 안받아버리고 딱 그냥 엉덩이 깔고 앉아버리는.. 나 솔직히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놀랐다 너. 형님 그런게 아니라요, 이러 이러해서 이랬 습니다,
그런데 돈 주겠다고 줄 서는 놈 많은데 그런 돈 필요 없다, 나 개인적으로

돈 쓸일 없고, 그런데 자기가 대책을 좀 해야겠는데, 용도가.. 용도를 얘기하더라고요

너한테 대장동 그 딜 할려면 그렇게 얘기 하겠냐 몇 백억 달라 하지. 그런거 아니고, 너 사업해서 돈 벌어. 돈 벌면 나중에 형한테 생까지 말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는 정말 생까지 말고

정영학

그럼요

유동기 본방수용

남욱

내가 크는데 내가 배팅을 좀 해야 될 데들이 있다. 내가 여기서 자리 가지고 크는데, 그걸 좀 도와줘라. 잡자. 이 형 동생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형 입장에서 그걸 좀 도와줬으면.

정영학

필요하다?

남욱

예.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놈들 돈은 댔고 사고 나니까.

정영학

사고 만나면 흔들어 봤자야

남욱

예. 이거는 2층도 알아서도 안되고, 그다음에 너 말고는, 니 부인도 알아서도 안되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둘만 평생 갖고 가.

남욱

정영학

맞죠. 예, 예

남욱 + 유동기

남욱

그 정도 신뢰는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여태 지켜봤고, 그래서 형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인제 그런 사업적인 얘기를 쪽 하고 대장동 관련 얘기를 하면서 차 타고 올라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시장님이 그런데, 형 그런데 시장님이 진짜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즐라 싫어하지 니네.

정영학

(하하하)

남욱

그래서 근데 형, 팬찮으시겠어요? 이상길이서부터 내용을 다 알고 뭐 해대

주변에,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야, 형이 그게 리스크면 얘기를 하지. 형이 정리할 수 있는 일이고, 정리가 된다고 판단되니까 너한테 얘기 안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형이 다 알아서 할게.

정영학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

남욱 그런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정영학 오케이

→ 원하는 것

남욱 원안을 다 얘기해. 다 해줄테니까. 다 얘기하고. 그 대신 공식적으로는 너를 쪼을거야 내가.

정영학 아, 오케이.

남욱 그래서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주민들만 잘 다독겨려놔. 주민들한테도 너를 몰아내자고 내가 부축일거야. 부축일거고, 그게 새누리당 쪽에 넘어가게 할거야 그런 내용들이. 그때 주민들이 애 아니면 안된다, 애랑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니네랑 손잡고 가는 모양새를 내가 만들거야. 그래야 새누리당에서 공격을 안하고 의장님도 안다치셔. 그러니까 서로 짜고 그렇게 만들자.

정영학 아, 오케이 오케이. 생각 많이 했네요.

남욱 무등계가 예. 고민을 많이 하고 나왔더라고요 어저께.

정영학 예

남욱 바로 잡아놨으니까, 그러면서 전환기 하나 만들어 봐라.

정영학 오케이 오케이.

남 옥 전화기 하나 만들어 와 저걸로. 나하고 둘이만 비밀통화하게. 두 개 만들어와서.

정 영 학 일단 그러면 결합은 확실히 안하는 거네요?

남 옥 그건 백현동이랑 해서

정 영 학 오케이 오케이. 아.. (끝)

○ 통화일자 : 2013. 4. 1. 오후6:57 (5분43초)

○ 통화자 : 남욱, 유동규()

남 욱 예, 형님.

유 동 규 어. 뭐 저기 저기 그 뭐야 그, 뭐야 저기, 강한구 위원장한테 가갖고 이야기 좀 했다면서?

남 욱 예예예.

유 동 규 어. 니가 보낸 거야?

남 욱 강한구 위원장요?

유 동 규 응.

남 욱 아니요. 그 뭐, 저한테 상의하셨고, 지주들 얘기하셔서.

유 동 규 어.

남 욱 예예. 가신 거고. 그.. 아니 형님, 그.. 안 그래도 제가 전화 드릴라고 그랬었는데.

유 동 규 응.

남 욱 그 의장님이 계속 5월달에 하자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유 동 규 아 그렇고, 안 그래도 나도 전화 받았어.

남 욱 예예.

유 동 규 그래갖고 돌이 했는데, 5월달에 하자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남 옥 예, 5월 8일날 하자고, 처리하자고 계속. 그날 그 금요일날인가 목요일날..

유 동 규 나는 좀 꺾꺾한 게, 이번에 그 저기 누구야, 권낙용 의원을 완전히 좀 한번 액팅을 하게 만들려고 그랬던 거거든.

남 옥 예예예

유 동 규 응.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쪽이 유리하지.
왜냐면 권낙용 의원이 일단 경고 받았는데, 여기서 대장동 갖고 한번 더 액팅이 딱 나오면, 그건 좀 확실해지잖아.

남 옥 예예예.

유 동 규 그럼 앞으로 좀 홍보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 옥 복안이 전혀 걱정을 안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은.

유 동 규 그래?

남 옥 예. 전혀 걱정을 안하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통과시키는 건 이제 일 아니니까.

유 동 규 그러니까.

남 옥 예예.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만 이제 형님이 좀 세게 미시니까. 저는 계속 아유 멀었습니다 계속 이
러고 있으니까, 뭔가 이번주에 셋이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냥 모른 척 하고, 자리 한번 만들어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니다, 이렇게만 그날 금요일날인가. 오렌지에서 밤에 모이신 날 오후에 제가 뵈거든요.

유 동 규 아..

남 옥 예예. 오후에 뵈는데. 그렇게만 얘기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그러니까 이번주에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제가 좀 같이 뵈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났거든요. 형님께서 좀 세계 막 아 좀 뭐 조금 어렵게 얘기하시고, 저도 계속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 동 규 아니 아니 아니야.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가도 괜히 이상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남 옥 예, 예.

유 동 규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왜냐면,

남 옥 예. 그리고 또 상의드릴 게 뭐냐면, 이게 그때 말씀하셨던 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이게 덩치가 있으니까 이 뭐야 저기, 출처 없이 만드는데 약간 애로가 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급하시면 얼마나 급하신 거예요 형님? 이게 깔끔하게 처리를 할려니까 돌리다 보니까.

유 동 규 어.

남 옥 그런데 형님 좀 급하시..

유 동 규 나눠 그러면.

남 옥 아, 나눠서 좀 할까요?

유동규 어.

남 옥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유동규 어.

남 옥 예, 예.

→ 2013. 4. 2.

유동규 일단 내일, 내일은 일부 좀 해봐.

남 옥 내일이요?

유동규 응.

남 옥 내일.. 아.. 내일.. 내일 필요하신 건가요? 일단 준비를 어느 정도 그럼 내일..

유동규 스케줄을 좀 맞춰놨다고 내가. 딴 데 얘기해가지고. 응?

남 옥 예예.

유동규 그러니까 일단 내일.. 음.. 니가 어느 정도 되는데?

남 옥 한 뒤.. 뿌리긴 뿌려놨는데, 현금 만들기가 좀 시간이.. 출처 없이 흔들려면 꽤 걸리죠 형님. 왜냐면 세금처리 해야 되는 것들은 세금처리해서 인건비로 떼고 막 몰라야 돼.

유동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남 옥 예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유동규 응. 니도 절대 안하는구나.

남 옥 예예.

유 동 규 응. 니가 아니 그렇게 뭐야 그쪽으로 돼 있는 게 있는 줄 알았지.

강화주시의원

남 옥 아. 아니 뭐 당장 그럴 일이 별로 없어서, 저번에 강 의원님 그거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만들다 보니까.

유 동 규 통화로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말고.

남 옥 예, 예.

유 동 규 어쨌든 내일.. 응?

남 옥 예, 예.

1억5천만원

유 동 규, 내일은.. 내일은 한 개 받은 되냐?

나제3 4.2

남 옥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현금 못 만들었는데.

유 동 규 얘기를 해봐.

남 옥 아니요. 지금 만든 게 한, 뭐 한 0.7 0.7천 몇백만원 지금 만들었는데.

유 동 규 응.

남 옥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유 동 규 0.7?

남 옥 예.

유 동 규, 0.7 0.7 그러면은 일단 그것만 응? 내일 좀 와,

남 옥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유 동 규 그럼 내일, 내일 저녁에 말이야.. 음.. 내일 저녁에 같이 강남으로 넘어
가자.

남 옥 아, 그러시겠습니까 형님?

유 동 규 응. 그게 낫겠다. 그지?

남 옥 예예, 형님. 알겠습니다.

유 동 규 내가 그러면 그때 그리로 내차 타고 한 7시에 갈 테니까. 아니 8시. 9시.
8시. 8시에 갈 테니까 거기서 보자.

남 옥 아, 그때 거기서요? **↳ 강남을사릉**

유 동 규 응. 8시쯤에.

남 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유 동 규 그래 그래.

남 옥 예, 형님. 예예. (끝)

0 녹음일시 : 2013. 4. 2. 오전 10:48 (1:6)

0 통화자 : 정영학, 남옥

남 옥 형은 전화 안받으세요

정영학 아.

남 옥 문자는 남겨놨는데, 2시반까지 영학이형 사무실에서 배요 이려고,

정영학 2시반까지?

남 옥 예

정영학 아니 일단 다 만들었대요? 재창이는 어제

남 옥 저는, 저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 반까지는요

정영학 (웃음) 1시 반까지?

남 옥 예

정영학 제가 얼른 전화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 2시반, 4시까지 못 만들수도 있겠는데

남 옥 어, 4시까지 오라했는데

정영학 큰일났네 아.

남 옥 급한가 봐요 와서 얘기하자 그러면서, 한 5시쯤 갈까요 그랬더니, 한 4시까지 안되겠냐? 4시까지 좀 와라 그러시데.

정영학 아.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남옥 일단 예 예

정영학 저기도 그럼 빨리 연락을 해 봐야 되겠네요. 저기도 빨리 불러야 돼요. 늦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남옥 예, 일단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형님

정영학 네네. 몇 시? 3시?

남옥 뭐, 3시. 2시반까지. 2시반에서 3시 사이에 가겠습니다 형님

정영학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남옥 네. 형님

정영학 네네. 수고하십시오 예.

남옥 예. (끝)

0 녹음일시 : 2013. 4. 4. 오후 11:24 (1:38)

0 통 화 자 : 정영학, 남옥

정 영 학 우리 반대 입장에 서시면 저희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남 옥 돈 1억6천 준거 받아 와야죠, 그죠? 형님

정 영 학 그거는 제가 모르니까요.

남 옥 네

정 영 학 그건 뭐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남 옥 제가 하죠 뭐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겠죠 그럼. 형 그럼, 돈 1억6천 토해
라 그래야 쟈네 그래야지 뭐.

정 영 학 (하하하)

남 옥 아니 그거 토해야죠 형. 장난해?

정 영 학 아유. 하여튼 뭐 지금 강호식 국장하고 이야기를 하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면 항근이를 빼야죠. 굳이 데리고 올 필요 있습니까, 확
그냥 질르기는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약간 또, 아 그게 아니고 또..

남 옥 (웃음) 직접 보시자고요 형님

정 영 학 네네네. 하여튼 내일 오전 정도에 저도 의장님한테 요 내용은 한번 이야기
를 하겠습니다

남 옥 에에에. 저도 한번 통화해볼게요

정영학 공시난거는, 예. 공시난 거는 사실 좀 짹짹하긴 해요 이 내용인거 같아서

남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님

정영학 네네네네. 하여튼 요 내용입니다 일단. 강호식 국장하고 최전무님이 오늘 만났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고 전해준다 했으니깐요 그때가서 연락을 한번 하든지 할게요 운동중이시네요

남욱 예, 예 알겠습니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네네네. 저기는 연락을 안받네요 재창이 아저씨는

남욱 아 그래요?

정영학 예

남욱 저는 그냥 선릉에서 유진이랑 스크린골프 치고 있습니다 (웃음)

정영학 (하하하) 잘 알겠습니다

남욱 예, 형님, 전화 주십시오

정영학 예, 수고하십시오

남욱 예. 형님

정영학 예. (끝)

- 녹음일시 : 2013. 4. 16. 오후 6:57 (23초) < 동영상 >
- 녹음장소 :
- 대 화 자 : 정영학, 정재창, 남욱

정 재 창 살아도 같이 살고, 돈독해야 된다고.

정 영 학 하하.

남 욱 이런 거 막 이런 거 올려서 식겁했어.

정 영 학 누구 거예요?

남 욱 누구겠어요?

정 재 창 아니,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거 아니요.

정 영 학 사진 좀 보여주세요.

남 욱 하하하하-

정 재 창 이리 와. 세명 한번 단체사진 찍게.

정 영 학 아이, 아니라니까요. (끝)

○ 녹음일자 : 2013. 4. 16. 오후 8:15 (33분23초)

○ 녹음장소 :

○ 대 화 자 : 정영학, 정재창, 남욱

정 재 창 본인이 대표이사를 관둔다고 할거야. 막 나한테 그런 얘기했어.

정 영 학 왜요? 왜?

정 재 창 다 모가 나 있어.

정 영 학 예..

정 재 창 (...) 문제가 일상부터 얘기하는 거고,
틀어버려야지.

정 영 학 뭐를 틀어요?

정 재 창 뒤져버리게. 슬슬 다가와. 지금 목줄 잡으러.
다 내가 생각했어, 과거에. (...)

(똑-똑-)

남 욱 (...)

정 영 학 아 예-

정 재 창 응~ 난 됐어. 나는 정말 3천만원 내가 어저지로 어저지로 맞혔단.
형한테 욱 좃나게 먹고.

남 욱 하하하. 아유, 어떡하지. 나는 3천만원. 난 3천 30만원.. 어떡하지.
천만원만 추가해줘요.

정영학 나? (..)

정재창 (..)

남옥 고생하셨네.

정재창 (..) 될 것 같애.

정영학 (휴대폰 통화)

→ 2013. 4. 17

남옥 (..)에다가 내일 갖다 달라는데 아주. 하하하하~

정재창 그러면 알았어. 이미 이미 다 (..) 이미 봤어.
애는 어차피 거의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이지. (..)

남옥 뭐라고 (..)

정재창 그렇다면 건물 속에 있는.. 너의 상품을 모르는 거지.

남옥 호호호호~

정재창 (..) 했어.

남옥 (..) 했어?

정재창 남옥이 이 새끼가 말을 했을까 안했을까 (..) 나한테 답변도 안해줄 수도
없고. (..)

가끔 이렇게 즐기는 것도 좋아.

형! 내가 앉아있는 게 좇나게 재밌는 게 뭔지 아는가? 응?

유동규는 남옥이 이 새끼가 요거를 이 새끼가 부회장이라는데 돈을 돈 애
기를 했을까 안했을까 눈 좇나게 흔들리고, 만배형은 옆에서 뺨도 모르고
자기 뒤로 가져갈라고 삼식이 소리, 유동규한테 삼식이 소리 해쌓고.

(...)이예요? 예?

정영학 예.

정재창 만배형은 저기 판나라 달나라 얘기하고 있고, 유동규는 나하고 얘기하니
까 대답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하고. 돈 문제를 옥이가 얘기했
을까 안했을까 고민하는 눈빛.
그리고 맨날 나타난 놈이 또 나타나.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고
맨날 그러잖아 내가. 응? 불쑥 나타나고 불쑥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 저
새끼 뭘까.. 확인하는 눈치.
명판 위에다 돈 놓고 찍지. 하하하-

정영학 아니, (...) 무슨 명판을 찍어-

남옥 형 얼굴하고 같이 한번 찍자.

정재창 아무튼간 단체사진 한번 찍어. 단체사진.

정영학 무슨 단체사진..

정재창 이거는 서로 (...) 돈 놓고 단체사진 한번 딱 찍어야지.

정영학 진짜요?

정재창 (...) 않으세요, 여기. 어차피 씨벌 탄짓 못하게 다들. 이 사람 (...)
이리 와. 단체사진 찍어.

정영학 나 안 찍을래요. 난 안 죽을라요. 진짜로 찍네.

정재창 가만있어봐. 유동규 전달.

정영학 아, 그걸 왜 써요? 돈, 돈 이걸 왜 써요? 이거를?

남 옥 아니, 이렇게 할거야.

정 영 학 아니 이거는 그냥 없.. 아니 나중에 안되면 그냥..

정 재 창 (...) 백. 2013. 몇시여? 오늘이 며칠이여?

남 옥 4월 16일.

정 재 창 4월 16일. 몇시여? 몇시여?

남 옥 여기 봐. 찍으면.

정 재 창 6시 50분.

정 영 학 진짜 찍었어요?

정 재 창 응, 찍었잖아. 형 이리 와.

정 영 학 지워. 지워. 아 이걸 뭐할라고 해요? 지워. 지워.

남 옥 이게 좇나 웃긴 게 뭐 줄 알아, 형? 잘못 깔잖아. 잘못 깔면 그냥 자동으로 막 업로드 돼, 여기저기.

정 영 학 뭐 소리예요?

남 옥 정신없게 내가 그래갖고 저기 벗고 있는 거 한번 찍었다가 식접했어.

정 재 창 들어. 들어. 들어, 빨리. 들어. 앉어. 앉어. 이거 단체사진 다 찍어.

남 옥 이것만 찍어.

정재창 아니 이리와, 빨리.

남욱 저번에 나 찍었잖아.

정재창 같이 와. 어차피 씨벌 뒤지는 거 같이 뒤져야지.
저기서 몰래 찍는 거 봐.

정영학 아니야. 소리나요, 요새는.

정재창, 뒤져도 같이 뒤지고, 살아도 같이 살고.

남욱 (...) 이걸로.

정재창 아니, 눌러줘 봐. 나 누르는 거..

정영학 찍지 맙시다. 뭐할라고 찍어요~

정재창 아니, 이렇게 해봐.

남욱 이거 근데 이걸 그냥 돈만 찍어.

정재창 아니야.

남욱 난 안 찍을래. 하하하.

정재창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남욱 이거 나중에, 형 이거 나중에 잘못해서 핸드폰 분실되잖아. 좇되는 수가 있어.

정재창 알았어. 이리 와~

남 옥 난 안 찍어, 그렇게는. 돈만 찍어, 돈만. 돈만 찍으면 되지 뭘..

정 재 창 아니 서로 같이 뒤지게. 어차피 뒤져도 같이 뒤지게!

남 옥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리스크가 있다니까.

정 재 창 뭐 리스크가 있어? 뭐가 두렵냐?

남 옥 아니 형, 이 핸드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정 재 창 안 잊어먹어~ (..)

정 영 학 제가 찍어드릴게.

남 옥 리스크 있어, 형. 나 핸드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
압수수색하면 핸드폰부터 뺏는데.
이게 전부다 업로드가 되더라고. 구글 이런 데에.

정 재 창 그걸 하지 말아놔야지, 그걸 아직도 안해놨냐?

정 영 학 업로드요? 어떻게요?

남 옥 지가 알아서 업로드가 돼요. 그래갖고 한참 저기하는 찻느라고.
지워도 안 지워져, 이거. 이건.
아유 이거 씨, 벗고 있는 사진 장난 아니었어.
터치 이건 아니고. 이거 아니고.

정 재 창 왜 나한테 지금, 나한테 찍고 그러세요. 찍어-

정 영 학 안 찍어. 아니, 찍으면 소리가 나요. 왜 그래요? 진짜로,
찍으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정재창,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돈독해야 된다고.

정영학 하하.

남옥 이런 거 막 이런 거 올려서 식접했어.

정영학 누구 거예요?

남옥 누구겠어요?

정재창 아니,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거 아니요.

정영학 사진 좀 보여주세요.

남옥 하하하하~

정재창 이리 와. 세명 한번 단체사진 찍게.

정영학 아이, 아니라니까요.

남옥 야아~ 이거 씨발 어디 가서 (...) 찍고 싶다. 예?

정영학 그거 누구 사진이에요?

남옥 누구 사진이겠어요.

정영학 잘 못 봤어.

남옥 하하하하~ 이런 것이죠.
아 저걸 그게..

정영학 음. 야아~ 야하다

집?

남 옥 예. 집이에요.
 ㅎㅎㅎ~ 이려고 놀아요, 맨날.

정 재 창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명판 돌려놔어.

남 옥 하하하하~

정 재 창 하하하하~

정 영 학 나는 콩밥 먹으면 빨리 뒤져요.

정 재 창 싸움나면 싹 뒤져버리게. 싸우지 말고 살아야 돼.

남 옥 우리는 안 싸운다니까.

정 영 학 자 그럼 단체사진 하나만 찍죠 뭐. 이리 오세요.

정 재 창 (..)

정 영 학 아니, 돈 갖다 놓고 우리 축하파티 한다 하면, 누가 한다 하면 알 거 아
 니예요. 찍어주세요. (..) 앉으세요.

정 재 창 흐허허허~

정 영 학 세명 (..) 찍으세요.

정 재 창 세명이 찍어야 돼. 내가.. 안 그러면 (..)

남 옥 전송해줘요. 전송. 전송하면 안돼.

정영학 전송하지 마요. 그거는.

남욱 문자로 전송하면 기록에 남아.

정영학 찍으세요, 얼른.

정재창 카카오톡은 이틀이야.

정영학 예? 카카오..

정재창 아, 다 찍어놨어.

정영학 예? 예?

정재창 죽어도 같이 죽게. 싸움 되면 싹 뒤져버리게. 그래야 절대 안 싸우지.

남욱 안 싸운다니까.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응?

정재창 싸우지를 않지.

남욱 근데 뭐가 문제야?

정재창 뭐 씨 뭐 뒤로 갖은 사람 많다는 거지.

남욱 맨날 혼자만 왜 그 얘기를 해. 이제 그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혼자. 도대체 무슨 판 생각하시네.

형! 솔직히 얘기해. 요새 판 생각하지? 형.
계속 그 얘기하는 것 보니 약간 이상해, 요새.

정재창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이 새끼야.

남욱 하, 이상해 약간.

정영학 아니,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가십시오.

정재창 만배씨는 오늘 안 왔어요?

정영학 안 왔어요.

남옥 (휴대폰 통화)

정영학 아니, 저것 정리를 하고 가시게요?

정재창 예.
(휴대폰 통화)

남옥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어쩔까요?

정영학 1억. 천만원 모자라는 것 정도는 애교이지 않을까요? 응? 9천 정도면.
아니 그래도 8천이면 조금 기분 상할 수도 있는데, 9천이면 조금 애들이
부가세 떼었다 생각하면..

남옥 아니, 꼭 1억이 필요하다고 그 말을 계속 해서.

정영학 예..

남옥 없는 걸 어떻게 해.

정재창 거기 정치 나가면 정치자금도 줘야 돼.

정영학 그래도 성의껏 했어요.
서울에서 만나세요?

남옥 아니요. 서현궁.

정영학 서현궁? 서현궁이 어디예요?

남욱 그 서현궁 그 5층에 일식집이 있대요.
나 나 나~ (노래 흥얼거림)

정영학 9시. 9시에 만나면 우리는 그냥 퇴근할게요. 저희는.

남욱 예, 예.

정영학 가서 식사..

정재창 그리고 뭐냐 그.. 요번에 가서 뭐 얘기한다는 거야?
이거 받고 얘기해준다는 거냐, 뭐냐?

남욱 뭘 얘기해? 내가 얘기는 안 꺼낸다니까. 그날부터 얘기 안 꺼내잖아.
다 이야기 다 했는데 뭐. 기술적인 얘기를 내가 알아야 얘기를 하지.

정재창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엔지니어들.

남욱 그러니까 붙여서 하면 되죠. 우리가 엔지니어가 없잖아. 우리가 엔지니어
가 없잖아.

정재창 엔지니어 여기 계시잖아.

정영학 아니, 저는 아니에요.

정재창 거기 저기는 아는 척하지 마. 유 단장 만나는 거는. 얘기만 거기서..

남욱 나는 형. 형, 누구 안다는 얘기를 안해.

정재창 저기를.. 왜냐면은 나중에 유동규가 움직이기 편하게끔 자리를 만들어줘

야 돼.

남 옥 나는 그 유 단장이 누군지를 몰랐다니까.

정 재 창 년 또 (...) 하고 있잖아.

남 옥 난 유 단장이 누군지를 몰라 일체. 광 단장하고 저분 아는데. 진 단장. 거기 단장이 세명 아니었나? 저기하고.

정 재 창 TF팀 단장이 유 단장이라고. 국자 혁자.

남 옥 휴우~ 아유 나 피곤해. 아 씨발, 3시에 일어났네. 3시에. 아침에. (...) 지웠어요, 사진. 사진 표정들이..

정 영 학 (...) 사진?

남 옥 예. (...) 사진.

정 영 학 구글에 올라갔잖아요.

정 재 창 거기에 자동 업로드 하는 걸 없애면 되는데. 설정에, 환경설정에 보면은 (...)

남 옥 (...) 여기에 있어요.

정 영 학 요거 드릴게.

남 옥 식사들 하러 내려가 계세요.

정 영 학 예.

남 옥 예. 저는 4시반에 밥을 먹어서.

복사기 여기 있습니다. 아~ 하루 쉬고 있고 (..)

정재창 여기에 보면은 구글 있잖아. 구글에 들어가면 동기화가 있어.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동기화를 없애면 돼. 자동 업로드 되는 이거를.

남욱 아~ 그렇구나. (..)
만배형은 데리고 오겠다? 찬성은 안한다?

정재창 형님하고 돈 생각하는 거에는 느낌은..

정영학 그냥 어떠셨어요?

정재창 형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예요.

정영학 데리고 오겠다?

남욱 데려 오겠다?

정영학 예.

정재창 아니 그것은.. 모르겠어요. 살짝살짝 이것저것 던져봐도.
뭐..

남욱 왜, 왜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 그러면.

정재창 그러니까 씨팔.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돈에 대해서 어제 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라고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없
더라고. 싹 모양새 맞춰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좀 자연스럽게 해볼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남욱 필요없다? 그건 블러핑이고. 돈 필요없다는 건 누구라도..

정재창 아니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못 믿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못 믿는 거지. 그런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 맨 돈 돈 돈 하면서 돈 필요없다고 하는 게 똑바른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이제.. 모르겠어. 딱 단정..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버리면 오나마나이고. 이제는 어제 전체적인 것은 (..) 아유 뭐.. 많은 사건처럼 세상 살아가지 말고 잘해봅시다 이런 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최선을 다 했어서 뭐 고맙지, 난. 이런 것 (..)

정영학 어제는 그냥 관계개선 합시다 그렇게..

남옥 그래서 아니 뭐 그렇다 해서 관계가 뭐..

정영학 아니, 두분.

남옥 저하고?

정영학 음.

남옥 그렇죠.

정재창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구체적인 문제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본인도. 표면상 없는 거지 뭐. 표면상 없는 거.

남옥 그러니까.

정재창 본인도 어제 우리 뭐 형님이나 나나 들이 잘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에 대한 적의성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드러내는 부분이나 이런 건, 그게 중요한 부분 아니고, 그냥 (..) 조금씩 서운하니까 그랬던 것이고. 뭐 잘 풀어갑시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하더라고. 진중하게 얘기 좀 해봤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것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 멀어지는 건 맞

구요.

근데 의도적으로 우리 있는데 빠졌다, 안 빠진다, 본인 안 만난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되고 (...) 아니니까.

나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도 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자연스럽게 일이 잘되고 그러면 서로 풀어지고, 오해나 서운한 게 있으면 뭐 다른 걸로 충족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결국은 다 같이 많이 못해주고 기대치에 항상 부족하고 이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형님도 늘상 돈에 뭐 좀 쪼달리려고 하고, 동생들도 많은 일 하셨는데 우리들도 다 챙기지 못해서 무안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있으니까, 뭐 그건 다 진심으로 세명이 공통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형님이 또 틀림없이 본인의 닦쳐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시니까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편하게 못해준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건 공통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본인이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을 합해도 부족한 일이 있는 것 같고. 서로 잘 합시다. 관계를 풀고 이런 거 아니냐.

삼성의 문제 역시 혹시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불확실한 거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건 돈 필요없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꼭 그게 문제는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예, 그러시겠죠. 사람 마음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이러는 것 저 또한 역시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도 이해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항상 말씀을 하십시오. 말하는 거야 뭐 어렵겠어.

그런데 서로 일적인 부분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좋은데, 서로 그냥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 또한, 그리고 또 자체 3자들 다 또한 세상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부족하고 이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만 좁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나도 내가 여러 가지 생각에 좀 득실도 생각하고 하지만서도 했으니까 끝까지 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라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나도 이렇게 막 많이 젖어들고 했는데, 잘 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꼭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우위를 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
습니까. 그러시지 않아도 많은 일 하셨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아니 그런 부분은 (...) (끝)

이체확인증

출력일시 : 2013.04.16 17:19:55

| | | | |
|------------|---------------------|-----------|--------------|
| 이체일시 | 2013.04.16 17:18:24 | | |
| 출금계좌번호 | [REDACTED] | 보내는분(예금주) | 정영학 |
| 입금은행 | 우리은행 | | |
| 입금계좌번호 | [REDACTED] | 받는분(예금주) | 소 [REDACTED] |
| 이체금액 | 10,000,000 원 | 수수료 | 0 원 |
| 받는분통장표시내용 | 도원정영학 | | |
| 보내는분통장표시내용 | 소진호 | | |
| 전문(타행)번호 | | 집금(CMS)번호 | |
| 이체결과 | 정상 | 처리내용 |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

우리은행



☞ 알아두세요!

* 이체확인증은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거래의 참고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REDACTED]

[REDACTED]

[REDACTED]

10,000,000 ₩

예금주

정영학
김혜라

0 녹음일시 : 2013. 4. 16

0 통화자 : 정영학, 김만배

김만배 응? 응

정영학 네네

김만배 뭐 또, 술 먹으라고 보내고 이런 것도 사실 솔직히 스트레스가 받아. 그런데 원래는 내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쪽은. 그런데

정영학 그냥 예, 그 부분 놔두시고요, 저희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냥

김만배 응

정영학 그다음에 아예 분양이후에 주시게, 분양 전에는 아무것도 안주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삼성을 잘 알거든요 줄 그- 그 이쪽 편에서 체크도 해봤는데, 분양전에는 줄 생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분양 전에 안줄거면 뭐하려고 합니까. 그 고생해서. 저희가 끌고 가죠.

김만배 분양, 씨팔 이후에도 다 안줘. 저 새끼들은 저거는.

정영학 그러니까요. 그건 더 잘 알-

김만배 응.

정영학 아유, 그럴 생각일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외부에서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김만배 아

정영학 외부에서도. 좀 잘 판단하세요. 아마 그 정도 얘기라면 가져는 가되, 아무

것도 안줄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김 만 배 아.

정 영 학 그래서 그냥, 쿨하게 한다고 하면 하시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십시오 이
렇게 지주를 설득해서 맺어있는 투자 받으시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아이디어를 많이 줬거든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그냥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브릿지도 했는데요, 오히려
기회가 더 쉬울수도 있습니다.

김 만 배 응.

정 영 학 공사가 설립돼서 가능합니다. 수용한다고 막 이렇게 해주면 충분히 가능합
니다.

그 하여튼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그냥 다 되셨으니까 그냥 좋게 좋게만
그냥 그, 뭐 봐서 저희가 내일이나 모레정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찾아뵙든
지 할테니까요, 그냥 웃으면서 하시면..

아 뭐할려고 합니까 그냥 웃으면서 되시는 권리가 있는데요, 싸우실 필요
없어요.

김 만 배 동규는 한 천억 정도 남는 구조를 짜고 있어.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자기가 하기, 구조를 하기 나름이라 그러면서

정 영 학 네네네

김 만 배 한 2천억 정도.. (끝)

○ 통화일시 : 2013. 4. 17. 오전 12:12 (21분14초)

○ 통화자 : 정영학, 남욱

정영학 아 예, 여보세요?

남욱 예. 예.

정영학 전화 끊었습니다. 예.

남욱 '아느냐' '모릅니다' 그랬더니 '우리만 알아야지. 결국은 너의 리스크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형님'

정영학 예.. 그건 예의죠. 예의.

남욱 예. '죽어도 둘이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이제 평생'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형님'

그랬더니 '그래, 니 알아서 잘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 얘기를 꺼내더라구요.

니 동업자가 얘기하는데 내가 답을 안해줄 수가 없어서, 그날 만배형이 가고 나서 얘기를 한참 했다. 그런데 이거는 그날도 내가 명백하게 얘기했지만, 대장동에 관심없다. 그런데 내가 시장님 설득할 수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니냐, 최종적으로.

뭐가요? 그랬더니, SP를 만들든 다른 방법으로 가든 세금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래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형 믿어라. 그리고 저쪽은 무조건 수용할 거다. 1공단은. 1공단은 무조건 수용할 거다. 거기서 나는,

정영학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남욱 예. 거기서 나는 갭을 어떻게 할 건지 너랑 나랑 상의해서 하면 되고, 포장해갖고 시장님한테 던져만 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거는 진짜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된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천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없어. 니가 알아서 해. 그것만 만들어.
 그러니까 그림 그쪽 수용하고 군인공제회 끌고 가자. 어떤 방법이든지.
 개네들이 약자이고. 만나봐. 니가 만나서 혹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
 면 그쪽에서 들어봐. 아이디어를 니가. 그리고 형하고 상의하면 되지.
 만약에 그쪽에서 니네 것 인수하겠다 하면 그것도 방법이야. 니네 충분히
 그러면 그 돈 갖고 나.. 야, 대장동하고 너가, 너가 대장동하고 해서 나
 랑 섞여있으니까 내가 움직임이 불편할 수 있는데, 털고 나서 다른 일 하
 면 훨씬 편하게 돈 벌 수 있잖니. 여러 가지 많잖아. 뭐 여러 가지. 그러
 니까 니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형하고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남욱

정영학 예.. 음..

남욱 그리고 그 앞쪽 부지 있잖아. 니네 진입하는데 그쪽.
 그쪽은 수용해서 니네 즐겨. 자금은 니네가 대.

정영학 예.. 좋죠. 좋죠. 가능해요.

남욱 어. 자금은 니네가 대. 우리가 수용해갖고 니네한테 던져주면 되잖아.
 우리는 거기서 체비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금액만큼만 빼서 나오면 돼.
 그러면 많아야 천억에서 천5백억일 거다.

정영학 예, 예, 예.

남욱 그 정도만 액수 맞춰갖고 이쪽에 진행하게 하고. 내가 시장님한테도 그렇
 게는 얘기할 거야. 여기 협의 안 되면 5년 동안 스톱입니다. 재네들 무조
 건 안 나갈 겁니다. 내가 너무 몰아붙이면 티 나니까 적당히 몰아붙여서
 시장님 설득 다 할 수 있어. 연내에 이번 이번 저기 재선 전에 스타트하
 시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용인할 겁니다.

정영학 예.. 오케이. 오케이.

남 옥 그러니까 협의하자, 상의해서 진행하면 될 걸 뭐 그렇게 걱정되게 많이 하더라. 그런데,

정영학 아, 저기가? 예예. 그렇죠.

남 옥 재창이 형이 걱정 많이 하는데, 충분히 인지했고 충분히 검토하라. 걱정 하지 마라.

근데, 그러면서 만배형 얘기가 나왔어요. 만배형이.

정영학 예, 예, 예.

남 옥 만배형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리스크 있다고.

정영학 뭐야..

남 옥 응. 리스크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

정영학 아직도?

남 옥 예. 그런데, 근래 얘기인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뭐 돈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추측은 해요, 형.

그냥 뭐 옥이랑 남변호사랑 얘기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마 재창이 형을 추천한 것 같아요. 만배형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옥이는, 옥이는 아 하면 금방 알아듣고,

정영학 그 이야기 했어요. 예.

남 옥 예. 서로 눈빛만 보면 다 알아듣는데, 재창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 해야 된다, 형님. 옥이랑 얘기하면 편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만배형한테.

그래서 내가, 만배형하고 조금 소원합니다, 사실 형님. 근데 의견차이가 있어서 제가 좀 뜻을 안 굽힌 게 있어서 서운한데, 만배형 금방 푸십니다. 제가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금방 푸시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니가, 니가 그 사업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템포, 스텝을 자꾸 스텝을 조절하는 거 안다, 내가. 나한테도 그랬었고.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느끼면 기분 나빠 하니까 적당히 해라. 다 도와주시는 분들이니까. 조언 아닌 조언을 하더라구요.

아마 만배형이 뭔가 얘기를 했으니깐 그 얘기를 저한테 하겠죠. 상대방이 그걸 느끼게 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 너무 막 니 페이스로 끌고 갈려고 이렇게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하지마라. 적당히 해라, 다 도와주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단락을 했고.

정영학 한명, 두명, 그다음에 아까.. 저도 인제 아는 거네요?

남욱 인제 알죠. 예, 이제 압니다. 그랬더니, 아아 무릎을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이게.. 이강길이 때부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하다가 이상길이가 문제가 있어서.. 뭐 들었지. 나도 들어서.. 그런데, 그래갖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시끄러웠고, 시장님도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그러시는 거고. 그런데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했고. 요새는 뭐 모르겠지만, 안 만나서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했고. 그래서 세 사람이 동일하게 지분.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제가 조금 신고된 주식은 제가 더 갖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공히 세 사람이 3분의 1씩 갖고 진행하는데, 저는 지주들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 예금보험공사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재창이 형은 시공사, 금융권 뭐 이런 것들 좀 맡아서 하고, 경찰들도 좀 만납니다. 재창이 형한테는 그 얘기는 안했어요, 제가. 싫어할까봐. 그리고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맡아서 하고.

영학이형은 이 바닥에서 되게 독보적이신 분입니다. 개발사업에서 회계. 그리고 동천 일을 제가 약간 좀 해드렸고. 그리고 영학이형이 맡아서 했던

이 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
민국에서 회계는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고, 개발사업 회계는, 2등도 없고,
서울대학교에서 로스쿨 애들 강의하시는, 지금 강의하시니까. 그런데 인제
드러나기 싫어해서 안 나서시고,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잘
모르고요, 영학이형이 전문가시니까 그쪽에서 페이퍼나 이런 것들 다 만드
시는데, 나서는 걸 원체 안 좋아해서 그냥 그런 일만 하시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학이형이 여기서 일하시는지
는, 형님만 알고 계십시오. 요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아아~

그래서 뭐 사모님하고 형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그 형수님께서 수내초등학
교 그 저기 뭐죠? 하여튼 그것 제일 높은 것 그 하시면서 선거 때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인간적으로도 되게 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러니까 저렇게 도와주시죠. 뭐 있겠습니까. 저하고는 일 얘기만 하시지,
그 얘기는 안하고요. 그랬더니 아, 또 그런 관계가 있구만.

그러고 수천명이라며요? 그 학부모들이, 6년을 하셨다는데요, 형수님이.

그랬더니, 이번 선거 때는 무조건 시장님 도와야지 그럼.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과 방향이 있으니까 상의해서 하자 형하고.

정 영 학 오케이. 오케이. 아까 그 얘기 좋네요. 예예예.

남 옥 예. 필요한 부분 수용하고 그랬는데, 갔다 와서 제가 '형님 시공사는?'
그랬어. 그랬더니 '니가 알아서 해' 하고 딱 짜르더라고요. 시공사 문제
는. '나는 모르니까 니가 알아서 해'

그래서, '아 그게 아니라' '형수님하고 얘기한대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도와주시면 좋죠, 형님' 그랬더니 '지금은 와꾸가
안 잡히니까. 그런데 와꾸를, 애들이 달려들게끔 와꾸를 잡아놓고 줄을 세
우자 그럼. 그러면 달려드는 애들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오늘 골프치고 왔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실 분하고 골프
를 치고 왔다. 누구일 것 같냐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GS건설 사장
이셨다네. 대표. 전 대표라네.

정영학 그래요?

남옥 예. 놀랐지? 그러더라고.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야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어야지, 자기사람 갖다 앉혔다 그러면
파토다 그거. 전문가 앉혀놓고 일은 내가 결정해서 해야지. 형 믿고 일하
자.

↓
유동규 본부장

정영학 오케이.

남옥 5월 13일 돼서 조례안 통과되면 공식적으로 만나서도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러면 내가 군인공제회 애들 불러갖고 흔들게 있으면 흔들고,
공식적으로 너도 공식적으로 만나야 될테고, 주민도 만나야 될테고.
그거는 공식적으로 할 일이 있고, 비밀리에 할 일은 우리 둘이 만나서 따
로 하면 되고. 조율해서 우리 둘이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너 할 수
있게 도와줄게. 돈도 벌게 해줄 거고. 너랑 나랑 이제 묶였잖냐, 그러더라
고요. 너랑 나랑 묶였잖냐, 평생.
나 죽으면 너 죽는 거고 너 죽으면 나 죽는 거니까, 형도 방어해줘라.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형도 형 자리 안 흔들리게 니가 옆에서 도와줘라.
당연히 그래야죠 형님.

정영학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남옥 예. 그런데 돈은 그게 필요한 모양이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더라고.
내일 1시까지 간다고 그랬더니, 야 11시 반까지 와서 같이 밥 먹자. 짜장
면 시켜줄게. 그러더라고요. 좀 어떻게 내일..

정영학 저기는 얘기해 봤어요? 아니 저는 아까 그 저기..

남옥 예.

정영학 아까 5백은 남겨놨어요.

남 옥 아 그래요, 형님?

정 영 학 예, 예. 그다음에 오늘 저희 소 차장이, 원래 소 차장을 지금 SPC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부러먹었었거든요. 재창이 부러먹고 탄 데 가 가지고 오늘 천만원 해줬어요.

남 옥 진짜요?

정 영 학 예.

남 옥 아이- 씨. 재창이 형은 잠깐 얘기했는데, 형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저녁이 돼야 돈이 될 것 같은데.

) 정 영 학 음음.

남 옥 예. 저녁이, 저녁에 만나. .

정 영 학 재창이 호주머니에 한 3~4백 있던데.

남 옥 그거 늘 그렇죠 뭐.

정 영 학 예. 그거 좀 달라하지 뭐. 그럼 거의 되지 않아요?

남 옥 그렇죠. 그럼 얼추 되는데.

정 영 학 예. 그냥 있는 대로 해줘야죠. 아니 저도 그 정도는 딸딸 끊은 건데. 천5백을 더 했는데.

남 옥 아, 천만원은 형이 만드신 거구나?

정 영 학 하하. 소진호.

남 옥 아, 소■■?

정 영 학 예예. 일단 5백은 갖고 있어요.

남 옥 하여튼 그 내용은 그래요, 형님.

정 영 학 오케이.

남 옥 내일 일찍 나오실 수는 있으세요?

정 영 학 아침에 제가 한 11시까지, 안되면 제가 송파에서 10시에 미팅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남 옥 아유, 돈을 어디서 구하지. 씨발. 하아~ 참.
꼭 그 돈이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정 영 학 그런 것 같네요. 진짜로. 예예.

남 옥 예. 나가서 얼굴 빨개갖고 들어오더라고요.

정 영 학 아.. 백 더 있어요. 6백. 하하하. 그 시간까지 구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남 옥 그렇죠.

정 영 학 예.

남 옥 일단 제가 하여튼 재창이형한테 한번, 다시 한번 그거는 물어보고.
오전에 그러면 10시에 송파에서 미팅이시면..

정 영 학 네네. 송파쪽이면 제가 미팅하는 사이에 우종이를 저기로 보내든지 할게
요. 계시는 데로. 어떠세요? 좀 그런가요?

남 옥 그럴까요, 형님?

정영학 예.

남 옥 아니 그냥.. 그거야 뭐 사실은 상관 별로 없거든요. 제 주시는 거니까.

남 옥
→

정영학 예 예 예.

남 옥 일단은 11시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형님.

정영학 예. 그냥 딸딸 끊어서 0.6

남 옥 알겠습니다, 형님.

정영학 하하하.

남 옥 예, 알겠습니다. 구해보죠 뭐 또. 예.

정영학 예. 재창이한테 호주머니에 3백 있어요. 3백.

남 옥 알겠습니다.

정영학 하하하. 보였다니까요.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남 옥 일단은, 일단은 형님 내용은 그렇습니다. 돈은 그렇고, 내용은.

정영학 예. 그 정도면..

남 옥 뭐 그지.. 형 뭐, 야 너랑 나랑 평생 묶였는데..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남 옥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안됐어요. 하하하. 보니까 녹음이 안됐네.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하하하. 녹음해서 들려드려야 마음이 편하실 텐데. 되게 심플하게 얘기했는데.

정영학 예.. 그럼 두 분이 묶인거면,

남 옥 다 묶인거죠 뭐.

정영학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였으니까.

남 옥 네.

정영학 하여튼 뭐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남 옥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형이 결정할거다, 계속 그래요. 내가 결정할 문제다 인제. 향후에 다. 그러면 너 안되는 쪽으로 하겠냐. 그렇다고 니가 10원도 안 내놓는다는 생각은 없는 거 아니냐. 한 천억이면 될거다. 천억 정도면. 그거 이상의, 그거 이상을 밑에 땅 수용해갖고 너네 던져주면.. 방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용해서..

정영학 가능해요. 가능해요. (...) 있고.

남 옥 예. 니네 던져주면 거기서도 충분히 세이브하고도 남을 걸. 그 땅도 만만치 않은데. 면적이. 굳이 뭐를 사냐. 그거 비싸게. 수용하면 되지.

정영학 우리 구역계는 안해준대요? 그거는.

남 옥 아니, 구역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저번에.. 오늘은 안 물어봤어요. 그 얘기는.

정영학 예..

남욱 구역제도 니네 원하는 대로 해.. 일단 얘기는 저번에 한 얘기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학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남욱 예.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되게 막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던데요. 시장님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나한테.

정영학 예, 예.

남욱 예.

정영학 거기를 수용을 한다는 건 확실하죠?

남욱 그 얘기는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정영학 거기를 수용을 안하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남욱 무조건, 무조건 수용해야 된답니다 거기는. 무조건 수용을 해야 된대요. 거기는 무조건 수용을 할거야. 그 수용에 대한 자금을 인제 3분의 2는 거기서 소화를 할 거고, 3분의 1은 니가 부담하면 돼.

정영학 아, 오케이. 오케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제 검토를, 검토를..

남욱 1,000개에서 맥시멈 1,500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의 이익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너 손해 볼 거 없어. 그게 요지고요.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남 옥 실무적인 부분은 형이 큰 틀에서 맡기면 실무자들이 검토하면 될 문제고, 그다음에 니가 도와줘야 될 문제가, 애들을 정규직으로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만만치 않아 보인다. 옆에서 그걸 니가 좀 도와줘라. 그다음에, 나 자리 안 흔들리게 니가 옆에서 좀 도와줘라.. 그 정도 요구. 내일 짜장면 사줄게 11시 반까지 와라. 하하하. 사무실에서 같이 짜장면 시켜먹자.

정영학 음..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남 옥 예.

정영학 네네.

남 옥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제 편안하죠, 형.

정영학 예.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남 옥 딱 내용도..

정영학 그 정도면 많이 했죠. 예.

남 옥 그럼요. 많이 왔죠. 그러면 ■■■이를 집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형님? 내일.

정영학 아침에 제가 한10시 정도 출근하면서,

남 옥 네네, 전화 주십시오.

정영학 거기서 반포로 가라 할게요.

남 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학 예, 예. 일단은 그 정도가 저는 그 시간까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남옥 예, 알겠습니다 형님. 하여튼 제가 밤에 해서 다시 드리든지 뭐.

정영학 하하하.

남옥 하여튼 봐야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학 재창이한테 그거는 남겨놨다가.. 아니, 이야기하면 안되는데.

남옥 예.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또..

정영학 밤에 준다 했거든요. 밤에. 밤에 딱 만난다니까, 아니 아까 이걸 왜 아까 내놓으시지.. 아이 씨, 싸움시키지 마세요.

남옥 예예예. 아니 그, 아니 형, 그거 아유, 요새 안 그러지 않습니까.

정영학 밤에 갚을게요 하고 낮에 좀 빌려달라 하면 되잖아요.

남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게요.

정영학 오케이. 오케이. 제가 0.6

남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학 네네네. 줌..

남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그럼 제가 저기 인제 뭐, 하여튼 편하게 주무세요, 형님.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남 옥 이 정도면 편하시잖아요.

정 영 학 아 그럼요.

남 옥 한 2시간 얘기하고, 뭐 골프 얘기도 많이 하고.

정 영 학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요즘 소■■■■를, 사실 저는 소■■■■는 약간 좀 꺾끄러운 입장이잖아요, 용사장 때문에.

남 옥 예, 예.

정 영 학 그런데 소■■■■를 계속 재창이가 불러서 이야기를 쪽 하는데, SPP 쪽하고 결합개발 했다가는 뒤지겠더라고요. 수용을 안하면.

남 옥 그렇죠. 예.

정 영 학 애들이 땅을 남겨놔서 알박기 하는 것도 있고.

남 옥 그럴 수 있죠.

정 영 학 그다음에 유치권 뿌려놓은 것도 있고.

남 옥 그렇죠. 정리가 안된다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내비두면 5년동안 정리 못한다.

정 영 학 우리 결합개발 시켜놓으면? 수용을 안하면?

남 옥 그냥 결합개발 시켜놓으면. 예. 수용을 안하면.

정 영 학 맞아요. 수용을 안하면 답이 없대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노리고 있대요. 결합개발 하도록. 환지방식으로 들이 결합개발 해놓고 묶어놓으면 우리가

뒤진대요.

남 옥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합개발을 안하면 거기만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자체 자금이 없어서'

정 영 학 결합개발을 안하면 거기만 수용을 할 수 없다?

남 옥 예. 그러니까 그쪽은 수용을 하고, 이쪽은 환지를 하고. 니네 산 땅은. 하면 될 거 아니냐. 혼용방식으로 하자. 혼용방식이라는 표현도 안 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네 안 산 밑에 땅도 포함시켜서, 거기는 용도 쓸데가 많잖아. 저한테. 쓸데가 많잖아. 그러니까 거기 수용해줄 테니까 거기는 활용해서 쓰고, 우리는 체비지 만평이 됐든 만오천평이 됐든 쥐.

정 영 학 예.. 잘 알겠습니다.

남 옥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 영 학 그 정도면 짤 수 있겠어요, 충분히.

남 옥 네.

정 영 학 오케이,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남 옥 네. 하여튼 요 정도..

정 영 학 그게 답이네요.

남 옥 예. 고민 많이 한 것 같던데. 재창이 형이 그때 잘 짚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형 전화 끊고 재창이형한테 전화했더니 막 일 얘기를 막 몰아붙여서, 형, 형,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하. 다음주에 만나기로 했어? 만나면 일, 야 이걸 몰아붙여야 돼.

형, 알았어. 아니 알았다니까. 아니 만나면 되지 뭐 문제야? 같이 만나서
일 얘기하면 되지. 그리고 인제 그러고 말았죠.
다시 전화할게 그러고 인제, 그 기사가 있어서 돈 얘기는 못해봤고.

정영학 네.. 잘 알겠습니다.

남욱 예, 형님. 하여튼 그 정도 되고 하니까 주무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무십시오 형님.

정영학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남욱 예. 형님 하여튼.

정영학 고생하셨습니다.

남욱 예. 내일 다시 전화 올리겠습니다, 형님.

정영학 네, 들어가세요.

남욱 네, 형님. 예.

정영학 예. (끝)

표 지 (해남보관자료Ⅱ)

(2013. 4. 30. ~ 2014. 12. 1.)

(휴대폰 통화녹음(정영학, 남욱), 그리고 김만배)

+

녹취 주요내용

◇휴대폰 통화녹음

- 2013. 04. 30.(남욱) 오후 1:51(36분)

남욱 : (유동규 본부장은) “돈 얘기, 돈 받은 얘기에 대해서는 하늘이 두쪽나
도 누구도 몰라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1쪽)

남욱 : (유동규 본부장은) “나도 대장동 사업이 성공을 해야, 무조건 성공을
해야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 대장동 사업은 어떤 방법이든 무조건 성공을 시
켜야 된다. 내년(2014년) 6월 선거를 앞두고 그 전에 터트릴지, 대장동을 그
후에 터트릴지 고민을 같이 해서 어떡하면 니네 너(남욱) 돈도 돈 벌이가 되
고, 돈능 많이 이익을 극대화하고, 너도 이익을 극대화하고, 시장님 재선을 위
해서 어떤 식의 도움이 되는지 서로 상의해서 조율을 하자. 우리 둘이 바운다
리 딱 쳐놓고 아주 세밀하게 그 저기 블록을 하나씩 하나씩 쌓으면서 완벽하
게 일을 진행하자, 죽을 때까지 너하고 나 인제 한몸 아니냐, 나(유동규)도 너
못 빠져나가고, 너(남욱)도 나(유동규) 죽으면 같이 죽는거 아니냐.....”

형(유동규)이 다 알아서 할 건데, 너(남욱) 원하는 대로 해줄 거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유동규)한테 언제든지 얘기하면 내가 방향 잡아서 해줄거고, 일 문제는 걱정하지마. 오늘은 완전히 막 이렇게 딱 짜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라고”(2 내지 3쪽)

남욱 :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딱 어떤 방법이 됐든지 사업을 성공시키잖아요

(유동규 본부장은) “무조건 성공시켜야 된다. 자기(유동규)를 위해서도, 너(남욱)도, 너야 무조건 너야 올인한 놈이니까 당연한 거고, 자기(유동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너(남욱)랑 나(유동규)랑 한몸이 됐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라고.....”(7쪽)

남욱 : (유동규가) 계속 얘기하는게 선거(2014.6.4. 지방선거를 말함)

시장님 선거를 어떻게 우리가 당선시킬 거냐에 너(남욱)랑 나(유동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무조건.... 그 다음에 은밀하게 선관위쪽 라인을 좀 대박라.....그래서 결국은 내가(김만배) 이거 다 남욱이가 한 겁니다. 시장님, 이렇게 까지 했습니다. 시장님.....검찰라인은 김만배형이 담당하고...

그래갖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해갖고 절대 시장님이 배신 못하게끔 나(유동규)도 만들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8쪽)

남욱 : (대장동 사업은 유동규 본부장) 본인 사업이야. 이게 지금은...대장동은 본인(유동규) 사업이 됐어. 본인 사업. (9쪽)

(유동규 본부장은) “무조건 성공시킬거다 예요. 형(유동규)을 믿어도 돼”라고 하고 “세부적인 조율이야 전문가들이 붙어서 하면 되고”....(9쪽)

남욱 : 진짜 빨개벗고 서로 빨개벗고 칼 하나씩 들로 등 붙이고 있는 건데, 돌아서면 찌르면 그냥 죽는 사이인데 이거는.... 이 사람(정재창)들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요(14쪽)

- 2013. 05. 16.(남욱)

남욱 : (유동규 본부장에게) “0.9(90백만원) 얘기를 했조 뭐 이래 저래서 그냥 둘러댔더니, 약간 인상을 쓰더라구요”

바로 들고 조 일단 들고 나가더라구요. 누가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1쪽)

- 2013. 05. 28.(남욱)

남욱 : (유동규 본부장은) “(돈) 해주라 그러면 돈 들어올 때까지 더 이상 돈 얘기 안할게”라고 하면서, “돈 들고 나면, 형(유동규)이 어떻게 든지 돈 돌게 만들어줄테니까. 하여튼 요것만 일단 제일 급한게 내일(2013.5.29.) 2천만원이고, 6월말까지 1억이다.”

남욱 : (유동규 본부장은) “ 1억, 그 다음에 나머지 9천만원에다 개인돈 2천만원을 되는대로 어떻게든 좀 해줘라. 그러면 돈 갖고 안조를게 너(남욱)한테”라고(1쪽)

남욱 : 네네, 1억2천만원 추가죠.

4억2천이죠

그 다음에 2천만원은 본인(유동규) 쓸 돈이니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5쪽)

- 2013. 05. 29.(남욱) : 유동규는 현재까지 총 4.2억원을 요구한 것임.

남욱 : (유동규 본부장에게) 당초 3억원 요구한 돈에서 “1.9억 가고(주고) 1.1억 남았었는데, 오늘(2013.5.29.)0.2억 갔으니(줬으니) 0.9억 남았었는데, 어제(2013.5.28.) 1억하고, 0.2억에서 또 추가로 얘기한거고(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 즉, 유동규 본부장이 총 4.2억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2013. 5.29. 현재까지 총 2.1억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돈 전달하였음

※ 2013. 04. 02, 70백만원,

2013. 04. 16, 90백만원,

2013. 04. 16, 10백만원, (이중 9백만원 빌려서....2013. 5. 29.)

2013. 05. 29, 20백만원

지급액 합계 210백만원

(유동규 본부장이) 토탈 4.2억원을 요구한 것임.

그거 만들어야죠, 한달 시간 있잖아요....(1쪽)

- 2013. 07. 02.(남욱) : 김만배 기자가 성남지청 사건을 윤갑근 검사(당시 : 서울중앙지검 1차장, 전 : 성남지청장)를 통해 어떤 사건을 해결했다는 내용을 김만배로부터 듣고 그 내용을 전달함.

남욱 : “만배형이 고생을 많이 했네”

윤갑근 차장(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남욱 : (윤갑근 차장은) “검사장이잖아요. 검사장이 직접 전화하는 예가 없대요”, “검사가 직저 계장한테 전화하는 예가 없다 하더라고요.”

“조우형이도 빼줘라, 알겠다 하더라구요, 자기(김만배)가 들었다고....(1쪽)

남욱 : “....무혐의로 종결하겠다고 얘기 저한테 대놓고 했으니까, 다시 안부르겠다고....”(2쪽)

- 2013. 07. 02.(남욱) : 유동규가 계속 돈 요구, 독촉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음.

남욱 : (유동규 본부장은) “맨날 그거 돈 맡긴 것도 아니고, 개새끼, 십새끼 찾고, 아시지 않습니까?” (1쪽)

- 2013. 07. 02.(남욱) 오후 7:51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 등과 상의하고 업무를 진행한 사실을 말함. 돈 일부 전달하고....

남욱 : (유동규 본부장이) “옥아 그래서, 나머지 언제 줄거냐” 해서 형(유동규) 숨좀 돌립시다.....

(남욱이) “돈 구하지 무지 힘들어” 그랬더니, (유동규가) “어쨌든 고맙다”라고....(1쪽)

남욱 : (유동규 본부장은) “니(남욱)가 이제 우리 쪽에서 하는 일은 광을 팔아 주겠다 하더라고요. 시장님한테 그래야 니(남욱)가 나중에 아 이거 옥이가 이래서 하는 일인데, 옥이네 쪽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합시다....정진상이랑 김

용이랑 다 오늘 상의했대요. 딱 상의했으니까 형(유동규) 믿고 걱정하지 마라.”
라는 등의 내용입니다.(2쪽)

남욱 : (유동규 본부장에게) “돈 구하기 무지하게 힘들어 그랬더니....야 일단
이거 고맙다, 잘쓸게 그래서....(5쪽)

- 2013. 07. 02.(남욱) 오후 8:5

유동규는 (위에서) 강한구 위원장을 치라는 오더가 내려왔고, 그 추가 증거
가 있다는 내용을 남욱에게 전달하고, 남욱은 강한구 위원장이 뒤지면 큰일 난
다는 내용임(1쪽)

- 2013. 07. 25.(남욱) 오후 1:00(9분53초)

유동규는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공모할 때 남욱이 짜는대로 그대로 진행하
겠다는 사실을 전달함. 즉 대장동 사업은 남욱 변호사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진행방안까지 유동규가 제시하고 있음(3쪽), 남욱은 1번
이 무조건 대장동 사업 이라고.....

남욱 : (유동규 본부장은) “자기가 우리를 대장동으로 안만났으면 니네 팀을
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막비 딱 해갖고 맡겨놓고 그렇게 진행하면 진짜 돈 많이
벌수 있는데, 우리가 대장동으로 만나서 이게 지금....야 대장동은 니(남욱)가
마음대로 해. 그냥 원하는 대로 해”라고 오늘도 그러네요. “너(남욱) 원하는대
로 해 그냥 하고..저기 돈이나 좀 만들어줘” 라고 하면서(2쪽)

또 유동규에게 남욱이 100억 정도 쓸만큼 준다고 하니까 유동규는 매

우 좋아함. 그러면서 유동규 본부장은, “그냥 니가 다 알아서 짜갖고 완판만 나한테 얘기해줘라 내가 시장님한테 보고할 테니까.”라고(3쪽)

남욱 : “절에 중(유동규 본부장)이 고기 맛을 보면 절에 빈대가 안남아나요 맞죠?”(6쪽)

⇒ 유동규 본부장이 돈 욕심이 많다는 뜻.

남욱 : (위례지구 사업은) “저희가 16% 정도 갖고 같건데, 한 100억 정도 예상하고....” “....보험 들었다 생각하세요 4년 후에..” “우리는 1번이 무조건 대장동이죠” “...그리고 제가(남욱) 돈좀 만들게요....”(6내지 7쪽)

- 2013. 08. 12.(남욱) 오후 4:01(53초)

남욱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현재까지 총 347백만원을 전달했다고 함(총 요구액은 420백만원)

남욱 : (유동규 본부장에게) “ 3억 4,700만원 갖다 줬다.”

“유동규가 4억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3억 4,700백만원 갖다 줬죠.....”
그것만 안줬어도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을 거예요...(1쪽)

- 2013. 08. 12.(남욱) 오후 4:02(44초)

유동규 본부장이 (공모 관련하여) 본인이 짱구 굴려서 오늘 얘기하는데 두 개 만들어가지고....

- 2013. 08. 27.(남옥) 오후 4:48

남옥 : 형(정영학)이 구조를 좀 만드시는 대로 제가(남옥) 조각을 할건데....(3쪽)

- 2013. 08. 30.(남옥) 오전 11:12

남옥 : (유동규 본부장은) “ 내부적으로 니가(남옥) 알아서 하면 돼. 할 문제고...너(남옥) 결정한대로 다 해줄테니까, 그렇게 직원들한테도 너(남옥) 준 일정대로 그렇게 진행하게끔 그런 구조로 진행할 거라고 다 서류 다 줘놔서 애기해 났으니까, 너는 차질없이 해라.”라고(3쪽)

남옥 : 68백만원 남았는데....유동규는 80백만원 미지급했다고 서로 실랑이 하고.....그래서 남옥은 돈 구하면 바로 해 드린다고...(6쪽)

- 2013. 09. 13.(남옥)

유동규 본부장은 남옥에게 계속 돈 요구,독촉함(2쪽)

- 2013. 10. 04.(남옥) :

정재창과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남옥은, “ 셋이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고 남옥이 앞에서 말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3쪽)

- 2014 05 23.(남옥) 강한구 위원장 47백만원 수령함.

남옥 : 강한구 위원장에게 7백만원 주기로 했음.

김만배기자는 지금까지 강한구 위원장에게 40백만원 돈 전달했음.(1쪽)

남옥 : 강한구 위원장은 김만배기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3쪽)

- 2014. 06. 27.(남옥) : 이재명 선거 관련해서 청와대 하명이 있었고, 이를 김만배기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함.

남옥 : 지금 검찰 위에서(청와대에서) 이재명 잡으라고 오더 떨어졌다고 하네요.....그래서 검찰이 지금 난리인가 봐요. 지금 김만배 기자의 도움이 절실하다.(1쪽)

- 2014. 06. 29.(남옥) 오전 12:11(7분38초)

김만배 기자 이재명 그룹(정진상, 김용, 유동규)과 의형제를 맺고, 정진상 정책실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에 김만배가 개입된 것과 사업 진행에 관하여 협의하고 있는 내용임.

남옥 :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모여갖고.....

남옥 : 네분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실장(정진상)이

얘기해서 그러자고 했고, 큰형님이시니까

그래서 만배형이 처음으로 정실장(정진상)한테 대장동 얘기를 했대
요. 내가(김만배) 왜 와서 여기에 이 싸움에 이렇게 깊이 개입을 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고검장 부르셔서 남변호사(남욱) 일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이화영, 김태년 의원에 이야기 했는데 잘
안돼서 여기까지 왔다. 니(정진상)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전반기에 다 정리
해서 끝내야지요 형님(김만배),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
다 하더라구요. 만배형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1쪽)

- 2014. 07. 28.(남욱)

김만배 기자가 청와대 하명으로 이재명 선거 관련 내용 조사 진행상황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병우 비서관을 만남.

남욱 : (김만배는) “ 핸드폰 갖고 오고, 와서 뽐냈는데...일단 아무하고도 만
나지 말고.....”

남욱 : 저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걸 털까봐 위례를.....

남욱 : “이기성이 형하고 나도 한참 얘기했지만, 기성이형만 얘기 안하면 되
죠?”

⇒ 분양대행사인 이기성이 호반으로부터 고가의 분양대행을 받아 돈을 챙긴
사실을 말함. 그 돈으로 남욱에게 30억원 상당액을 대여함.

남욱 : 어차피 (대장동 개발사업) 그 공모시기도 못당긴다고 하더라구요 아까 얘기가.... 4월에서.....

남욱 :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형(유동규) 당길수 있어.일단 1월달로 무조건 당겨달라고 얘기를 해냈고....)

- 2014. 11. 05.(남욱)

남욱은 금융권 담당자를 만나면서 정민용(2014.11.3.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을 “은행 회의에 참석”동석하게 함.(2쪽)

남욱 : 대한민국에서 실무에 관해서는 정영학 회계사 따라갈 사람이 없고, 거기다 실무 잘 아는 몽주(이몽주) 옆에서 챙기지.....

핸드폰 딱 만들어서 3개월만 비밀리에 통화해갖고 추진하면 정리하면 (대장동 사업은) 끝이야. 걱정하지마...(4쪽)

정영학 : “ 저는 수박 겉핥기식이고, 만든거는 남대표(남욱)가 다 만든 것 맞아요.

남욱 : (김만배 기자가) “ 너(남욱)가 이 사업(대장동)을 해도 되겠다고 본인이 판단한 가장 결정저긴 거는 재창이 치고 영학이랑 화해해서 영학이 데리고 와서 둘이 세팅한 거다.”라고.....(4쪽)

남욱 : (유동규 본부장은) “4천억짜리, 4천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야 이거는 문제되면 게이트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라고..

4천억짜리 도둑질인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6쪽)

남욱 :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몇년을 버텼는데....(6쪽)

- 2014. 11. 24.(이몽주)

정민용 변호사(성남도시공사 팀장)이 선진개발 협회에 들어가시고...그걸 당겨 달라 하신가고 함(3쪽)

- 2014. 12. 01.(남욱)

유동규가 대장동 관련하여 돈 갖다 주기 전에 안할 기세라고.....

남욱 : 만배형하고 한참 얘기했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목적이 있어서 저러는 거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러냐, 진짜로 당장 돈을 안줘서 저러는 거냐. 아 이 씹새끼

남욱 : 텃어요...(유동규 본부장에게) 돈 갖다 주기 전에 안할 건데 뭐 돈을 못 만들어, 그 사이에 만들 수가 없어...

남욱 : ...큰일은 가게 해줘야, 해놓고 돈을 구해오라 마라 뭐...그건 아는데,
그렇다고 일을 스톱을 시키면 씨발 이걸 아니지 않냐.

남욱 : (유동규 본부장을) 죽여버릴수도 없고. 씨발 진짜.

남욱 : (유동규 본부장은) 이 돈을 안 만들어주면 안할 기세라니까.
그게 문제지.

남욱 : 기성(이기성-분양대행사인 ㈜더감 대표)이형이 들어와서 씨발 기성이형
을 조지든지 해야 되는데.....

(유동규 본부장은) 만배형 얘기도 안 듣고 이제, 뭐 아니면 진짜 딴 생
각이 있을 수도 있고.....

○ 통화일시 : 2013. 4. 30. 오후 1:51 (36분)

○ 통 화 자 : 정영학, 남욱

정영학

네네.

→ 성삼지의회 의원

남욱

유근주 건. 김재논은 그 업체 그걸 좀 해라, 빨리. 김재논은 업체, 자기 업체 통해서 돈 받은 것 좀 흔들어갖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쳐라.. 그다음에 유근주 뭐 그 카톡으로 옛날 그 시장님하고 형하고 싸우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
유동규

정영학

네네.

남욱

그 녹음 파일. 그걸 자꾸 카톡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날려대요, 지금도. 지금 다.

정영학

지금요?

남욱

예, 요즘도. 이재명씨랑 누가 칭찬하면 카톡으로 보내갖고 한번 들어보라고. 이런 새끼를 뭘 칭찬하시냐고 그런대요. 그 개새끼 잡아 죽여야 된다고. 유근주 그것 좀 경찰 통해서 좀, 검찰 통해서 좀 하라고 그래서, 광을 막 팔았거든요 재창이형. 경찰, 재창이형이 꼭 잡고 있으니까 지금. 예?

정영학

예, 예.

남욱

그랬더니, 하여튼 조금 유하게, 마지막에는 좀 유하게 얘기는 했는데, 넷이서 골프 같이 한번 치게끔 의장님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수락하는 모양새로 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일단은 돈 얘기, 돈 받은 얘기에 대해서는 하늘이 두쪽 나도 누구도 몰라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제가 웃으면서 나중에는 뭐 같이 자연스럽게 보셔야죠. 재창이형도. 그랬더니, 지금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불타이밍은 아니다. 자기가 보기에.

그래서 인제 한발 양보한 게, 그러면 네 사람이 골프치자. 한발 양보한 거
죠. 마지막에 일어나면서.

정영학 네네. 아.. 일단 저는 아마 반대하실 것 같구요. 저기가. 끝끝내 반대하
실 것 같고, 불가. 불가. 솔직히 이야기 자체를 꺼내는 것도 불가.
대신 엇그제도 끝난 다음에 다음날 한참동안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이
랬으니까.. 그다음에 본인 보호를 위해서 한다, 얘기를 하셨고,

남욱 아유, 고민 좀 해보시자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 저는 사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지
금은.

정영학 네네. 다음주 화요일날 이거 어떻게 하시게요?

남욱 아직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나. 생각해봐요.

정영학 아. 아, 갑갑하네.

남욱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는 이제 하
지 말자. 우리끼리. 나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 기억나는 대로 워딩을
그냥 들은대로 해드릴게요.

나도 대장동 사업이 성공을 해야, 무조건 성공을 해야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 대장동 사업은 어떤 방법이든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자,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그 전에 터트릴지. 대장동을. 그 후에
터트릴지 고민을 같이 해서 어떡하면 니네 너도 돈벌이가 되고, 돈을 많이
이익을 극대화하고, 너도 이익을 극대화하고, 시장님 재선을 위해서 어떤
식의 도움이 되는지 서로 상의해서 조율을 하자, 우리 둘이 바운다리 딱
쳐놓고 아주 세밀하게 그 저기 블록을 하나씩 하나씩 쌓으면서 완벽하게
일을 진행하자. 죽을 때까지 너하고 나 인제 한몸 아니냐. 나도 너 못 빠
져나가고, 너도 나 죽으면 같이 죽는 거 아니냐.

예, 형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 일 문제에 대해서 걱정 있어? 없죠 형님.
그래 뭘 걱정을 해? 형이 다 알아서 할 건데. (너) 원하는 대로 해줄 거고,

유동규

2014. 6. 4.과
지방선거

유동규

남욱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얘기하면 내가 방향 잡아서 해줄 거고. 일 문제는 걱정하지 마. 딱 이거거든요.

만나면, 오늘은 완전히 딱 이렇게 딱 짜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얘기를 사실 들이는 많이 안하거든요.

정영학 예.. 아..

남 옥 그런데 재창이형이 본인이 듣고 싶고 본인이 인제 역할을 하고 싶어 해서 좀 좀매줄려고 하는데, 좀 그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당장은. 상당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정영학 아..

남 옥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 또 재창이형 오해할 거라고요. 그럼요. 그러고도 남죠.

정영학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남 옥 얘기를 다 못하죠, 형. 이 얘기를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 얘기를, 일 얘기 말고 사람관계 얘기는 못하죠. 못 꺼냅니다. 그 얘기도 안합니다, 제가. 괜히 싸웁니다. 사람 갖고 들들 볶고. 그러다 싸우면 진짜 제가 안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정영학 아..

남 옥 인제 셋이서 싸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인제 뭐 특별한 것도 저 것도 아니고.

정영학 음.. 아이구, 걱정이네요.

남 옥 그러니까 재창이형이 본인이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얘기를 못해주니까,

편하지가 않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만나면.
본인이 인제 그런 스타일과 말하는 행동과 말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진짜 오래되면 친해지지만, 처음에 금방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은 스타일이라.. 걱정이네요 그게.

정영학 네.. 걱정이네요.

남욱 예. 진짜 이거 참. 저는 솔직히 이런 거 하유~ 귀찮아서.
술 먹고 막 예, 예 하고. '예' 를 백번을 한 것 같네요. 앓아갖고.
예, 알겠습니다 형님. 정말 명심해라. 1%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
런 얘기 해서, 예 알겠습니다, 형님. 명심하겠습니다.

정영학 하하. 음.. 어렵네요. 예.

남욱 예. 어려워요.

정영학 이걸 좀 고민해보십시오. 일단 제가 붙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구조상.

남욱 네. 저 혼자 하면 또 난리일 테고. 정보를 쥐고 어찌고저찌고..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정보라고.
고민이 많습니다, 형님. 아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잘 좀 해볼려고 그
랬더니.

정영학 아.. 좀 그러네요. 아.. 요건 뭐..

남욱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형님, 그래갖고 술을 당분간 같이 술을 먹을 자
리를 만들기는 조금 애로가 있어 보입니다. 형님. 재창이형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골질이야. 이걸 니가 알아서 하고 이걸 내가 알아서 하
면 편한데. 딱 모여갖고 정보 취합해서 의사결정하고, 이렇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자연스럽게 야,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야, 뉘앙스가 이럴데 니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내가
만나야지.

재창이형 취지는 이해를 해요. 너는 못하는 얘기를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나를 붙여줘라 인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딱 뿌러지게 얘기를 하니까.

정영학 아..

남옥 예. 그래서 인제 넷이 골프를 한번 치자, 같이. 재창이형한테 얘기를 하면 이 얘기는 빼고, 넷이 골프를 한번 치자 하는 얘기는 제가 할 거예요.

정영학 네네네네.

남옥 예. 그 얘기밖에 못하죠. 딴 얘기는 못하죠.

정영학 하하.

남옥 빈정 상하면 난리나니까.

정영학 예 예. 저는 채를 놓은지가 지금 3년이나 됐는데, 2년. 2년이 넘었네요. 3년째네요.

남옥 그러게요.

정영학 아니 일단 의장님 자체가 유동규 앞에 나서면 본인이 죽는대요. 일단 옛날에 그냥 보긴 했지만, 잘못하면 공격당할 수도 있다. 시장한테다 완전히 당해버릴 수가 있다. 이거는 유동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남옥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문제고
아니 그러니까, 계속 제가 재창이형하고 같이 만나자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인제 차라리 그러면..

정영학 그러면 네분이서, 네분이서.. 아,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저기는 가까워지니까, 네명이서 운동 한번 하는 걸로. 아.. 어렵네요.

남욱 예. 어려운 숙제를.. 아이구~ 어렵네.
돈도 돈이야 뭐 또 일주일 있으니까 고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영학 돈요?

남욱 예.

정영학 걱정이예요, 돈도.

남욱 돈도 걱정이긴 하죠. 그런데 뭐 계속 사람들 만나고 있으니까요 뭐. 답을 좀 찾아야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 얘기는 이제, 너 니 일에 걱정해? 그래서, 아니 걱정 안하는데요. 뭘 걱정해? 니 일 걱정할 필요 없잖아. 저 걱정 안하는데요 형님. 그러니까 우리는..

정영학 시공사하고 지금 금융 쪽이 문제인 거는 알아요, 그쪽에서?

남욱 정확하게 모르죠.

정영학 큰일났네. 아니 그거가 여의치 않다하면..

남욱 그런데 그게 협의가, 그 얘기는 잠깐 하더라도요. 협의 다 해갖고 싹 해갖고 할려면 11월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도요.

정영학 아.. 차라리 구역지정이 늦게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남욱 그렇죠.

정영학 예.

남옥 일적인 문제는 뭐.. 유동수가 계속 얘기하는 게 선거.

정영학 예예.

남옥 시장님 선거를 어떻게 우리가 당선시킬 거냐에 너랑 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무조건. 그다음에 은밀하게 선관위쪽 라인을 좀 대봐라. 너만. 아무도 모르게. 오늘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선관위쪽 라인을 한번 대서 라인을 하나 갖고 있어라.

요점은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이거 다 남옥이가 한겁니다, 시장님.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시장님.

너 절대 안 죽일거니까 걱정하지 마. 형이 다 해놓을 테니까 너 할 수 있는 것만 딱 해봐. 나도 살고 너도 산다, 그래야. 오늘 요점은 그거예요. 검찰, 경찰라인. 검찰라인은 만배형하고. 만배형 서운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만배형 서운하게 하지 말고 잘 케어 해. 검찰쪽 그만한 인맥 없다. 예, 형님 알았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경찰라인은 니가 지금 개 재창이가 하고 있다니까, 관리 잘하고 있어. 선거 때까지. 그다음에 은밀하게 선관위쪽 사람 하나만 붙여봐. 너 혼자. 그래갖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해갖고 절대 시장님이 배신 못하게끔 나도 만들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재창이가 왜 그런.. 아 그 얘기도 하더라. 재창이가 왜 그러는 줄 안다. 확답을 나한테 듣고 싶으니까 그럴 거다. 너도 만약에 나하고 이런 관계가 안됐으면 너도 그러고 싶었을 거다. 똑같은 입장일거다. 그런데 너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쫓으지도 않고 묻지도 않지 않느냐. 예, 형님. 그런데 지금은 너하고 나하고만 얘기를 알고 있어야지. 하면서 세상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세상일은 아무도 모른다.

정영학 예.. 하하.

남옥 아-참 어렵네.

정영학 머리 아프겠다.

남옥 아이~ 진짜. 형, 진짜 일은 이 정도까지 들이 얘기하면. 야, 형이, 형이.. 언제 한번 내가 녹음해서 들려줘야 되는데 진짜.

정영학 아니 아니에요.

남옥 아니 진짜로 일은 막 그 본인이 그, 진짜 너무 편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들이 앉아갖고. 저는 대화를, 저는 대화를 거의 안하니까요. 예예만 하니까. 그런데 본인 사업이야, 이게 지금. 대장동은 본인사업이 됐어. 본인사업.

정영학 좋죠.

유동규

남옥 예. 무조건 성공시킬거다 예요.

그러니까 더 거기다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형님 알겠습니다.

형 믿어도 돼. 형 그렇게 저기한 가벼운 사람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잖아. 그러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유동규

일은 다 되겠다. 단지 저것만, 큰 저것만 안 흔들리게끔 단도리만 잘하면 되겠다. 세부적인 조율이야 전문가들이 붙어서 하면 되고.

정영학 아.. 공제회 분위기는 어떻다 하십니까? 혹시 뭐 그런 건 별로 디테일하게..

남옥 뭐 그런 얘기도 없고.

정영학 없고?

남옥 예. 공제회는 그냥 협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아예 협의할 생각이 없는.. 혹시 저희한테 도움이 되면 그런 건 얘기하라는 거죠. 저희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공제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그

건 그때 방향을 바꾸면 되니까.

정영학 네네.

남옥 큰 틀에서 바꾸자는 게 아니라, 선으로.. 그거 간단하죠 뭐 형. 선베팅 받고, 선베팅 일부 받고, 나머지 개네들 그 모자라는 돈 나중에 저희 정산할 때 정리해주는,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공제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정영학 그렇죠. 선베팅도 받고.

남옥 예.

정영학 금융쪽이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라고, 저희가 박 상무랑 이야기는 대충했어요. 박종열 상무랑. 한 2,000개 정도만 앞에 그, 좀 이렇게 좀..

남옥 (..)

정영학 예. (...) 투자를 해주면, 어차피 자기네 손해보는 게 그 정도면, 2000억 손해 안 불러고 2000억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정 안되면 그 정도만 보증을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돈 투자가 아니라.

남옥 네.

정영학 네네. 그래서 그 정도면 조달이 가능하지 않겠어? 정도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지분을 달라고 할까봐. 공제회 쪽에서.

남옥 아. 형이 보시기에도 유 본부장 문제는 거의 인제 정리된 것 같지 않으세요?

나 유동규(성심돈사상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남 옥 예, 어떤 게 문제예요? 이거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정영학 어.. 이게 혹시 뭐 거기가 날라가지만 않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인제 세사람 문제죠 뭐. 세사람 문제.

남 옥 사람의 문제라고 형도 판단하시는 거죠? 일적인 문제 보다는.

정영학 예. 일적인 문제라기보다. 그다음에 저보다는, 저는 이제 '유' 하고 관계 이전에 하여튼 대표님 관계가 있으니까. 저는 뭐 조금 안 나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는 어떻게 할거냐 했을 때, 저는 이거는 뭐라고 방향을 하기가 쉽지가.. 하하. 잘못하면 어.. 이거는.. 잘 이야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남 옥 그러게요.

정영학 급급하네요.

남 옥 예. 좀 급급하네요.

정영학 되게 가장, 요즘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게 이쪽이던데. 예?

남 옥 예,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이런 일은 재창이형이 했어야 되는데. 저는 판사람이 하면 신경 안쓰거든요 이제.
재창이형이 뭐 직업병이 있으셔서..

정영학 아.. 예. 모든 정보의 중앙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편해 해요.

남 옥 예, 맞아요. 아.. 그러게요.

정영학 걱정이예요.

남 옥 본인이 대표이사 하라니까 그건 싫다 하고. 참 희한해. 보면.
아니 진심이거든요. 아유 막, 그..
제가 이제 요새 뭐라 하나면, 나를 볶지마. 제가 그러거든요.
나를 왜 볶아. 형이 얘기해 직접. 필요하다면. 내가 확 쇠버리거든요. 요새.

정 영 학 아.. 저기한테?

남 옥 재창이형한테.

정 영 학 '유'한테 직접 얘기해라?

남 옥 아니, 아니요. 그 유 본부장 얘기는 얘기 안하고, 다른 뭐. 또 뭐, 나는
오픈을 하는데 뭐 딱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형, 나를 쓰지마. 나를 쓰지
말고, 형이 직접 얘기해. 형이 궁금하면. 나는 안 물어봐. 나는 진짜 궁금
한 거 아니면 안 물어봐, 형. 그리고 나는 별로 궁금해 하지도 않아. 알아
서 다 하시는데, 각자 알아서. 그래갖고 문제 생기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 상의할텐데, 뭘 그걸 머리 아프게 그걸 다 알아갖고..

정 영 학 하하하.

남 옥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하여튼 하여튼 (...)으 으~ 그랬어요.

정 영 학 하하하.

남 옥 아니,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요 이제. 돈 구하는거야 뭐 원래 그거니
까. 아 이게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 영 학 그다음에,

남 옥 요새 급격히 그러더라고요. 요새.

정 영 학 아니 또 그렇다 해서 제가 가서 물어봐요. 난리 나는거죠.

아유, 나 그거 감당이 안돼요.

남 옥 그러니까요.

) 정 영 학 더 감당이 안돼요 그거는.

) 남 옥 그러니까.

) 정 영 학 보면 우리 진짜 그, 뒷감당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 남 옥 아~휴

) 정 영 학 하하하.

남 옥 아니, 난 죽겠네 진짜. 그럴거면.. 야 회계사 있잖아. 회계사. 예? 회계사. 예예예. 같이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얘기를 하자. 아이 씨발 이거 완전 사고인데 이거 어떻게 해.

) 정 영 학 사고죠 사고. 진짜 그렇게 내면. 제가 동의 진짜 지금 필쩍필쩍 똥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 남 옥 예.

) 정 영 학 진짜 그렇게 되면 완전 사고예요. 예?

) 남 옥 아니 솔직히 사고죠, 형. 완전 사고인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저하고 형하고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닌데. 대화를 나눠가지고 솔직히 누가 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정 영 학 예.

남 옥 누가 하면 어때요? 귀찮기만 하지. 같이 술 먹고 이러면.

저는 그런데,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재창이형은 또 직접 들어야 되고, 직접 표정을 봐야 되고, 뉘앙스를 들어야 되니까 또 그렇긴 한데.

정영학 네..

남욱 그러니까 인제 그걸 조율하는 게, 3년 내 맨날 하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 이 일이잖아요. 누구 하나 포섭해갖고 딱 꽂아놓으면..

저는 경찰 만나자고 그래도 안 나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형님.
형이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나가자. 얼굴 볼래? 아니, 싫어요. 한번 보세요. 저 바빠요. 그지? 왜 봐? 내가. 혼자 잘 보면 되지. 재창이형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또 인제 그러면 무책임하다고 또 뭐라하긴 해요. 저한테.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영학 후후후.

남욱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재창이형 스타일이 또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은 솔직히 되게, 지금 말고 옛날부터 그랬지만, 되게 좋아해요 진짜로. 인간적으로. 형님도 그렇고 재창이형도 그렇고, 진짜 믿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서로 못 믿으면 진짜 그건 죽어야죠 이제.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정영학 예예.

남욱 진짜 빨개벗고 서로 빨개벗고 칼 하나씩 들고 등 붙이고 있는 건데.
돌아서면 찌르면 그냥 죽는 사이인데 이거는. 이 사람들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요.

↓
징계조강

정영학 예..

남 옥 저는 그런 신뢰는 이제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자꾸 기분 안상하게끔, 형들 기분 안상하게끔 할려고 노력하다보니
까 이게 좀 부딪칠, 이런 일들이 부딪치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나. 옛날 같으면 형,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말 일인데.

정영학 네네.

남 옥 예. 형 좀 그렇다며? 이따 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려고 그냥 틀툴거리려도
그냥 모른척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제 그럴.. 그렇게 괜히 굳
이 그렇게 안해도 될 일을, 사람 그런 거 싫어하는데, 싫은 거 하는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영학 예, 예.

남 옥 그래서 감정을 안상하고 좋게 좋게 좀 할려고 하는데, 요거 좀 답 찾기가
조금 지금으로서는..

정영학 하하하.

남 옥 돈 구하는 거보다 더 스트레스예요. 지금 이게 형님.

정영학 그렇죠.

남 옥 예. 다른 얘기 뭐, 좋은 얘기 뭐 일 부탁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것 때
문에 머리가 아파갖고 밥 먹으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하여튼 분위기를, 분위기를 좀 하여튼 잡아갖고, 자연스럽게 술 한잔..

정영학 만약에 개인적인 생각에요, 한번 들들들 볶기 시작하면 거의 혼수상태 올,
이 스트레스가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버려요.

남 옥 그러니까요 형님.

- 정영학 그 또 집요함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 남 옥 형은 그래서 뒤로 물러날 텐데, 저는 싸우잖아요 나중에 화나면.
- 정영학 예.. 저는 그냥 아유 그냥 뭐, 불편하니까.
- 남 옥 형은 한발 물러..
- 정영학 아니 스트레스 받고 불편하니까 그냥 아이구 그래요 잘못했어요 하는데.
- 남 옥 저는 참다 참다 확 질러버리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인제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좀, 아유 너무 여자 같아갖고 아유. 어떻게 해야 될지.
- 정영학 뒷감당이 안돼요. 솔직히. 막 끝도 없어. 막. 밤새도록 고민해버리잖아요
- 남 옥 예.
- 정영학 예.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저는 안 붙이셔도 될 것 같고.
- 남 옥 아니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요청한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구도를 잡은 건 아닙니다, 형님.
계속 만나보자 만나보자 내가 계속 그러니까 같이.
그러면 넷이 골프를 치자, 이렇게까지 나온 거니까.
- 정영학 네네네네. 그러면 넷이 골프를 친 다음에 자연스럽게 제가 만나게 되는 모양새를 만들자 라는 거죠? 유동규 본부장.
- 남 옥 본인의 취지가 그런 취지인데. 본인의 취지가 그런 취지인데, 거기서 재창이 형으로 방향을 바꾸면..
- 정영학 아니, 옛날에 유 본부장이랑 많이 놀았잖아요? 우리. 우리 뭐 하고.

남 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정 영 학 그.. 하하하,

남 옥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 문제, 아마 재창이형 문제 때문에 보
자고 했던 거고. 김재논, 유근주. 그다음에 돈 문제. 요런 것 때문에 오늘
밥 먹자고 한 거여서 내용은 그렇구요.
재창이형 문제는 고민 좀 해보시자고요.

정 영 학 고민 좀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이건 사고예요, 사고.

남 옥 예, 고민 좀 해보시자고요. 아 그러니까 저도,

정 영 학 설득을 잘..

남 옥 저도 손을 그거 한, 그거 이제, 저는 형 얘기는 유 본부장 얘기를 전한 것
뿐이고요, 제 의견은 아니니까. 예. 저는 제 의견이 아니라 유 본부장 의
견을 전달한 것 뿐이고요.
하여튼 그 상태에서 유 본부장 생각이 그렇다니까, 형님하고 고민을 좀 해
서 잘 포장해서 재창이형한테 얘기를 좀 잘 해서 풀어야지 않을까 싶어요.

정 영 학 예.. 하여튼 뭐 전혀, 그냥 만나는 이야기도 안했었고.
하여튼 요즘은 그냥, 하도 지난번에 한성식 이사 아들 갖고 대판 싸운 바
람에..

남 옥 요점은, 요점은 뭐예요? 요점은 뭐예요?

정 영 학 한성식 의원?

남 옥 아니, 한성식 의원 얘기를 저한테 안한 이유는 뭐래요?

정영학 본인이... 아, 모르겠어요.

남옥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형이 얘기를 했냐. 이거일 수도 있고.

정영학 예예. 제가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아니, 아니, 나도 개인적으로 판단도 하고 디스커션도 해야 되고, 이런 의사결정도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아니, 그러면 내가 빠질게, 까지 그냥 좀 공격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거는 아니다 하더라고요. 말을 못하게 한 건 아닙니다. 두사람이 대화를 못하게 한 건 아니고, 그게 섭섭한 거 절대 아니다. 말을 했다 라고 하는 걸 자기한테 안 가르켜준 게 섭섭한 거다. 그래갖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남옥 이게 정신병자도 아니고..

정영학 아니, 들이 대화.. 아니 그러면 들이 대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라. 들이 대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게 어디있냐. 애도 아니고, 중학생들 그 여중생들 왕따 시키는 뭐 이런 애들 저기도 아니고. 저도 저기하면 흥분하면 버벅대요.

남옥 예.

정영학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다 라는 사실을 자기한테 알려줬으면 섭섭한 게 없었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건지.

남옥 아니 좀 이상.. 좀 이게 이게 심정의 변화가 형, 좀 있어요 재창이형은.

정영학 예. 왜요?

남옥 때에 따라서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고민해 보시자고요. 아.. 이게 사업하는 것 보다 더 어려워요. 그 일이. 이 일이 제일 어려워요, 저는.

정영학 예. 그래도 요즘 덜 시달리잖아요 거기는.

남욱 요새 좀 덜 시달리죠.

정영학 예. 안 나타나니까.

남욱 네.

정영학 자리 좀 교체 좀 합시다. 내가 숨어있고 두분이 좀 다니세요.

정재환

남욱 아, 형~ 아~ 저, 다른 스트레스는 감당하겠는데, 저도 재창이형 자신 없어요. 하하하하.

정영학 (...) 다니잖아요 계속.

남욱 아, 미치겠어요. 틈만 나면 미숙한 소리 해대고, 틈만 나면 꼭 하다가 갑자기, 나는 정보를 다 공개해. 네도 정보를 다 공개하란 말이야. 뜬금없이. 기분 확 상하게. 툭 던져. 일부러 그러는 건지 거게.

정재환은

남욱

아니 무슨 정보공개 안할게 뭐 있어? 나는 딱 만나고 나면 딱 나오는 순간 전화해갖고 얘기 다 하는데.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사람을 안 만나는데, 나는. 본인은 그날 저기 뭐야,

정영학 재창이는 나를 안 무서워해요. 거기는 무서워하지. 언제든지..

남욱 안창환인가 만나고 온 거, 제가 아는 척도 안했거든요. 누구 좀 만나고 왔어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요. 형님이 안창환 만나러 갈 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뭐 만났으면 만났나보다 하는거지 뭐. 필요해서 만났을 테고. 뭐 특별히 상의할 일이 아니니까 얘기를 안한가보다 하는거죠. 그걸 뭘 그걸 궁금해 해?

정영학 하하하. 하여튼 뭐.

남 옥 아니 이제 와서 형, 서로 이제 와서 정보를 갖고 뭐 힘겨루기를 할거예요, 나중에 서로 돈 뺏을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뺏길까봐 그러는 것 같애. 저 새끼는 끝까지 못 믿는다. 요점은 남옥이를 끝까지 믿을 수는 없다 그런 것 같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

정 영 학 → 정재현
저기죠. 본인이 옥이한테는 싸워서 진다. 잘못하면 잘린다.. 거기에 대한 거가 그게 노이로제가 있어요. 조금만, 조금만 저기해도 노이로제가 있어요.

남 옥 아니, 왜 그러지?

정 영 학 모르겠어요.

남 옥 내가 뭐 얼마나 그랬다고?

정 영 학 예?

남 옥 얼마나 그랬다고?

정 영 학 여러 번 그랬다면서요? 잘 모르겠어요.

남 옥 뭘 여러 번 그래요? 딱 한번 그때 중동에서, 중동에서 한번 그 이후로는..

정 영 학 중동에서?

남 옥 중동에서 처음에 나갈때야 그때야 뭐 제가 걱정하고 한 거니까 저도 역할을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제가 태국 갔다 오고 나서야, 싸우기는 많이 싸웠어도 뭘.. 오늘도 제가 그 얘기는 딱 했거든요. (...)

재창이가 평생 갈지 안 갈지 너하고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말을 잘랐어요. 형님, 재창이형하고 평생 갈 사람입니다.

저는 딱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본인이 그걸 몰라주는 게 서운하지만,

정재현

또 그것을 알아달라고 광을 팔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정영학 네..

남옥 아니 뭐 제가 마음속으로 그러면 그만인 거지 뭐, 그걸 또.. 언젠가는 알겠죠. 그죠? 본인도. 언젠가 알지 않겠습니까.

정영학 예..

↳ 유동기 본부장

남옥 오늘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본부장님한테. 평생 갈 사람 아니면~ 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중간에서 형, 재창이형하고는 평생 갈 사람입니다 제가. 저도 선은 그어놨죠.

재창이형이 딱 처음에 만나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형, 그 양반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일 했는데, 그 양반도 선수십니다. 한번의 사고도 없었고. 믿습니다, 제가.

정영학 예..

남옥 그랬더니, 지하전쟁 어찌고저찌고 뭐 이러더라고요.

너는 형만큼 지하에서 전쟁을 안 겪어봤잖나.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형님. 그 정도 하고 마무리는 했는데. 그거 뭐 본인이 급급하니까, 그러니까 코 끼는 게 싫으니까 그러겠죠. 그거야.

정영학 그렇죠.

남옥 당연한 거겠죠. 재창이형은 딱 보기에 버거워보이니까 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도 이해는 해요. 하여간 형님, 다 왔습니다. 다 와서. (...) 다 왔거든요.

정영학 네, 고생하십시오.

남 옥 예예.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일 끝나고 전화드릴게요.

정 영 학 예, 전화주세요. 메일 보냈어요. 두분 프로필.

남 옥 네네. 아, 보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형님.

정 영 학 네네. 그다음에 서변은 그 뭐죠 공식적으로는 나타나면 안된대요. 자기네 그 심판, 본인이 담당을 했대요. 그 건을.

남 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 영 학 본인이 심판한 건이라서 관련이 아예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 옥 이렇게 하면 되겠네. 박 변호사님, 그다음에 조은회계법인, 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 영 학 네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남 옥 그렇게 해갖고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형님.

정 영 학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남 옥 예, 그럼 미팅 끝나고 전화 다시 드릴게요.

정 영 학 예, 고생하십시오.

남 옥 예.

정 영 학 네. (끝)

0 녹음일시 : 2013. 5. 11

0 통화자 : 정영학, 정재창

정재창 지금이라도 그걸 나중에 알았는데, 내가요 아이구 난 참 가관이더라 가관.
아이구

정영학 아.

정재창 에이 더러운 새끼들아. 그러니까 철홍이가 그렇게 나한테 무릎 꿇고 박 박
기고 대가리 막 눈물 흘리고 맨날 그랬지 (..)

정영학 아

정재창 아니 몇몇하지 못하게 먹잖아. 몇몇하게 먹으면 괜찮잖아. 진짜 지저분
하네.
아이구 형, 그러면 내 야마 그때 제대로 들었지.

정영학 창근이가 더 무서운 놈이네요

정재창 창근이..

정영학 예

정재창 그리고도, 그리고 옥이한테 어저께 가서 옥이한테 그랬다면서?

정영학 네네

정재창 공무원 의왕시 체육부 뭐 그거 했다고 또 그랬다면서.

정영학 일인이 많이 해요

정재창 응

정영학 일인이 의왕 것도 할 거예요

정재창 뭐 몇몇한 걸.. 하여간 그거 결국 창근이도 넣어도 돼
그래서 창근이한테 내가 그런 거 아니여? 야 씨팔놈아, 다 내놔라 이 개
새끼, 그런거 아니요?

정영학 아니 우와 그거를 분 놈이 더 나쁜 놈이죠

정재창 지도 그렇게 될줄 몰랐나

정영학 부는 놈이 더 나쁜놈이에요 진짜로

정재창 하여간 그런 재미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철웅이 개새끼는 그러면 지가 신영수 가지고 작업했으면, 이걸 내가 쫓아
가서 죽여버려야지. 전에 한번 살짝 떠봤어 전화해서. 너 신영수 작업했
냐-
해가지고 이거 응?

정영학 월요일날 밥 한끼 먹으려 가볼게요 예

정재창 하고, 너 재창이가 알면 너는 아마 찢어발겨놓겠다, 요새 많이 그래도 좋
은소리 하더만. 형이 이렇게 작업해야지. 너한테 요새 이제 다 하고, 나중
에 이틀테면은 챙기자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거 재창이가 알게 되면 그 성
격에.. 그 성격에.
딱 요 한마디 던지면 철웅이는 바로 떨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정영학 예

정재창 형이 떠보되, 신영수 작업했냐 라고 떠보되, 나도 그렇고 재창이도 그렇
고, 너 나중에 꼭 여기서 돈을 뭐라도 좀 하면, 정리되면 인허가 되고, 정

리되면 부를려고 생각했는데 라고 끝면서 만약에 그거 했으면 첩희 해, 안
그러면 너는 (...)돼야 돼.

정 영 학 저는 안믿는게, 지난번에 한번 (...) 했잖아요

정 재 창 응, 응

정 영 학 신영수가 첩희가 속였다고, 자기는 속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정 재 창 그러면 어떻게? 같이 볼까?

정 영 학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럼

정 재 창 너 이씨, 바로 대놓고 니 씨발놈 죽을래? 바로 하면,
너 또 칠했나? 내가 한번 할까?

정 영 학 지난번에 한번 되게 당했잖아요. 믿지는 않아요 대표님도

정 재 창 저런 새끼는 형은, 모사꾼이.. (끝)

0 녹음일시 : 2013. 5. 16

0 통화자 : 정영학, 남욱

정영학 아, 예. 여보세요?

남욱 아 예, 형님

정영학 예

) 남욱 기사가 저리 대리를 불러서 온다고 그래서

) 정영학 아 예 예 예

) 남욱 그래서 인제 일단 들어갔는데, 처음에 검찰 얘기하고, 김재노 뭐 얘기 좀 하고,
그 얘기했느냐, 그 얘기 했습니다 신경을 써라, 준비해놓고 갈게.

정영학 아 그래요?

남욱 예. 0.9 얘기를 했죠 뭐 이래 이래 저래서 그냥 들러댔더니, 약간 인상을 쓰더라고요.

정영학 (하하하) 그래요?

) 남욱 바로 들고 조 일단 들고 나가더라고요. 누가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정영학 아, 밖에?

) 남욱 예, 다른 방에

) 정영학 아

남 옥 그걸 받으러 온 것 같애 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정영학 네네

남 옥 그러더니 내일- 갔다 들어오더니, 한 10분 쯤 혼자 있었어요. 들어오더니, 내일 하나 더 갖다 줄 수 있어? 그래갖고, 아 예. 내일 그럼, 점심에 갖다줘라 하나.

그러더니 또 나가더라고요

정영학 예

남 옥 그러더니 인상을 딱, 얼굴이 빨개갖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한 잠깐 얘기하고 있다가 그냥 좀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인제 재창이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 정영학 예, 거기가 방이 여러개 있나 봐요

) 남 옥 방이 많더라고요 그 안에

정영학 일식집이? 일식집

) 남 옥 일식집이 아니라 술집이더라고요 5층이. 빠요 빠

정영학 아..

남 옥 예, 술집이더라고요 형님.

그러더니 얘기를 쪽 하면서, 누구냐 정확하게 니 동업자라며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쪽

정영학 예

남 옥 쪽 얘기를 했죠 이리 저리 해갖고.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두분이 한 사람은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래 저래 이래저래 했다.

정영학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냐-

남 옥 예. 누구냐 그래서 그랬더니 아 그런거 였어? 그래서 처음부터 그럼 예,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일한겁니다 그랬더니, 개 만나는거 아느냐-

정영학 예? 아 여보세요? (끝)

0 녹음일시 : 2013. 5. 28

0 통화자 : 정영학, 남욱

유동수가

남 욱 해주라 그러면 돈들어올 때까지 더 이상 돈 얘기 안할게.

정 영 학 아

남 욱 그리고 돈 들고 나면, 형이 어떻게든지 돈 돌게 만들어줄테니까, 하여튼
요것만 일단 제일 급한게 내일 2천만원이고, 6월말까지 1억이다.

정 영 학 내일 2천,

↓
2013.5.29

남 욱 예. 6월말

정 영 학 6월말까지 1억

남 욱 1억. 예, 1억. 그다음에 나머지 9천만원에다 개인돈 2천만원을 되는대로
어떻게든 좀 해줘라. 그러면 돈갓고 안조를게 너한테

정 영 학 하하하

남 욱 우리 일 때문에 하는 거니까 형 믿고 해라, 2천만원은 형이 쓸 돈이다, 그
건 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정 영 학 예

남 욱 그래서 일단 형, 제가 내일 2시에 천만원은 받을 수 있어 만들 수 있어요.
내일 2시에 그 천만원을 그 만배형 해준거 돈 더 주기로 했는데

정 영 학 네네

남 옥 거기서 천만원을 제가 뭐 저기한테 창민이 형, 최창민 변호사한테 얘기하고, 천만원은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정영학 아

남 옥 천만원은 어떻게 해야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영학 에

남 옥 그리고 일단은 6월말까지는 그냥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거 갖고 또 뭐 스트레스 안받고

정영학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내일 그러면, 내일 몇시까지?

남 옥 3시, 4시에 간다 그랬더니, 너무 늦다 3시까지 와라 그래서, 제가 2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정영학 네네네

남 옥 그러니까 그 2시에는 제가 천만원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정영학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를

남 옥 에. 꼭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얘기를 해서 안좋은 얘기입니다

정영학 아, 뭐 해봐야죠 뭐.

남 옥 일단은 뭐 내용은 이미 뭐 서류까지 다 만들어놓고 PFV 그냥 뭐 오케이, 일단 그거는 처음들은 얘기고요, PFV 인정한 상태에서 계약 MOU 체결한 거고요

정영학 오케이. 그거 좋은 소식이고요

남 옥 예, 예. 그 외에 뭐 스케줄 MOU 체결하신다는 얘기도 오늘 처음 들었고 사실은.

정 영 학 네네

남 옥 공문 얘기를 저번에 했었는데, MOU 써줄게. 그다음에 1년 안에 완벽하게 다 만들어놔서 위약금까지 딱 해갖고 서류 만들어놓으면 되니까.

정 영 학 그러면 1년안에 분양까지 막 갈 생각은 아닌가 보네요

남 옥 그렇게는 어렵고요. 시기적으로 어려워 보이니까요

정 영 학 선거 이후에 하겠다?

남 옥 네.

정 영 학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남 옥 예 뭐, 그런 정도입니다

정 영 학 박종구 부사장 쪽은 혹시 움직이는 거는, 이야기는 들어 보십시오

남 옥 그거는 얘기를 잠깐했는데, 용역이나 뭐 이런 거 형이 하는데 그건 형이 알아서 할거니까 신경쓰지 말아라. 신경도 쓰지 마. 시장님하고 이미 얘기가 다 된 사안이고 보고까지 다 돼서 시장님이 오케이 한 사안인데, 그렇다 한들, 그렇다 한들, 공사만 설립되면 주도권 다 뺏아올거다 내가 그런 것 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 영 학 빨리 설립하십시오. 예, 예, 예

남 옥 그래서 그거 7일날 하자 설득해서. 의장님은 아마 더 이상 못하실거다 약

속을 하셔서. 우리가 설득을 해야 돼요.

정영학 설득이 되겠어요? 주민들이

남옥 해박야조 뭐. 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러네요 형님
뭐냐하면, 논리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형님.
이제 어차피 할거고, 본인이 가처분신청 문제도, 가처분 문제도 본인이,
본인 때문에 가처분이 들어간 건데, 본인님이 신문 저기 기자회견까지 해
서 자의적으로 한거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더 우습지 않냐, 그 결
과를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 주민들이 이러 이러 이러해서 7월달에 되면 8월, 9월
이면 시간적으로 이미 이왕 해줄거면 시간적으로 주민이 죽을수도 있다.

정영학 아. 권 쪽을 살리면서 가자 라는 취지가 있으세요

남옥 예

정영학 혹시 권- 해보십시오 해보시는데,

남옥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 저러니 해도 명분 어차피, 명분은 만들어주
면 되지 않냐 그거죠

정영학 아. 그러나 하여튼 뭐 계속 주장을 해보고, 안되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으
니까요.

남옥 뭐 안되든 안되든.

정영학 안되든 해보자죠.

그런데 6월 5일날에 목숨 걸고 우리가 하자 라고 하는거는, 권 의원이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남옥 일단은 다른, 의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의장님은 더 이상 본인도 본부장도, 의장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더 애
기를 못할거다, 오히려 역으로 주민들이 권 의원을 설득을 해서 논리적으
로 설득을 해서 권 의원이 차라리 의장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
게끔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죠

진행을 하자.

주민들을 좀 설득해서 동원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그래갖고 해보겠습니다. 안되면 할수 없고요

정영학 해보시자고요 예

남옥 예, 안되면 할 수 없는거고요
본인이 오케이 해서 하겠 하면 말릴 이유는 없잖아요

정영학 그다음에 아 최종, 6월말에 1억원 추가되는 거죠? 이게 지금 되면

남옥 네네 1억2천 추가죠. 총 총..

정영학 총 1억2천 추가?

남옥 예. 4억2천이니까

정영학 아 (웃음)

남옥 일단은 그거는 간곡하게 얘기하네요. 이렇게 자기 일하는데 필요한 분이라
우리 일하는데, 너하고 나 일하는데 비싼 분이라 분이다.
그다음에 2천만원은 본인 쓸 돈이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다입니다
형님. 짧고 말씀드릴 내용이.

정영학 네네, 예. 그- 때 보시자고요 내일 뭐.

남옥 하여튼 그래서, 제가 좀.
그러면 형님, 보면 또 혹시 구할수 있는지 먼저 그냥

정영학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차라리

남옥 전화를 드릴게요

정영학 네네, 잘 알겠습니다

남옥 네, 형님

정영학 네, 네. 고생하시고요

남옥 예.

정영학 예. (끝)

0 녹음일시 : 2013. 5. 29

0 통화자 : 정영학, 남옥

남 옥 피해를 입는걸까.. 헛갈리네 갑자기 이게

정 영 학 (하하하) 아니 저도 아니

남 옥 원래 1억천만원 남았었는데, 오늘

정 영 학 1.1억 남았었죠

2013 5. 29

↑

남 옥 예, 1.1 남았어요 1.9 갔어요. 1.9 가고 1.1 남았었는데, 오늘 0.2 갔으니
가 0.9남았었는데, 어제 1하고 0.2에서 1.2 또 추가로 얘기한거고

정 영 학 예 하여튼 토탈 4.2. 예 → 2013 5. 28

남 옥 예, 토탈 4.2

정 영 학 지금 현재 2.1 갔고.

남 옥 예 예. 그런 내용이고

정 영 학 예 예

남 옥 만만치않아요 이게

정 영 학 만들기가?

남 옥 아니요, 그거 만들어야죠. 한달 시간 있잖아요 형.

정 영 학 아니 이렇게 하다가 계속 당했었잖아요, 막판에 뒤지는거 아니예요?

빵구 떡 나버렸잖아요 이번에는

남 옥 아니 그래서 뭐 어쨌든 배째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어쨌든 형 그래도 오늘, 저 오늘 그거 큰일날뻔 했어요

정 영 학 왜요?

남 옥 수표로 갖고 왔더라고

정 영 학 누가요? 아. 아.

남 옥 저쪽에서.

정 영 학 그거야 뭐 바꾸면 되죠

남 옥 아유, 그렇지만 사고죠 완전히요. 시간 못 맞춰서 큰일날 뻔 했네요.

정 영 학 네~ 그러면 수표 갖고오면 안바꿔- 아 바뀌지않아요 은행 가면

남 옥 아니 바뀌는 지는데, 그 만배형.. 만배형 또 주고 뭐 이러니까.
그 수표로 바꾸- 3천만원이잖아요 형님 나머지가

정 영 학 한 장, 한장이?

남 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3천만원을 수표로 갖고 와서 이쪽에 주고, 또 주변호사님 형이 알아서 해주고, 이쪽에 만배형하고 바꿨죠. 2천만원 바꿔 갖고. 싹 갈라갖고. 처음에 천만원 일단 주고

정 영 학 우리가 처음에 9천을 줬어요? 7천을 줬어요?

남 옥 9천을 준 모양인데요 형, 그러면

정영학 처음에 9천? 그러니까 다음에 다음날 천만원을 들고 간 기억이 있어요

남욱 그건 9천 주고 천 들고 간거죠. → 2013. 4.16.

정영학 아. 그런가보다. ↘ 2013. 4.16.

남욱 네네네. 그날 형님이 두 번째 줄 때 제가 백만원 밖에 없다 그래서 형님이 9백만원 해줘갖고

정영학 맞아요. 처음에 7천, 9천, 천. 그러면 1억7천이잖아요

남욱 아, 잠깐만요. 형, 전화를 끊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영학 (하하하)

남욱 제가 이제 잠깐만요.

정영학 급한 돈은

남욱 아니,

정영학 알겠습니다

남욱 예. (끝)

남욱 20백만원 유동금

① 2013. 4. 2 - 170백만원

② 2013. 4. 16 - 90백만원

③ 2013. 4. 16 - 10백만원
(이중 9백 2천)

④ 2013. 5. 29 - 20백만원

○ 통화일시 : 2013. 7 2. 오후 3:25 (3분56초)

○ 통화자 : 정영학, 남옥

(2:03~3:56)

남 옥 보니까 만배형이 고생을 많이 했네.

정 영 학 음. 잘해드리세요.

남 옥 예. 윤갑근 차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 서울중앙리점 1차장 남다.
→ 김안배가

정 영 학 아. 오케이. 오케이.

남 옥 검사장이잖아요. 검사장이 직접 전화하는 예가 없대요.

정 영 학 아!

남 옥 검사가 직접 계장한테 전화하는 예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장님도 전화를 하셨다고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가서 달달 볶았으면 전화했겠어요.

→ 성삼리청계장

정 영 학 하하하. 아니 하여튼 뭐 고맙네요. 일을 떠나서, 우리가 돈을 벌든 뭐를 하든 이걸 떠나서, 우리 같이 있는 식구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남 옥 예예. 하여튼 마무리 잘 됐고. 우형이 얘기도 다 해줬고.

정 영 학 네네, 다행입니다.

남 옥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칸 김에 다 왔죠. 이렇게 됐다. 우형이도 김여사한테 몰아주고
우형이도 빼줘라. 알겠다 하더라고요. 자기 들었다고, 얘기.

↓
조우형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그렇게, 그렇게 마무리가 거의 마무리가 됐던데요. 언제.

정영학 갑자기 검찰 가 있다 하니까.

남옥 아니, 본인이 모르고 불렀다가 본인도 당황했나 보더라고요. 막 전화 오니까. 이게 건수다 싶어서 불렀다가. 그래갖고 잘 마무리해서 아마 다시 부를 일.. 무혐의로 종결하겠다고 얘기 저한테 대놓고 했으니까. 다시 안부르겠다고.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남옥 하여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영학 그래요. 줌.. 예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

정영학 그래요.

남옥 알겠습니다. 예, 형님 감사합니다. 전화 올리겠습니다. 제창이형 줌 전에 통화 전화 왔었는데, 저기 간다고. 예. 뭐 어디 저기. 한, 한 간다고. 한.

정영학 아 예. 통화 한번 해볼게요 저도.

남옥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학 네. 네. 수고하십시오.

남 옥 예, 수고하세요. 예. 화드릴게요.

정 영 학 오늘은 들어갈게요 예.

남 옥 에예. 들어가십시오. 전화드리겠습니다.

정 영 학 네.

남 옥 예. (끝)

0 녹음일시 : 2013. 7. 2. 오후 3:25 (50초)

0 통화자 : 정영학, 남옥

남 옥 저 맨날 그 뭐.

정 영 학 이번에 화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빵구내면 뒤지겠더만요. 응? 옆에서 들으니까,

남 옥 예. 맨날 그, 맨날 그거 돈 말긴 것도 아니고, 개새끼, 썩새끼 찾고, 아 시지 않습니까.

정 영 학 (하하하) 아니 아니, 그거 친해서 그런거죠 뭐

남 옥 (웃음)

정 영 학 아니 인제 동생-

남 옥 예, 인제 잘- 예. 잘, 동생하니까

정 영 학 그럼요. 동생 같으니까 그렇게 막 뭐 하면서 하는거죠 뭐

남 옥 예.

정 영 학 아니 그래도. 예. 월요일날 이거 받게요, 안하면 화요일날 맞아 죽겠어요 보니까

남 옥 (으하하하하)

정 영 학 (하하하) 나까지 겁나

남 옥 (하하하) 아, 하여간. 예, 형님 그러면 일단 시간 잡아갖고 다시 말씀드

릴게요

정영학 네네네네.

남옥 네.

정영학 네, 수고하십시오

남옥 주말 잘 보내세요 형님

정영학 예, 잘 보내세요 .

남옥 네네

정영학 네네. 수고하십시오 예

남옥 예. (끝)

0 녹음일시 : 2013. 7. 2. 오후 7:51 (8:26)

0 통화자 : 정영학, 남옥

(1:50~8:26)

남 옥 재창이형한테 배워 형. 아마추어한테 배워야 돼. 그럴까.
이야, 내가 드라이버 너 만큼만 치면 재창이가 원하는거 다 해준다. 형 그
약속 꼭 지켜, 형 약속 꼭 지켜야 돼. 그러면 재창이형한테 배워. 야 돈
달라는 얘기 안하잖지? 아이, 장난해요? 형 지금. 응? 내가 무조건 그거
잘 안하는데, 아마추어 챔피언, 이번에 서울시도 챔피언 됐어요. 그래?

정 영 학 인제 그 정도 이야기 할 정도로 많이 친해졌네요 유 본부장이요

남 옥 예, 친하죠. 친하기야. 그래서 나오는데, 야 옥아 그래서, 나머지 언제
즐거냐 해서, 형 숨 좀 들립시다. 형 숨 좀 들립시다

정 영 학 예? 숨 좀 들립시다?

남 옥 돈 구하기 무지 힘들어 그랬더니, 어쨌든 고맙다 그래서,
아유, 우리 사이에 고맙긴요..
그다음에 어제 그거 변명하더라고요. 에버리지.
한상.. 뭐라고 있어요 한상 뭐가 김영원하고 검증해갖고 한건데, 자기한테
안보여주고 했대요.

정 영 학 그래요?

남 옥 예. 그랬다고. 그 얘기는 하지말라고 했는데, 야 하지는 마라 어디 가서.
그런데 그리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개 김영원하고
아니 형. 오늘 아침에 만났대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시
장님은. 시장님, 아니 왜 베버리지 얘기를 왜 꺼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야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난리났대. 옥 바가지로 먹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같게 아닌데, 왜 저한테 물어보고 하시죠 했더니, 아니 한 뭐

→ 김용서역원.

시기라고 있다 비서. 그걸 써줘갖고 했다 용이하고 검증해갖고 한거다.
그랬더니 그게 약간 에러, 오차가 있었나봐요 딱 지랄했나봐요 아침에 좀
그래서 형이, 약간 형이 미스한건데, 그거 개념치마라. 오늘도 얘기했지.
아니 시장님 뭐 복잡하게 하십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고, 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거 다 제가 알아서 할거고, 돈 만들어서 1공단은 공원화 만들면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니 알아서 해. 공원만 만
들면 돼 나는.

그렇게 해서 정리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어찌고 저찌고

정영학 주변에서 난리죠 뭐

남욱 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얘기를 했죠. 형 그게, 아니 아파트 안만든다니까
수익성 없다는, 투자한다고 그랬던 사람들 난리요

정영학 왜 50텢 했어. 50텢. 그거 당연히 그렇죠.

남욱 투자한다 그랬던 난리요 지금 형 지금 그랬더니, 수습은 하고 있는데 난리
네. 아유, 돈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변명을 하더라고요 막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자기한테 다 보내라고.

정영학 아. 그러니까요 아. 예, 오케이

남욱 그러면서 뭐, 그 얘기 다 보고다 했다 오늘 아침에. 너하고 해서 뭐 그거
백현유원지도 같이 도움 받아서 할거고, 보고 했으니까 뭐. 인제
니가 인제 우리 쪽에서 하는 일은 광을 팔아주겠다 하더라고요 시장님한테
그래야 니가 나중에 아 이거 옥이가 이래서 해서 하는 일인데, 옥이네 쪽
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합시다. 그래야 군말들이 없으니까. 정진상이랑
김용이랑 다 오늘 상의했대요. 딱 상의했으니까 (형) 믿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형) 믿어 걱정안해. 뭐 하여튼 그 정도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짜
장면 먹고는 썰려고 그랬더니, 야 8시에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가세요 저
혼자 치고 갈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유동규

유동규

정영학 (하하하)

남옥 제가 갈게요 그래서. (하하하) 가세요 그럼, 저 혼자 치고 갈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약속을 했다 야. 그럼, 제가 갈게요 하고 나왔어요 지금 (하하하)

정영학 아.

남옥 뭐하지, 아이 씨

정영학 예

남옥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세 가지 미션.

정영학 예예. 하여튼

남옥 한 가지 더 얘기했고요. 코치

정영학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남옥 아유, 형님 나 죽지나... 모르지. 죽을-

정영학 다행히 거기 자리 잘 잡았어요

남옥 아 예

정영학 같이 묶인 거 잦아요 잘 잡았어요

남옥 그렇죠 형

정영학 나는 잘 잡았다고 생각은 해요 아니, 만약에

남 옥 아니 여기는 인제 재창이 형 또 붙여주면 또 팀목끼리 할 얘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정 영 학 그걸 떠나서, 사실 완전히 저기잖아요 인제. 사실 그냥 부탁하는거 하고 이렇게 엮이는거 하고,

남 옥 그렇죠. 이런 일이 그냥 우리 일이 돼 버렸는데 뭐. 우리의 일인데

정 영 학 이렇게 엮이. 그렇죠. 이거는 본인이 못 도와주면 죽는 걸로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이죠. 어제같은 기사가 나간 마당에. 아유 씨, 온(...)해요

남 옥 그리고 왜 걱정하지 마랍니다. 본인이 나 들어오자마자부터 그 얘기부터 꺼내더라고요. 야 그게 어떻게 된거냐 하면, 하고.. 내가 말도 안꺼냈는데, 변명을 막 하더라고요

정 영 학 해야죠. 오늘 난리인데. 잘 알겠습니다

남 옥 하여튼 그렇게 된 거랍니다

정 영 학 다음꺼는요? 언제쯤 해달래요?

남 옥 아니요, 오늘 뭉개고 왔다니까요. 형 좀 숨 좀 쉽시다.. 돈 구하기 무지하게 힘들어.

정 영 학 (하하하)

남 옥 말 슬쩍 나가면서, 형 숨 좀 쉽시다 그랬더니,

정 영 학 거기, 어디로 갈까요? 그게

남 옥 모르겠습니다. 아니, 인제 자기가 좀, 나머지는 자기가 좀 쓸려고 그러는 거 거든요. 형도 좀 쓰자 이러더라고요. 언제 해줄거니? 그래서, 형 숨

좀 들립시다 그랬더니, 돈 구하기 무지하게 힘들어 그랬더니, 제가 금요일
날 보고 내가 스케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그랬더니, 나오는데 야 일단
이거 고맙다 잘 쓸게 그래서
아이 형 우리끼리 고맙기는.. 뭐 이려고 나왔습니다

정영학 세금, 그게 현금 하나면 세금정산을 하면 한 1.6 이상된다 이렇게 해야죠.

남욱 아니 형, 이게 나중에 저는 일단 100개 이상 추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영학 그렇죠. 당연히 예 (.)

남욱 그거는 다, 저는 이거는 돈 좀 먹겠으니까.

정영학 저도 투자수익이 있다 생각해요

남욱 예. 이거는 만약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만약에 저희께 어떻게
돼서라도 판데서라도 공사하는 판거에서라도 제가 빼올겁니다 확인해서

정영학 예, 그렇게 하십시다 저도 뭐, 그 정도 해줄 능력돼요. 넘버 투

남욱 하청업체 업체를 붙여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해도 중요한데

정영학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욱 하여튼 형,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 여기 끝입니다

정영학 (하하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남욱 재창이 형하고, 통화 좀 할게요 형

정영학 통화 좀 하세요 오케이.

남 옥 네네

정영학 네네. 잘 쉬세요

남 옥 네, 쉬세요 형님

정영학 예. (끝)

0 녹음일시 : 2013. 7. 2. 오후 8:3 (1:13)

0 통화자 : 정영학, 남옥

(00:20-1:13)

남 옥 지금 얘기가 강한구 위원장을 치라고 오더가 내려와서 증거하고,

정 영 학 어디서요?

남 옥 위에서 내려왔어.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왔어요

정 영 학 아유 참.

유기영 단장

남 옥 보니까 내용이 유기영 단장하고 거기 연여있다네 유기영이라고 강한구 위원장하고 해서 업자한테 뇌물수수 뭐 골프접대 그래갖고 증거확보 해갖고, 그래갖고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편이라고는 얘기는 했다. 아따 형 복잡하고 복잡하다 진짜.

정 영 학 아이구

남 옥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는데, 복잡하네.
형이 지금 정리 좀 하겠다고 지금 얘기중이야.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끊었네

정 영 학 네~

남 옥 여보세요?

정 영 학 예, 예.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

0 녹음일시 : 2013. 7. 2. 오후 8:5 (2:10)

0 통화자 : 정영학, 남옥

(00:25~2:10)

남 옥 추가증거가 나와서 뭐 어찌 어찌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형 강한구 위원장은 뒤지면 큰일나 우리

정 영 학
↳ 유동구
큰일나죠

남 옥 알아 임마. 알았어 정리 좀 할게.

정 영 학 아

남 옥 아니 이게 일부러 그런건지, 그 새끼들이 그 씨발 뭐. 아 도통 감을 못잡겠네 아유 나 진짜

정 영 학 지난번에도 좀 세계 던지더라고요

남 옥 예. 아, 도통 감을 못잡겠네

정 영 학 세계 던지는 거가 아유, 걸면 다 걸리죠.

남 옥 파일을 키우자는 건지, 어찌자는 건지. 그렇다고 뭐 재창이형이 그렇게 호락 호락하고 만만한 사람은 아닌데

정 영 학 그럼요 예

남 옥 그렇게 그냥 뭐, 아무한테나 돈 뜯길 사람 절대 아닌데

정 영 학 (하하하)

남 옥 (하하하)

정영학 아 또 뭐 소리요? 지금.

남 옥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뭐 하여튼
아이구, 그래 뭐 하여튼 다 살려야죠 아유
재창이 형이 뭐 일단 우리 편이다, 얘기는 잘 했다 하더라고요

정영학 솔직히 우리 편이죠

남 옥 예, 무조건 거기는 살려야 된다

정영학 안그러면 진짜 오더가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네

남 옥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게, 새누리당에서 죽여라 할수도 있죠
형

정영학 위에서? 예

남 옥 예. 위에서. 그러지 않을까요? 형님

정영학 예. 방어해 줘야죠

남 옥 그러니까 해야죠 해야돼요

정영학 아

남 옥 하여튼 뭐 그런 정도의 사안입니다

정영학 하긴 이게 외풍이 있어요

남 옥 있죠 있어요

정 영 학 만만치 않네요

남 옥 알겠습니다, 형님

정 영 학 네네네

남 옥 예

정 영 학 예, 고생하셨습니다

남 옥 예, 쉬세요 형. 예

정 영 학 예, 예 (끝)

0 녹음일시 : 13. 7. 25. 오후 1:00 (9분 53초)

0 통화자 : 정영학, 남옥()

(00: 00~8:30)

남 옥 그렇게 못 만드냐.

정 영 학 예?

남 옥 형 지금 돈을 그렇게 못만드냐-그러더라고요 형 지금 최악입니다 저한테는

정 영 학 그렇죠

남 옥 완전 최악입니다 요 타이밍만 넘어가면 형. 형.. 야 됐다 돈 필요없다, 하여튼 할때까지 제가 돈 갖다 해도 돈 갖다 드릴게 형. 요거 합시다 그러면서, 꼭 짰어요 대신 부지. 지금 흑 했어 완전히. 야 팀 짜 바로. 팀 짜서 진행해갖고 정리해서 갖다 줬더니, 출력 여기 방에서 출력을 꺼꺼려 운가 봐요. 안하겠다 그래서 나갔다 온거 거든요 처음에.

정 영 학 아.

남 옥 갖다 와서 밥 먹으면서 막 틀었더니, 일단 뽑아. 시장님 올라가서 보고해야겠다. 야, 니네들 팀 짜갖고 진행하자, 그리고 니가 구조 짜, 니가 구조 짜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37% 정도 남았는데, 에콰이어 하나 더 주고 16% 정도는 제가 먹을 거예요. 백개 정도 돼요. 한 4년정도, 4년정도 되면 100개정도 남는데,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형.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니가 다 짜. 그래갖고 형을 한번 보고 싶대요.

정 영 학 아, 저요? 저 의장님 허락이 안났어요

남 옥 조용히 한번 정리를 좀, 이내용들을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그런 구조들을 한번 설명을 브리핑을 좀 해달라고.

정영학 아, 아니 뭐 너무 간단해요. 그냥 뭐, 이게 뭐 저도 이게.. 음

남욱 그래서 형, 어쨌든 저희 입맛에 맞게, 저희가 돈을 만질 수 있게 구조를 짜면 공모할 때, 공모할 때 야 야 야 니네들이 다 짜서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대로 할게,

정영학 그러면 이걸 공모할거 아니에요?

남욱 그렇죠. 그것도 인제 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사에서 다 할거니까 우리가 제시해주는 방안대로 하겠다 이거죠

정영학 아 예-

남욱 그래서 팀 만들어서 바로 진행하라 하면서. 야 요거 진행하면서 현대 이매동 얘기를 계속하는데, 현대에서 콜이 들어왔다고. 그쪽을 붙여줄테니까.

정영학 네네. 좋네요 그럼. 아니 붙여달라 하세요. 현대건설이 하면, 이매동에 무슨 큰 사업지가 있나봐요

남욱 예, 예 이매동에 뭐가 있나봐요. 그래서 하겠다고 콜이 온 거예요. 시행대 행사를 우리를 선정해줄테니 니가 가서 붙어라. 거기 짜라.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우리를 대장동으로 안만났으면 니네 팀을 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막비 딱 해갖고 맡겨놓고 그렇게 진행하면 진짜 돈 더 많이 벌수 있는데, 우리가 대장동으로 만나갖고 이게 지금.. 야 대장동은 니가 마음대로 해. 그냥 원하라는대로 해. 오늘도 그러네요. 너 원하라는대로 해 그냥. 하고, 저기 돈이나 좀 만들어줘.

유동규

형 이거 진행만 돼 봐요 형. 야 돈 필요없다 그래도 야 갖다줘. 형 벌써, 형 100억인데, 형 쓰실 만큼 제가 보험 들어놓으니까, 저도 좀 쓰고, 저희도 좀 쓰고, 형도 쓰세요 나중에. 그랬더니 입이 또 걸렸어. 그리고 형 진행하면서 한 50개는 만들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필요하시면 드릴테니까 쓰세요 했더니, 그냥 니가 다 알아서 짜갖고 완판만 나한테 얘기

7유동하

해줘라 내가 시장님한테 보고할테니까, 요렇게 정리 했습니다.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우리 꺼는요? 우리꺼는? 대장동 꺼는?

남옥 대장동 꺼는

정영학 다 하고 싶은대로 하래요?

남옥 네. 대장동 꺼는 일단 공문을 요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얘기하기를 형, 월요일 날짜 공문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주민 대표를
협의체를 구성할테니, 전문성과 대표성을,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주민
대표를 보내라. 전문성이라는 표현을 넣어달라 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그
렇게 써갖고 보낼테니까 추진위에서 공문 받아갖고 해서 들어와라 그래갖
고, 그다음에.

정영학 예, 그다음에 예보미팅

남옥 예보미팅 그거는 화요일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얘기해야겠다 그건

정영학 그럼, 미를까요?

남옥 애를 얘기하다가 다른 다른

정영학 예, 오케이. 그거는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거기 막 기다리는 것 같더라
고요

남옥 예, 예, 예 그다음에 실무자 미팅

정영학 네네

남옥 실무자 실무협의체 미팅은 공문 보내고 나서 하자 하더라고요. 휴가갔다
와서 공문 보내고 휴가갔다 와서 하자 하는데,

정영학 네네

남욱 제가 형이 대표로 들어와서 다 정리하실 겁니다 했더니, 알아서 해. 알아서 해 들어오시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네요.

정영학 예. 아. 하여튼 대표님 만나봐야 돼요 (하하하)

가 불당경찰서 [전국영, 324면]

남욱 그다음에 인제 경찰문제 어제, 인제는 이렇게 다 정리됐습니다 형님. 서장 결재 나왔습니다. 뒤질겁니다 했더니, 응, 역시 깔끔하게 일 처리 하는구나. 이건 재창이 형이 한 일입니다. 응, 그래, 그래. 확실히 선수들은 선수들이다. ↳ 정재형

정영학 (하하하) 다행히 칭찬 받아서 다행이네요

남욱 그러면 검찰만 문제 안되게 케어 잘해 나중이라도. 형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미래신도시도 저희 안드러나고 저희 뒤에서 조각만 할거고, 제삼자들 내세워서 진행해서 할거니까 회사도 문제 안되는, 그냥 들춰봐도 문제 안되게끔 깔끔하게 정리해서 진행할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구조 짜갖고 올게요 제 입맛에 맞게. 그랬더니 형,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5:5로 쉐어 했죠?

정영학 예, 그거 있어요 예. 그 보고서 있어요.

남욱 이익이 8:2가 아니죠?

정영학 예. 5:5

남욱 5:5. 이익이 5:5죠? 이익이

정영학 예. 예 8:2일 수도 있어요 한번 제가 보고서를 볼게요. 더 많이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남 옥 그래요?

정 영 학 예.

남 옥 그거는 하남에서 저거를 했기 때문이죠. 토지를 댔기 때문에.

정 영 학 하남에서 토지를 ~~공~~ 아주 싸게 댔어요.

남 옥 그거는 8:2라면 그거는, 그거 인제 다른거하고 비교해서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만들지는 마라. 다른 현장하고

정 영 학 네

남 옥 특혜를 준다는 이미지를 줘서는 안된다

정 영 학 특혜 안된다, 네네

남 옥 예

정 영 학 여기는 특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남 옥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8:2면, 왜 여기는 5:5고 거기는 8:2인지에 대해서 차별성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정 영 학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남 옥 예, 그거야 뭐 설득하면 되는거죠

정 영 학 네네네

남 옥 아니 형. 일단 형 빈대맛을 보면

정영학

고기 생각이 나요.

유동기

남 옥

그럼요. 절에. 중이 고기맛을 보면 절에 빈대가 안남아나요 맞죠?

정영학

맞아요 그런데 아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남 옥

조심만 하면 되죠

정영학

네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꺼 그다음에 하여튼

남 옥

우리꺼 일단, 형 일단 위례 꺼. 우리꺼 우리꺼 진행하고, 위례꺼는

정영학

여기는 뽀찌예요. 뽀찌

남 옥

아니 어쨌든 지분참여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정영학

제 생각에 38% 했다가는 은 동네 소문 날것 같고

남 옥

아니 그건 안되고요. 형 어떻게 설명했냐하면, 재무적 투자자 한 팀 더 끌고 들어올 겁니다 형님. 밖에서 보기에 37%가 들어오면

정영학

난리 날 것 같고요

위례끼구는

남 옥

에, 19% 하나 더 들어오고, 저희가 16% 정도 갖고 갈건데, 한 100억 정도 될 겁니다

정영학

네

남 옥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될 건데 이익이. 형, 보험 들었다 생각하세요 4년 후에

정영학 오케이, 오케이.

남욱 예 그렇게 생각해요

정영학 오케이. 똑같은 4년 후에 우리는 이거 하여튼, 잘 하십시다. 대장동 대장동 꺼

남욱 아이 그럼요. 1번이 무조건 대장동이죠

정영학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욱 이게 변죽을 울려주고, 우리건양 어 하고 끌고가면 되죠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남욱 이걸 이럴 수 있습니다.

정영학 예

남욱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문내용도 약간 뭐 주민 이렇게 보낼게요 하다가, 다 끝나고 나서는 한번 더 꺼냈거든요. 요렇게 바꿔주세요 했더니, 응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니까, 알았대요.

정영학 (하하하)

남욱 이렇게 해야 돼요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남욱 형, 요번에 그냥 휴가 갔다 오시고요, 갔다 오시면 제가 돈 좀 만들게요 다시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욱 알았다 알았다. 요렇게 됐습니다 형님

정영학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욱 네, 들어가십시오.

정영학 예보 것만 한번 체크 좀

남욱 예. 체크를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정영학 그다음에 저기 중부청에서 조사가 통지가 왔어요

남욱 우리요?

정영학 예, 다안을. 다안을.

남욱 예, 예. (끝)

○ 통화일시 : 2013. 8. 12. 오후 4:01 (53초)

○ 통화자 : 정영학, 남옥

남 옥 7백만원 갖다 줬어요.

정영학 뭐 지금까지요?

남 옥 지금까지요.

정영학 얼마요?

남 옥 3억 4,700만원.

정영학 많이도 줬다

남 옥 줄라 많이 준 거예요, 형.

정영학 예. 예.

남 옥 원래 처음에 3억에서 플러스 1억2천 붙은 거 아닙니까.

정영학 예. 예. 예.

남 옥 예. 그래갖고 4억2천 중에 3억 4,700만원 갖다 줬죠. (...) (to 유동규)
많이 줬죠, 형.

그거, 그것만 안 줬어도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을 거예요.

정영학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을 것 같아요. 한참동안.

남 옥 그렇죠. 그럼요.

유동규
등분구액
2013. 3. 20 - 3억
2013. 6. 30 - 1억
2013. 8. 29 - 2천만
= 4억2천만원

정영학 대신 큰 거 얻었잖아요.

남욱 아 어떻게 해서든지 위례신도시는..
아니 근데 (...) 그것 뒤, 그런 약속을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정영학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약속은 반복할 분 같지는 않아요. 예.

남욱 예. 그거를 그렇게 했다가.. (끝)

0 녹음일시 : 2013. 8. 12. 오후 4:02 (44초)

0 통화자 : 정영학, 남옥

남 옥 하면 된다. 못 받지 않으니까, 그건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 영 학 그래서 공모형 하는거죠

남 옥 그렇죠. 그러니까요

) 정 영 학 아니면 뭐 수의계약 해버리고 나중에.. 누가 뭐라 하겠어요?

) 남 옥 그러니까 본인이 짱구 돌려갖고 오늘 얘기하는데 두개를 만들어가지고

정 영 학 예, 예. 우리는 ^{나 무동규}한 세 개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개까지.

남 옥 그렇죠

정 영 학 예.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해봤으니깐요 이거는.

남 옥 그러니까요

정 영 학 예, 잘 알겠습니다

남 옥 예. 그렇게 아세요

정 영 학 예, 아이구,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스케줄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요 정도에서 마무리.

남 옥 예, 예. 이따가 7시에서 만배형 그 관양트리 개네들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나보고 뭐. (끝)

0 녹음일시 : 2013. 8. 27. 오후 4:48 (7:39)

0 통화자 : 정영학, 남옥

(00:00~2:40)

남 옥 1억이 나오죠 그게

정 영 학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도 그 저기 1억 받은걸 알고 계세요? 저기를. 이한수 국장이 받은거를.

남 옥 제가 얘기했죠

) 정 영 학 아, 우형이. 우형이. 그게 우형이한테 복사본이 있을 거예요

) 남 옥 아유, 우형이가 돈 써준거 갖고 있어요

정 영 학 현금이잖아요 현금. 아, 송금했어요?

남 옥 아니요, 이미 갖고 있어요 저기를. 뭐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받아서 갖고 있어요. 재학이 이름으로 받았어요

정 영 학 아.

남 옥 우형이한테 말 맞추면 돼요. 4천만원

정 영 학 아니 아니 그거는 없어야 되는 소리니까 인제

남 옥 물론 그렇죠

정 영 학 예, 예

남 옥 나중에 문제되면 씨 뭐.

정영학 아니 아니

남욱 하여튼 요점은 그게 아니고, 요점은 그게 아니고. 또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거리를 좀 뒤야 될 것 같아서..

정영학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남욱 예

정영학 그다음에 나중에 하- 하여튼 관계회복 좀 해야돼요 위원장님하고 재창이고 뭐

남욱 아유, 그럼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정영학 뭐, 하나 받아야 겠더라고.

남욱 예. 다른건 아니고, 그거는 황 대표님 잠깐 뵈러 가는 건데, 구조는 설명을 드렸어요. 위원장님 그래도 어쨌든 현장은 황 대표가 맡아서 하는게 낫지 않겠나

내가 사업관계에 대해서 알가알부할 일은 아니지만, 일이야 업무적인 부분은 회사에서 정해 따르는 부분이지만, 현장쪽에 대한 관리 만큼은 하여튼 황 대표가 신뢰를 갖고 잘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얘기는 하시더라, 가능하다면, 내 의견이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좀 정 대표가 현장을 좀 맡아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현장 요 요 완전히 조합 뭐 하고 요런 부분만큼이라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황 대표님 만나서 좀 설득을 해보고

정영학 만나보세요 예, 만나보시고, 저도 사업을 위해서라면 그냥 그 사업만 생각하고 그냥 뭐 좀, 사업만 생각한다면 괜찮을 것도 같아요.

남욱 아니 어차피 뭐 어쨌 에이엔티 사장 형이 맡아서 하시면

정영학 아이구, 그거 만나서 하는게 맞는 것. 봐서 그거는. 예, 예

남욱 이거 그래놓고 현장만 이쪽에다 맡겨놓으시면, 그러면 얼추 맞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뭐 그러면 형 뭐 부딪치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없을까. 모르겠어요, 형 의견이 중요하신 거까요 그거는

형이 구조를 좀 만드시는대로 제가 조각을 할건데.

좀 좀 그게,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뭐 대표님이.. (끝)

정영학

남욱

0 녹음일시 : 2013. 8. 30. 오전 11:12 (10:09)

0 통화자 : 정영학, 남옥

(00:00~5:10)

남 옥 오픈하면, 9월 9일날 오픈하면 바로 갈거니까.

정 영 학 네네

남 옥 응, 그렇게 해.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형 말씀하신거. 그 법
인 하나 만들어서 외국으로 돌려서 할려고 하니 요새 시끄러우니까. 그냥
말은 이렇게 했어요. 법인 하나 만들어서 형 거기다가 한 100개 정도 형
목으로 해놓겠습니다. 필요할때 빼서 쓸 수 있게끔, (...) 목으로, 형 개인
목으로. 그러면 돈을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부터는 해서 쓸 수 있으실텐
데, 돈을 빼서 쓰실때 상의하고 쓰셔야 되니까. 혹시 어쩔지, 막 빼쓰시면
문제될지 모르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상의를 드릴거고, 말씀을 드릴거고,
하여튼 그냥 이렇게 듣더니, 그것도 너 알아서 해. 너한테 다 맡길거니까.
형하고 그런 뭐 굳이 얘기 할 필요 없고, 니가 알아서 다해. 알았어요 형,
그렇게 할게요. 내가 그냥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그랬고,
문제 없죠. 문제 없죠. 갈거야 무조건.
그다음에 그 트위터 얘기 잠깐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 기다리라 했대요. 고소하겠다고.

정 영 학 예?

남 옥 고소하겠다고 지랄 지랄 했대요 그 사람을. 잡아서

정 영 학 누가요?

남 옥 유동규 본부장이

정 영 학 아..

남 옥 트위터. 트위터

정 영 학 트위터. 예, 예, 예

남 옥 잡아서 고소하겠다고 시장님 앞에 가서 설레발 좀 쳤나봐요. 지랄 지랄했나 봐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웃으면서, 야 별일도 아닌데 그냥 넵뒤라, 넵뒤.. 그리고 그냥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정 영 학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네요

남 옥 예. 그렇게 넘어갔다 하고,

정 영 학 네네네

남 옥 뭐 돈은 필요한가 봐요. 필요해서 계속 어제도 종식이 먼저 보내고, 야 하여튼 뭐 오늘 일단 뭐 방법이 없어요. 일단 알았다고는 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가긴 될 가. 씨. 2시까지 와라 그랬는데, 본인도 못나올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갔고.

정 영 학 예예예

남 옥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지금 당장 좀 필요한 것 같고, 구해서 줘야지 뭐. 빨리 그 정도 상황, 그 정도 상황이고, 뭐 일은 문제없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정 영 학 예, 예예

남 옥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밖에서 봤을 때,

정 영 학 예, 문제만 없도록 해라

[위례지구 응모사항 관련하여] → 남욱

남욱 예,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다. 내부적으로 니가 알아서 하면 돼. 할 문제고 (...)들이 너 결정한대로 다 해줄테니까, 그렇게 직원들한테도 너 준 일정 대로 그렇게 진행하게끔 그런 구조로 진행할 거라고 다 서류 다 줘놔서 애 기해 왔으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는 절대 차질없이 해라. 요 정도입니다 형님.

정영학 아..

남욱 요건 무조건 가긴.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남욱 뭐 지금까지는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정영학 오케이 오케이. 우리만 준비하면 되겠네요

남욱 예, 예

정영학 아이구,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남욱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해요 형. 그 얘기를.

정영학 예.

남욱 9월 9일 넘어가면, 그때까지만. 야, 형 그때까지만 조용히 있자.

정영학 예, 예. 며칠 안남았어요.

남욱 예. 9월 9일 넘어가면 내 세상이다. 그래서 어제 제가 형한테 그랬어요 형 여기와서 술 드세요. 세령이 앉혀놓고, 여기와서 불편한 자리 뭐 기자들.. 여기와서 술 드세요. 어제 그냥 질려버렸어요 내가. 술 드시고, 그러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까. 성남에, 성남바닥 뻘한

데, 형님들 형도 손님들 필요하면 여기서 드시고 가세요. 아 대금 그럴줄 알았더니, 혼자. 혼자선 올게. 손님은 됐고, 혼자선 올게. 그러더라고요.

정영학 (하하하) 혼자~ 술도 잘 드세요?

남옥 술 많이 먹어요 여기, 형.

정영학 아. 네네, 잘 알겠습니다

남옥 그 정도입니다

정영학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남옥 그 얘기는 좋았어요 그 얘기는

정영학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장에 들어가는 시점이 4월에서 6월이면 좀 빠르고요, 이게 배당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3년 후인데.

남옥 예.

정영학 하는 데까지 해보십시오.

남옥 예. 나중에 문제도 미루면 되죠. 구조가 요렇게 됐습니다 하고

정영학 아 그리고 사인도 맞으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받아야죠 뭐 ✓

남옥 어디? 어디?

정영학 재창이도. 설득해야죠.

남옥 아 그렇죠

정영학 이거는 설득이 아니라 그냥, 아예 처음부터 빼놓고 시작을 해버려야죠.

남욱 하여튼 말 뭐 하여튼, 예 예 그건 뭐 얘기해주고,

정영학 대놓고 해야죠. 해놓고. 아니 나 이렇게만 되면 쥐 놓으면 세대수, 우리 이쪽에서는 세대수가 그렇게 날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오히려 잘된 것 같은데

남욱 그렇죠 형님. 일단 쥐어놓으면.

정영학 네네네

남욱 표현이 그렇죠. 그런데 어제는 그냥 막 그, 진짜 형 동생처럼 지내자.,

정영학 네네네네

남욱 서로 도와주면서 살면 되지. 그거야 성화를 내? 알겠습니다.

(6:23-8:40)

정영학 어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된 것 같고요.

남욱 예, 예

정영학 진짜 오늘 빈손으로 가도 돼요? 걱정이네.

남욱 아니, 갈수가 없죠. 지금 어떻게 가겠어요? 이거 돈이 없는데 그냥 전화해서 알아보고 있다 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정영학 빨리 대책 좀 찾아보십시다

남 옥 예.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정 영 학 오늘 그러면, 저기요.. 5천?

남 옥 아니요, 2천만원만 일단 해달라 그랬는데, 아유 뭐 아니 뭐 복잡한 얘기죠. 예 뭐 사연도 구구절절해요. 돈을 안주니까, 돈을 필요한 사연도 구구절절해요 막. 그러면서 그리고 뭐 한 6천8백만원인가 남았잖아요

정 영 학 예, 예

남 옥 그런데 뭐 어제는 8천만원 남았다고 우기더라고요. 6천8백만원 남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8천만원 남았어. 그것만 주면 일단 돈 달라는 얘기 안할 수 있어. 해주라고 그랬어. 그거 갖고도 한 10분 실갱이 했어요. 형, 6천8백만원.. 계산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아유.. 야 받은 놈이 8천만원 남았다는데 왜 자꾸 씨 우겨 막. 알았어요 알았어. 아니 (뭐 그게 중요한건 아니니까 돈 구하면 금방 해드릴게요.)

정 영 학 예, 그렇게 하십시오. 헤드십시오 그냥 편하게.

유동규 보보강

남 옥 그거는 뭐 그래갖고 일단은 그 정도 얘기했고.

정 영 학 네네네네

남 옥 그리고 계속 밤에 그양반 노래 들었고, 아따 노래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하더라.

정 영 학 예-

남 옥 아, 여자에들이 싸더라고요 질질

정 영 학 아, 그래요? 아.

남 옥 여자들이.

정 영 학 그리고 거기에 또 여자들이 이쁘잖아요

) 남 옥 예, 그럼. 그 가게 애들이 이쁘죠 여자애들이

) 정 영 학 거기 이쁘고, 성남에도 못본 애들일 거예요 아마

) 남 옥 그러니까요.

정 영 학 필이 꽃혔을 수도 있어요

남 옥 거기다가 막 가슴 까고 막 이러니까.. 게임하면서 막 그러는데, 일단 제가 막 뭐 그, 엉덩이도 보여주고, 부랄까봐 자식아. 아니 뭐 못할 것 없죠. 야 만져봐. 한번 막 이러고, 그런 분위기가 됐거든요 여자애들도 나중에 취해갖고, 야 너도 야 가슴 한번만 보여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응 알았어 오빠. 엄청 막 까고.

완전히 3류 술집 돼갖고, (하하하)

정 영 학 아.. (끝)

0 녹음일시 : 13. 9. 13. 오후 6:54 (5:18)

0 통화자 : 정영학, 남옥

(00:00-3:00)

정영학 아 예, 여보세요?

남 옥 아 예, 형님

정영학 예, 예, 예, 예 예

남 옥 식사?

정영학 아 예 밥 먹으러 왔어요 논현골프장 근처

남 옥 아, 골프장 근처요?

정영학 예예예예. 잘 끝나셨어요?

남 옥 어, 일단은 뭐 예. 추석 지나고 23일날 마무리 해주고 뭐, 좀 더 달라는데

정영학 (하하하) 23일날. 예. 잘 알겠습니다

남 옥 일단은 1년이 그거 뭐 대충 추석 지나, 일단 추석 보내세요 일단 그래놓고
요, 일 얘기전에 어제 뭐 하여튼, 아 씨발 하여튼 그 뭐 일 얘기만 하면
23일날 저녁에 유한기 본부장하고 저녁에 보자.

정영학 아 예예

남 옥 유한기 저녁에 8시반에 가게에서 셋이 술 한잔 하자.

정영학 아.. (하하)

남 옥 그 다음에 그때 좀 하고, 돈도 어쨌든 갖고 와라.

정 영 학 네네

남 옥 다음에, 그때 지금 이렇게 하고, 유한기 본부장이 LH공사 쪽에 라인이 많으신가 봐요

정 영 학 응, 괜찮으신가 봐요

남 옥 예, 그래서 지금 구도를 공사가 직접 토지를 갖고 오는 구도를 협의중이시래요 LH공사하고.

정 영 학 아 예예

남 옥 무슨 말씀인지.. 그거 인펙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 영 학 공사가 직접 토지를 가져오는 구조라.. 그건 무슨-

남 옥 성남시가 받아다가 공사를 주는 구조에 (...)

정 영 학 공사가 바로 가져와도 돼요 법에 가능하도록, 택조법이 가능하도록 돼있어요

남 옥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대요

정 영 학 예.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남 옥 사업본부장이. LH공사 사업본부장.

정 영 학 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남 옥 그러면 23일날 이거 지금 돌리고 있다

정 영 학 아. 저기로? 공사로?

남 옥 돌리고 있으니까.

정 영 학 경섭이가.. 경섭이랑 이야기 했던 부분이 그게 가능하면 참 좋네요

남 옥 그래서 23일날 스케줄대로 진행하고 있으니 23일날 만나서 협의한 다음에 일 얘기 좀 해서 일정 잡아서 25일쯤에 영업 발주하자

정 영 학 아 예 잘알겠습니다. 잘 됐네요

남 옥 25일날 그 서방풍력발전소를 25일에서 그때 5, 6, 7중에 하자 해놓고, 어 디로 할거나 최종적으로 해서 결정난건 아니지만 포스코가 유력합니다.

정 영 학 예, 예, 예

남 옥 해놓고, 우리가 무조건 니 거래인들한테는 니가 다 해야 돼. 용역발주하고 니가 풀어줘야 되고 니네가.

정 영 학 예, 예

남 옥 그 뭐, 한신평이 될지, 뭔지.. 한신평이 될지 어디가 될지 그것도 붙여야 되고

정 영 학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남 옥 예, 염려하니까 하여튼 딱 다 스탠바이 해놓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정 영 학 예, 예. (끝)

0 녹음일시 : 2013. 9. 24. 오전 12:48 (5:50)

0 통화자 : 정영학, 남욱

남 욱 유 본부장님이 표정을 딱 봤더니, 아닌데 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정 영 학 아.

남 욱 유동규 본부장은 안받아도 돼. 상관없어. 상위법에 그거는 공공사업으로 돼있어 라고 얘기해서, 제가 얘기를 안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조례에는 돼 있잖아요.

정 영 학 저기 돼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에가.

남 욱 공기업법에는 그게 권고사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정 영 학 어, 아니예요 시 의회 결의, 결의라고 그랬어요 결의

남 욱 그랬는데

정 영 학 출자. 출자시 결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남 욱 예, 그랬는데, 그다음 뭐 버전이 뭐냐하면, 의장님하고 상의 드렸는데, 10억 미만은 결의없이 하는 걸로 조례를 바꾸기로 했다. 의장님한테 말씀드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 영 학 그,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에가. 상위.. 지방공기업법에가 출자시 무조건 결의를 받아야 한다 조항이기 때문에, 이건 강제조항인데요.

남 욱 아. 저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본인은 권고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 영 학 바뀌었어요.

남 옥 예. 그래서 유한기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표정이 아 아닌데.. 하는 표정을 지어서, 그거는 그냥 유한기 본부장님하고 상의하면서 진행하면 되죠.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시기만, 시기만 혹시 인제 공모하기 전에 해야 되는지?

남 옥 그건 모르더라고요 다 몰라요. 둘 다 모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공모하기 전에 해야 돼요? 출자할 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 안받아도 되는데.. 그러더니, 어 10억 미만은 안받기로 했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 영 학 (하하하) 받아야, 받아야 돼요. 경섭이랑 둘이도 결론이 언제 받을 것 같고 둘이도 둘이서 결론이 공모해놓고 출자할 때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에 대한거 둘이 결론이고,

남 옥 그래도 아무튼, 그런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이 팀들이 대장동 팀인데 대단하다.

정 영 학 아, 저기서요?

남 옥 예. 대단하다. 대단한데, 대단한데 진짜 대단한 사람이 애는 약간 어리버리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정 회계사, 정영학 회계사 라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앉았는데, 아 제가 얘기도 안했는데,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너도 들었지?

정 영 학 아이, 무슨 무슨-

남 옥 앉자마자.. 그때 그러니까 유한기 본부장님 내가 표정을 이렇게 봤는데, 표정이 약간 아는 듯한 표정 있죠 아 누군지 아는 표정.

정영학 아이구, 그냥- 저를 절대 띄우시면 안돼요. 말을- 무너져요

남욱 띄우는게 아니라요 형님, 띄우는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분위기로, 되게 분위기 좋게 마무리 잘 했습니다. 술도 많이 안드시고 들어가시고요.

정영학 예. 유한기 단장님이 치밀할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아요 두분이.

남욱 아 그런데 내공 있네요

정영학 내공 있죠?

남욱 내공 있으셔. 이야 세시간, 네시간을 한 말씀도 안하고 웃으면서 앉아 있길래요,

정영학 아 그래요?

) 남욱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로, 빨소리 개소리를 한 네 시간을 했는데, 그 재미 없는 얘기를 네 시간을 저도 정 자세로 앉아있었고요, 담배도 안피우고

정영학 네

남욱 그런데 저 양반도 그냥 웃으면서 예, 예, 예,.. 그런데 완전히 군대, 완전히 갑을 관계인데

정영학 의장님. 아 두분 사이가? 아~~ 아~~ 아, 인제 눈에 보이네

남욱 완전히 갑을관계요.

정영학 레벨이 이게 같은 레벨이 아니꼬?

남욱 같은 레벨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계속 부탁하는게, 실무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정무적인 것만 챙겨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계속

해요.

정영학 아

남옥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이것만 하세요. 실무만 책임지고 애네들 놓치는 것도 있을수 있으니 이것만 챙기세요. 그리고 그 대신 빨리 가야되니까 이렇게 갈려고, 애네들한테 맡겼으니 애들이 세팅 다 했으니 들어보시고 빨리 진행하세요. 대장동 분리해서 이렇게 갈거고, 이렇게 빨리 할거니까, 이렇게 해서 각자 먼저 가세요.

정영학 응, 오케이, 오케이.

남옥 불편하면 제가 저기 불편하면 저한테 미리 미리 얘기하시면 제가 다 해결할 거니까 하세요.

정영학 유, 유? 유 분이?

남옥 예

정영학 아.. 호칭은 뭐라고 해야 돼요?

남옥 그냥. 그냥 단장님 뭐 하고 존댓말 하는데, 말만 존댓말이지 거의 뭐, 완전히 뭐 갑을 관계예요. 여기는 완전히 분위기가.

정영학 아, 유한기 단장님.

남옥 예.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남옥 예,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형님

정영학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렇게-

남옥 그래서 제가 더 그래서 정중하게요

정영학 순서가 정해져 버려야 우리가 편해요

남옥 그렇죠.

정영학 비슷 비슷하면 아 이걸 풀 때리는 게임이 될수도 있어요

남옥 아 완전 형, 그런 그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정영학 사고죠 사고.

남옥 예

정영학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게 안 앞서져야..

남옥 예

정영학 안 앞서져야 우리는 편하죠

남옥 예. 절대 그런..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우리 돈 들어오면 축하파티 한번 해야 되겠네요

남옥 예, 형님.

정영학 (하하하)

남옥 하여튼 뭐 그 정도입니다 형님

정영학 네네네. 아이구,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아이구, 스트레스이겠더라고.

남욱 즐겁게 즐겁게. 아니, 오늘 즐겁게 먹었습니다. 그냥 허리가, 네시간을 앉아있었더니 허리가 좀. 정 자세로 네시간을 앉아있었더니..

정영학 예, 아이구, 고생하셨습니다

남욱 예, 형님.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십시오 형님

정영학 네네, 잘 알겠습니다

남욱 준비 다 됐으니깐요 형님, 내일 일어나서 전화 올리겠습니다 형님

정영학 네네네네 예, 잘 쉬십시오.

남욱 네, 주무세요. 형님

정영학 네.

남욱 네.

정영학 예, 들어가십시오.

남욱 네. (끝)

0 녹음일시 : 2013. 10. 4. 오후 5:49 (6:39)

0 통화자 : 정영학, 남옥

(00:00~4:14)

남 옥 뭐 그걸 재창이 형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잘라먹었다 내가

정 영 학 (하하하)

남 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 영 학 안그러면 그렇게 돼요?

남 옥 뭐, 너무 그러거나 저러거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영 학 아 제가.

남 옥 제가 잘라 먹어도 확인도 불가능할테고

정 영 학 아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화기에 대고 지랄 지랄하는 걸 들었잖아요 안 갖고 와 옆에서

남 옥 예, 예

정 영 학 아니, 그때 한번 들려주신 적 있잖아요? 저기 어디서

남 옥 예, 사무실

정 영 학 유 유 유.

남 옥 예.

정영학 갖고 오라고 난리 치는걸 제가 옆에서 들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저거 중간에 슈팅하기도 쉽지 않겠구나 (하하하)

남옥 슈팅할 것 같았으면요 제가 머리 좋게 했어요
저도 슈팅할 건가, 슈팅하지 않을 것 정도는 구분하는데요, 슈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정영학 옆에서 아니 제가 들었잖아요. 이새끼가 언제. 아니 그때 어디서 들었더라..
그때 막 그 뭐 하여튼 지랄 지랄하는 것 들었죠 이야, 심하더라고.

남옥 예

정영학 맡겨놓은 돈..

남옥 예

정영학 진짜 돈 맡겨놓은 것처럼 하더만. 빗쟁이 다루듯이 하더만.

남옥 그때 갔어요 예. 그때 위원장님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정영학 아.

남옥 요 며칠 가만히 있는게, 금요일날 그래도 한마디 하잖아. 야 그거 빨리 해결하고 형도 인제 신경 써야 될거 아니냐. 딱 한마디 하더만.

정영학 아..

남옥 위원장님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정영학 예? 아 그래서 조용한 거예요?

남 옥 위원장님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예. 완전히 죽어있어요 아유, 지겨워

정 영 학 아니 아유, 심하더라고. 옆에서 보니까 시달리는거가.
저는 인제 계속 보니까 전화기에 오는거를

남 옥 예

정 영 학 따르릉 하는게, 그 전화기에서 시달리는 걸 들었잖아요 예, 예

남 옥 저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면, 저 혼자 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저 혼자 잘 먹고 잘살려고 하는거면 뭐 형들하고 상의를 해?
조용히 사부작 사부작 하면되지, 셋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아서 하는거죠 제가 앞에서.

정 영 학 아니 그래서 왜 요번꺼를 ^{→ 남옥} 동통비로 안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스트레스
네 나도

남 옥 연금 다가올때 찾는거죠

정 영 학 각자 하자- 자기도 많이 쓰는. 계속 설득을 해요 각자 많이 쓰지 않느냐
각자

남 옥 각자 어디다 쓰는데 그럼너 용처를 밝혀야지 나도 밝히는데
그러면

정 영 학 예. 각자 많이 쓴다, 뭐 안쓰겠냐- 꼭 말하고 쓰는 거 인가요. 지금 이미
많이 썼다 뭐 하여튼 뭐..

남 옥 본래 작전이라니까요 형님 작전이요 작전

정 영 학 아.

남 옥 그런데 제가 안넘어가고 딱 안넘어가고 계속 있으니까 형수한테 가는거죠

내가 꼼짝도 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씨알도 안먹히죠 나한테 얘기 해갖고

정영학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걸 공통비다 요번꺼는

남욱 그렇죠

정영학 아니, 명확히 이야기 했어요 공통비다.

남욱 아유.

정영학 그다음에 저쪽 거는 제가 좀 여유 있으니까, 월급쟁이니까, 그래도 저는 직장이 있으니까, 요거만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 그냥. 이걸 공통비 아 납니다.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는, 내 부담 안드리는 수준에서는. 그렇잖아 요.

그 정도가 제가 일하면서 저 개인 일할 수 있으면서 부담하는 정도, 뭐 사실 원래 그것도 공통비다 그런데 이걸 제가 따냈을 뿐이다 라는 거고, 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인제 계속 일을

남욱 나중에 정산을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그러잖아요. 형님

정영학 예,에 본인은 계속 일을 봐서 인제 피해가 크고 뭐..

남욱 아유 누구는.. 그래서 좀 아유.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된다니까 지금

정영학 다 해놓고 합시다 다 해놓고. 송과 꺼 따놓고, 위례 것 되면.

남욱 예, 그때까지 참을게요 그러면.

정영학 예. (끝)

0 녹음일시 : 2014. 5. 23. 오후 1:48 (4:39)

0 통화자 : 정영학, 남옥

남 옥 저한테 얘기를 안하는 거지.

정 영 학 예? 아.

남 옥 의장님한테 얘기를 안하는 거지 그거는

정 영 학 4천 갖고 될까요?

남 옥 아니면 우리가 그걸 다 해? 본인이 해야지

정 영 학 어디가요?

남 옥 강한구 위원장,

정 영 학 아. 그 스무명, 30명을 사가지고 하루에 한 8만원 20일, 15일 풀로 돌려야 되는데 이게 한 3천만원 넘게 든데요. 이것만 지원하자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남 옥 적당히 하십시오 형님 그러면. 형한테 얘기하신거면

정 영 학 응, 응

남 옥 저는 700만원을 드리기로 했어요.

정 영 학 아.

남 옥 그거 제가 드릴건데, 돈 나오면 뭐 오늘 뭐 월요일날이나 드릴건데 그리고 만배형이 지금 한 4천만원 갖다 주셨어요.

↓
김만배기자,

정영학 아 그러면,

남옥 그건 모르시는 내용이고요?

정영학 예, 요거 요거 말씀 안- 전혀, 전혀. 저도 그러면

남옥 그거는 드리면 안되고. 아니 뭐.. 형, 적당히 적당히

정영학 하는데까지는 해볼게요. 예. 받은 만큼. 오늘 받은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남옥 아유. 그거 충분하고도 남지 않을까 싶으네요

) 정영학 그러니까요

) 남옥 예.

)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 남옥 이거 판단하셔서 적당히 한번 하세요 지금 상황은 섹트는 그래요 형

) 정영학 그러면 굳이. 아. 잘 알겠습니다.

) 남옥 예 하나는 뭐 해서, 형이 한 천만원 정도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2천만원을 다

) 정영학 그렇게 할게요

) 남옥 아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7백만원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건 드릴게요

)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남 옥 예, 형님

정 영 학 좀 했어요 엇그제

남 옥 아..

정 영 학 예, 예 현금으로

남 옥 그거는.. 아.

정 영 학 그러면

남 옥 적당히 해와요 적당히

정 영 학 네네네. 아니 안하면 거기다 뭐라 하실까봐.

남 옥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제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정 영 학 응. 그래요, 아니 뭐 본인이 이쪽은 안했으니까

남 옥 이유가 있는건데 본인도. 아니 그런데 뭐냐하면, 그게 아니고 형.
그거인제 강한구 위원장이 나중에 누구 말을 들겠어요? 그걸 판단하셔야죠
형 이런 일 갈리면 누구 얘기를 더 들겠어요? 강한구 위원장이. 당연히
만배형 얘기를 들겠죠.

정 영 학 김민씨 가라,
그러겠죠.

남 옥 그럼요

정 영 학 그러면 그냥 놔둘까요?

남 옥 적절히 하세요 적절히..

정 영 학 알겠습니다.

남 옥 입장 곤란하지 않으실 만큼만 하시는게 맞을거예요.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확실해졌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 정도선에서 할게요

남 옥 예, 알겠습니다

정 영 학 오케이, 알겠습니다.

남 옥 네, 형님

정 영 학 그 저기는 했어요, 오늘 저기 갔다 왔고, 현장에 천8백 정도 내려 보낼 거고요

남 옥 네네. 아 돈 나왔어요?

정 영 학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시다. 한 천8백 정도 할거고, 우형이는 천만원정도 동인쪽으로는 그냥 하는걸로 아침에.

남 옥 아 그래요?

정 영 학 예, 예

남 옥 통화하셨어요?

정 영 학 아니요, 아니요, 우형이 전화 와가지고 2천2백을 좀 해달라 해서, 그냥 한 천만원 정도만 회사에서 집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 옥 예, 알겠습니다 형님

정영학 그다음에 또,

남 옥 그 얘기는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하네 이 새끼

정영학 예?

남 옥 그 얘기는.

정영학 예

남 옥 저도 아는척 안하거든요 지금 그거

정영학 예

남 옥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하네

정영학 예. 아니 뭐, 해주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남 옥 할까요? 어쩔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만해라. 할까요, 어쩔까요?

정영학 천만원 정도는 해줄 생각이예요 (노) 즈우하

남 옥 예

정영학 그다음은, 아니 뭐 거기는 좀 그래도.. 우리가 원죄가 있으니까

남 옥 알겠습니다, 형님

정영학 예. 또 뭐 다른 사항은 혹시,

남 옥 뭐, 특별한

정 영 학 자금 관련 대해서는 없죠?

남 옥 네네

정 영 학 강남쪽에 그냥 그 계약서를, 고문계약서로 바꾸는 거는 좀 불가능할까요?
가서 한번 얘기를

남 옥 그거는 안된다 얘기를 하시던데

정 영 학 그렇죠? 그거를. 아 그럼..

남 옥 예. 안된다 얘기를 하셨다고요, 양 변호사님이

정 영 학 아예 안된다?

남 옥 예. 왜 안된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 신고를 해서 안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던데, 왜 그런지는 뭐.. 그래갖고 안된다고 딱 짜르시니까 더
얘기를 못하겠어요 제가

정 영 학 (하하하) 네.

남 옥 안돼 그렇게 하면. 신고해서 안돼. 딱 이렇게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정 영 학 세금계산서는 또 이쪽으로 끊어주셨단 말이에요

남 옥 아따, 복잡하네.

정 영 학 예. 한번 같이 갔을 때 밥 한끼 사드리고

남 옥 예. 예 한번 같이 한번 같이 갔을 때 한번 얘기 한번 다시 해보시자고요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네네네

남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학 네, 수고하십시오

남옥 제가 카톡 하나 보내드릴게요 카톡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남옥 예

정영학 예,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예

정영학 예, 수고하십시오

남옥 네. (끝)

0 녹음일시 : 2014. 6. 27. 오후 2:40 (12:38)

0 통화자 : 정영학, 남욱

(7:43-8:00)

남 욱 지금 저기가 검찰 위에서 청와대에서 오더 떨어졌대요. 이재명이 잡으라고.

정 영 학 헐~

남 욱 그래갖고 검찰이 지금 난리인가 봐요. 만배형 도움이 절실해요.

정 영 학 아, 지금?

↓
김만배자 (머니투데이) 변호사 출신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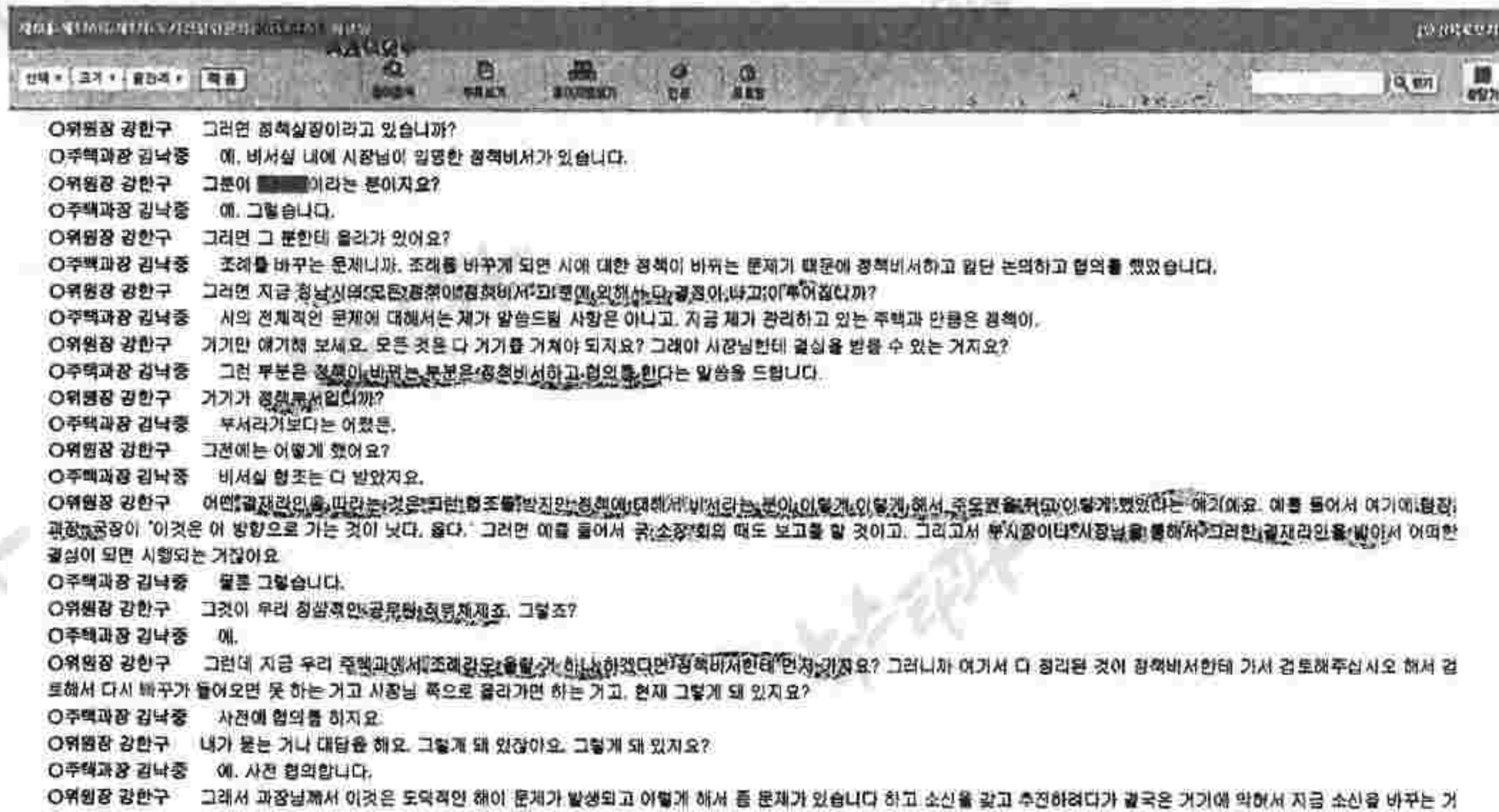
남 욱 예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끝)

1짚. 성남시의 모든 정책을 관여하고 결정에 영향 끼치는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 (2010-2017 성남시장 비서실 재직)

2짚. 이재명 대선캠프 정진상

3-4짚. 정진상 폐북 "드루킹 조작으로 탄생한 문재인 탄핵" 그룹 멤버



○ 통화일시 : 2014. 6. 29. 오전 12:11 (7분38초)

○ 통화자 : 정영학, 남욱

남욱 어저께 그 저 정 실장.

정영학 예.

↳ 정진상 실장 (성명지칭)

남욱 정진상. (1969년생)

정영학 예. 1966년생 → 1966년생

남욱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모여갖고,

정영학 네분이서?

↳ 1969년생

↳ 정진상.

남욱 네분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얘기해서 그러자 했고. 큰형님이시니까. 가만대기.

그래서 만배형이 처음으로 정 실장한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

내가 왜 와서 여기에 이 싸움에 이렇게 깊이 개입을 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고검장 부르셔서 남 변호사 일 좀 도와주

라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올해 이화영 의원, 그다음에 태년이한테 얘기

해서 했는데 잘 안돼서 여기까지 왔다. 니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전

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지요 형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만배형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 정진상 실장

← 김만배가라.

정영학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남욱 그래서 아마 백 누군가 그 몰랐는데, 아마 지금 앞뒤 정황을 제가 추론해 보면, 백 거기가 구속되는 것도 만배형이 손을 안 대고 내비두셨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영학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남욱 얘기를 계속 동규형이 했었거든요. 해달라고.

정영학 예 예 예.

남욱 그런데 구속됐다면서요. 그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정영학 아침에 그 저기, 인터넷에 딱 뚫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예.

남욱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영학 네네네네.

남욱 정 실장이 왜 먼저 그런 얘기 했는지도 아시죠?

정영학 예 예. 오케이.

남욱 잘 아는 선수시잖아요.

정영학 예. 그래 보입니다. 뭐 그렇죠. 말 잘 들어야 들겠네요 이제.

남욱 본보기. 본보기로.

정영학 본보기. 잘 알겠습니다.

남욱 그런 상황이니까, 요거는 그냥, 그냥 뭐 그냥 형만 알고 계십시오.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네네네

유동규 본방상

남 옥 그래서 동규형이 중간에서 다른 사업 진행하는 것 바리케이트를 치실 거 예요. 동규형 이런 어제.. 하여튼 그 얘기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랬다 하고, 그렇게 일 끝. 그다음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시까지 인허가 접수를 안하면 그게 따져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동규형이 어저께 5시쯤 전화가 와서 합의서 저기를 받아와라. 문서를. 그래서 형,

정 영 학 예예. 어떤?

남 옥 아니 그러니까 그 얼마에 하겠다. 얼마가 남는다는 거에 대한 문서를 받아와라. 그래서 형, 지금 그거 일단 알았소. 그리고 지하3층은 200만원,

정 영 학 예예예.

남 옥 나머지는 그러면 총액에서 나누면, 318만원을 나눠보니까요 327만원이에요. 지하3층 200만원으로 했을 때.

정 영 학 네네네.

남 옥 327만원. 그렇게 하니까 또 한 5천만원 더 늘었더라구요. 그래갖고, 합의서를 받아와라. 그랬는데, 뭐 하여튼 정리는 했어요. 김은정이가 그거를. 그래갖고 원하는 대로. 동규형이 318만원에 하고 200만원에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형, 여기서 더 하면 진짜 시간 많이 늘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 이 정도 하고 다음 스텝 가서 또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찼고.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과정에서 얘기를 어제 몽주한테 들어보니까 어제 접수를 다시 못했으면 이게 한달 이상 밀린다네요.

정 영 학 아, 왜요? 아, 심의. 도시계획심의 안 열려요?

남 옥 뭐 하여튼 접수를 해야 사업승인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난대요. 인허가 보류가 들어가면 또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그냥 내비둬야 된대요.

그다음에 컨트롤이 안된대요. 절차상. 동규형 얘기니까 그거는 맞을거고. 그런데 동규형은 그걸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형, 문서하고 사장 사인 받으려면 월요일날 받아야 된다 했더니, 월요일날은 안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늘 무조건 정리해갖고 진행해야지 안 그러면 오래 딜레이가 돼.

그래서 뭐 몽주도 그 얘기를 하고 동규형도 따로 그 얘기를 하길래, 하여튼 그래갖고 어제 정리를 그렇게 했어요. 일단은.

정영학 네네네.

남욱 그 과정에서 유한기가.. 유한기한테 얘기를 했나봐요. 동규형이. 얘기를 했더니 유한기가 '내비두세요. 어렵히, 을 접니다' 이 지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영학 을 접니다?

남욱 예. 다 무릎 꿇고 을 접니다. 400억 받아야 됩니다.

정영학 예에에.

남욱 그러면 분양을 형, 9월 10월에 하면..

정영학 9월 10월이면 거의 이자가 지금 한 100억이 나가겠죠.

남욱 그럼요.

정영학 뭐 한 4,50억에서.

남욱 50억 정도 나갈 텐데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기성이형 때문에.

정영학 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이기성
↑

남 옥 그럼요. 그거는..

정 영 학 거기도 사고 나겠죠. 빌려서 땡겨서 썼는데.

남 옥 그렇죠. 거기도 사고 나죠. 마이너스 날 텐데. 그래갖고 어제 동규형이 막 지랄하는 거예요. 이 병신 같은 새끼가 상황 파악도 못하고 무슨 씨발 그냥 기다리면 온다고 그러고 무슨. 지가 무슨 만만디냐고 막 나한테 막 열을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형이 씨발 쓰재매? 응? 그걸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랬어. 그랬더니, 알았어 새끼야. 끊어! 그리고 확 끊어버리더라고. 어저께.

정 영 학 어제?

남 옥 어제. 하하하. 하여튼 그 아저씨는 참 측도 없고 뭐 내용도 모르고.. 이제 보고도 안해요. 김문기하고 저기가. 이현철이가. 거기다가.

정 영 학 예.. 지금은?

남 옥 그렇게 됐죠 뭐. 상황이. 거기도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김문기하고 이현철이도.

정 영 학 예에에.

남 옥 어제도 그래갖고 유한기한테 보고 안하고 김문기가 독단적으로 그냥 접수, 서류접수 해버렸다 하더라고

정 영 학 아, 저기 사업 사업, 사업시행인가 (...) 하는 거?

남 옥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전혀 저야 뭐 소식을 모르니까.

남 옥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어제 그러고 나서 김은정이가 7시반쯤에 볼 치고 있는데 전화 와갖고 소주 먹자고 그러길래, 나 볼 쳐요. 다음주에 봐. 원하는 대로 됐는데 뭐. 뭘 원하는 대로 됐어? 이 지랄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협박하지 마. 뒤져.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하하하.

정 영 학

네네네.

남 옥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요.

정 영 학

예.. 잘 알겠습니다.

남 옥

예. 하여튼 주무시구요.

정 영 학

네네네.

남 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 잘 될 거예요.

정 영 학

네네. 잘 알겠습니다.

남 옥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정 영 학

그런 것 같애요 이제는.

남 옥

예. 내부까지 깊숙이 밀고 들어가서 나 상투까지 휘어잡았으니까요.

정 영 학

예, 잘 알겠습니다.

남 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정 영 학

그럼 내부도 정리가 된 거네요? 네네, 잘 알겠..

남 옥 예?

정 영 학 내부분제도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거네요? 공사 내부도.

남 옥 그렇죠.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남 옥 정리 잘 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형.

정 영 학 네, 잘 쉬십시오.

남 옥 예, 쉬세요 형님.

정 영 학 네, 고생하셨습니다.

남 옥 밤늦게 죄송합니다.

정 영 학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잘 쉬십시오.

남 옥 예, 들어가세요.

정 영 학 네. 잘 쉬십시오.

남 옥 예. (끝)

0 녹음일시 : 2014. 6. 30. 오전 11:10 (5:39)

0 통화자 : 정영학, 남욱

(00:00~5:00)

정영학 아 저기한테?

남욱 이쪽 내 번호

정영학 응?

남욱 이쪽 내 번호요

정영학 아 아.

남욱 그런데 뭐 무슨 의장 안시켜주면 탈당하겠다 이런 얘기하니까

정영학 네네네

남욱 만배정도 빈정 상하지, 저양반 뭐야 저거.

) 정영학 아 저기한테? 강. 강?

) 남욱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 정영학 강한테.

) 남욱 예

) 정영학 아..

) 남욱 의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남 옥 번갈아가면서 막 저 전화를 바꿔줘갖고, 저 술먹고 약간 취했는데, 좋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만저만 이만저만해서 아마 그런 사태까지는 발생을 안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 분위기가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최선을 다 해서 그렇게까지 시끄럽게 할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 뭐, 인제 요렇게 유하게 제가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정영학 네네네

남 옥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영학 아 그거를

남 옥 께쌌하게. 그렇죠. 께쌌하게 또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인제 그다음 테이블. 만배형은 또 스타일이 있잖아요. 딱 이게 부딪치면, 그거 저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만배형은 안몰려서잖아요 자기고 집이 있어서 또

정영학 아

남 옥 그런데 제가 봐서는 만배형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하는데, 본인이 가호가 상해서 이번에 그저께.

정영학 아 그저께? 저기한테 강?

남 옥 그렇죠 이쪽사람들한테. 아니죠. 이쪽 강 때문에

정영학 아.

남 옥 그 얘기까지는 안하시는데 제가 딱 보니까 그거야 형 지금, 한테 가호가 상했어
아 그러면 형님이 얘기하신, 좀 얘기해주세요 그래갖고 윤대표까지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나 탈당할거야 이래버리니까, 이런 씨팔.. 이렇게 나왔는데

정영학 (하하) 아 아.

남 옥 그래서 서로 다 입장이 있고 서로다 스타일이 있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모든 사람의 기준과 뭐 이런거 다 됐고, 그건 각자의 스타일이니까 됐고

정영학 됐고.

남 옥 어떻게

정영학 가장 사업에 유리한게 누구냐

남 옥 예, 어떻게 사업에 가장 유리하냐 놓고 봤을때는

정영학 그냥 거기에 두사람 의견이 이렇습니다 에 대한거, 아침에 두사람 의견이 거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가야되니까 당분간은.

남 옥 그렇죠

정영학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 자리가. 안정적으로 힘이 있는 분이 하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가, 두사람 의견입니다 했더니 별 의견 없으세요 알았다.. 원래 그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남 옥 아니 그게 형, 안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정영학 예

남 옥 그러면 당론에 따라서 다 같거라고 이게

정영학 예예예

남 옥 우리는 거기에 쟁겨갖고 가서 딱 전반기에 와꾸 딱 잡아서 딱 해먹고, 조

용히 빠지면 돼요.

정영학 아 예.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별 이견 없으세요

남 옥 얼마나 좋아요? (...)

정영학 예

남 옥 그러면 뭐 누가 우리가 ^{임창근}임창근이랑 얘기를 해? 뭐를 해?
각자 지들이 다 알아서 할건데

정영학 아 예

남 옥 그 강한구 위원장이 의장이 됐다 그러면 이제 타켓이 될거란 말이에요 그
쪽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가지로

정영학 네네네 아.

남 옥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제 생각이긴 하지
만,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많이 혜택을 수 있는 구조
가 최고다. 그거죠 뭐. 그러기위해서 어쨌든 인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의
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영학 네네네 (끝)

0 녹음일시 : 2014. 7. 28. 오후 6:18 (6:40)

0 통화자 : 정영학, 남욱

(00:49-6:40)

남 욱 만배형님이 우병우 비서관.

정 영 학 거기가

남 욱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 있잖아요

정 영 학 민정비서관 거기가 세죠.

남 욱 예 예. 얘기 물어봤더니, 하나는 밖에서 얘기가 나왔고

) 정 영 학 밖에서?

) 남 욱 예, 예 건설쪽에 사람들.

) 정 영 학 예, 예

) 남 욱 하나는, 내일 중원 내부에서 그사람 그래서 중원으로 다시 갔는데, 일단은 이게 인제 이렇게 이게 구도를 대충 알고 있어요

정 영 학 예, 예

남 욱 대장동 사업자

정 영 학 아, 애들이?

남 욱 예, 예. 대장동 사업자가 이걸 거래하고 있다 안팎으로 조율하고, 선거도 거기서 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거기 통하면, 거기 통해야 다

일이 진행이 되고 이런 얘기까지 다

정영학 알고 있다?

남욱 예, 예

정영학 거기를 잘 아시나요? 거기가 좀 세죠?

) 남욱 센데. 저기하고도 친하죠 양 변호사님 하고도

) 정영학 됐네 그럼. 예예예 ↳ 양재식 변호사.

) 남욱 아니 그런데 그걸 알 수 없죠.

) 정영학 아 그렇죠

) 남욱 지금은 조윤선이가 직접 오산을 갔답니다. 저기 정무수석이. (하하)

정영학 하~

남욱 그래갖고 만배형, 제가 정석천이 만난 것 때문에 만배형이 계속 뭐라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하여튼 만배형 알, 모두 야 다 스톱

정영학 다 스톱. 오케이

남욱 예, 핸드폰도 갖고 오고 갖고 왔어요 제가. 갖고 와서 뽐냈는데,
일단 하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일단 다시 또

정영학 예, 예, 예 저도 어떻게 웬만하면 다 자료 없애야 되겠네요 뭐가 좀.. 아-
뭐가 있을까요

남 옥 뒤.. 저는 딱게 문제가 아니라 저기가 딱 같아요. 저걸 털까봐 위례를.

정영학 아..

남 옥 그게 이쪽은 형, 방어가 가능해요 전혀 저기될게 없어요

정영학 예예예예

남 옥 예예

정영학 아..

남 옥 그런데 그

정영학 피엠.

남 옥 뭐 그런 것들 처음에 이게 뭐 사찰 때부터 해갖고, 만배형이 좀 겁줄려고 저한테 오버해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내가 원체 겁을 안먹으니까. 지금 그런거 있어야지요. 만배형이 걱정이 되니까

정영학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거기도 만배형님도 신중을 예

남 옥 네

정영학 그 피엠쪽은 저나 두사람은 괜찮아요. 들어, 집어넣은 돈이 많잖아요

남 옥 네네

정영학 저하고 남 대표 쪽은

남 옥 선정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없겠죠 뭐 어차피

정영학 그거야 선정과정은 입찰을 했고 그때 당시는 위례가 다 미분양이었어요. 아무도 안들어왔고, 중요한 포인트는 미래에셋에서 부결이 됐고, 현대증권에도 부결이 됐고, 어쩔 수 없이 부기 구원 뜻으로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부결된 데이터들은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부결이 된 사유가 있으니까.

남 옥 그것까지 뭐 하여튼

정영학 예예. 저는 뭐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여요

남 옥 그런데 제 개인적인 만배형까지 얘기 안하셨고, 저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사람 만나지 마라 더 이상. 니 이름이 계속 어디 다 거론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건 조금 만배형이 걱정이 되니까 옆었어. 그건 제가倪양스 들으면 알잖아요

정영학 예예

남 옥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사람을 안 만나냐. 그런데 인제 뭐 정석천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라는 취지예요.

정영학 아,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남 옥 예. 그리고 일단은 정무수석이 직접 오더가 온거는 맞고요

정영학 아..

남 옥 청와대 오더는 맞고,

정영학 그러면 세조

남 옥 그러면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을거다 예요

로그인
홍원상 기자 한상혁 기자

입력 2014.08.19 03:00 | 수정 2014.08.19 0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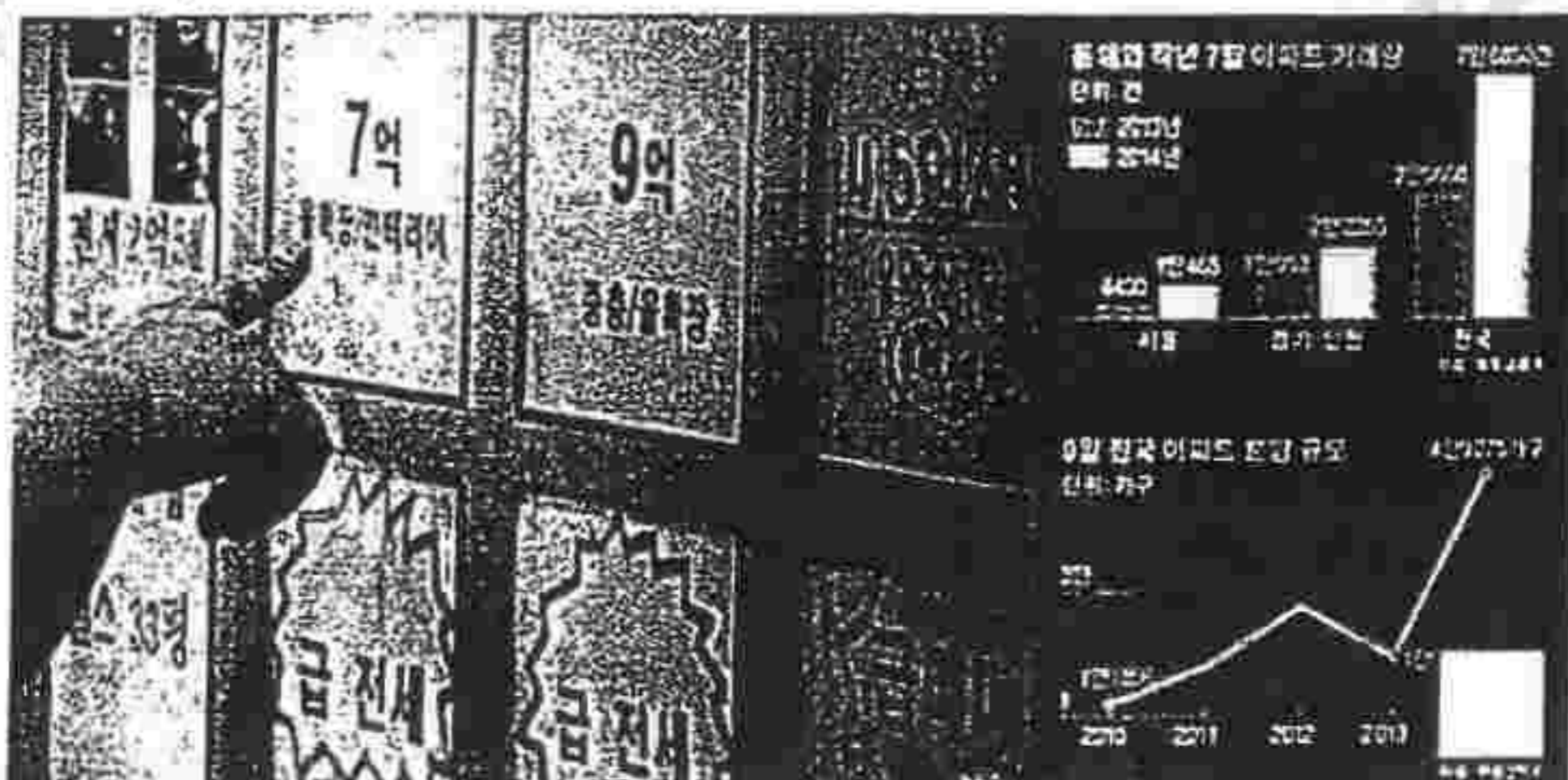
호반건설(서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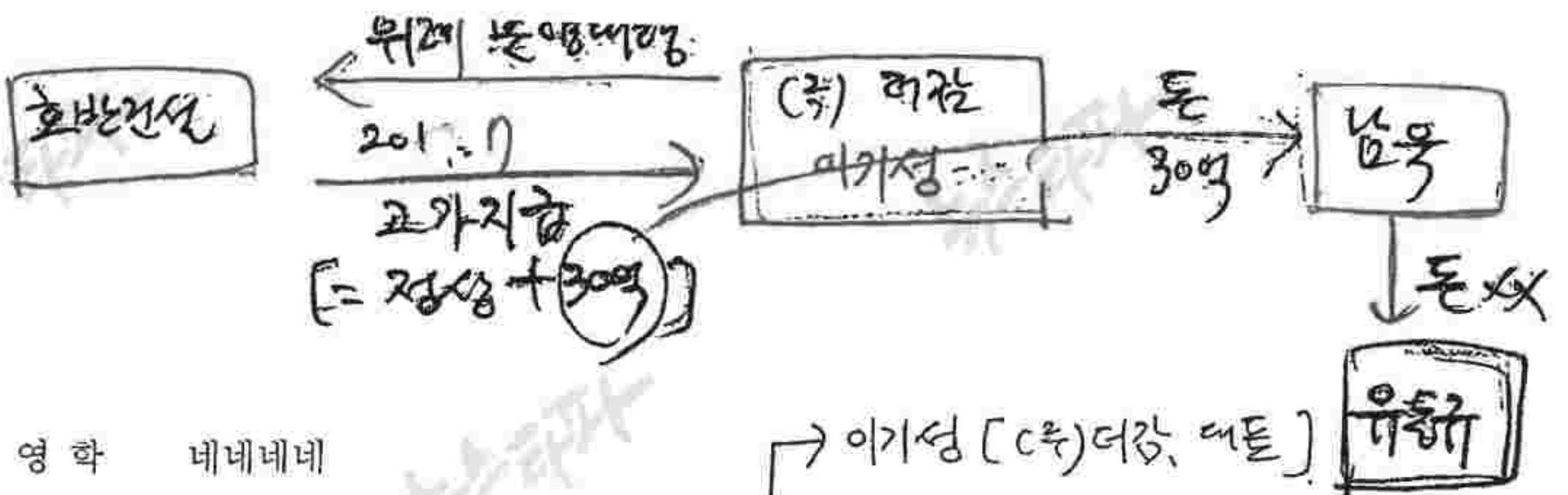
이달 8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문을 연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모델하우스. 평일 낮인데도 모델하우스 앞에는 입장 순서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100m 정도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 하루 동안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은 9000여명. 분양 성적도 좋았다. 1순위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 30대1로 전(全) 주택형을 마감한 것. 분양 대행 업체 '더감'의 이기성 사장은 "부동산 비수기인 여름철에 분양했는데도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에 기대 이상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에 힘입어 구매 심리가 회복되면서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일제히 개선되고 있다. 2개월 연속 감소했던 주택 거래가 늘고 집값도 오름세를 탔다. 경매 시장은 여름 비수기에도 투자자들로 북적댄다.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아파트 신규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거래 늘고 집값 상승세도 뚜렷

이달 11일 서울 동부지법 경매 법정,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아파트(전용면적 85㎡)가 매물로 나오자 입찰에 참가한 응찰자 19명이 단상 앞으로 우르르 몰려나왔다. 이 아파트의 낙찰 가격은 8억8800만원. 감정가(9억원)와 맞먹는 수준에 팔렸다. 부동산 경매 정보 업체 '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8월은 여름 휴가철인데도 이달 경매 한 건당 평균 응찰자 수만 8.1명으로 올해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영학 네네네네

남옥 그런데 이쪽은 뭐 그래요 뭐 뭐, 기성이 형하고 나도 한참 얘기했지만, 기성이 형만 얘기안하면 되죠.

정영학 예예 예예

남옥 그런데 기성이 형은..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하여튼 이따가 뵙고 형님

정영학 예, 예

남옥 사람 만나고 이따가 좀 뵙고

정영학 9시까지 갈게요 9시까지

남옥 예 예

정영학 재부원을 해서 가는게 맞겠죠 웬만하면. 호즈끼스 찍어가는 것 보다

남옥 그러면 더 좋죠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아니, 다 됐어요. 나는 혹시 오시면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남옥 아..

정영학 그래도 이것 좀 보셔야 뭐가..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중요한 자료니까 혹시나 한번 좀 보시라고 해서

남옥 이게 호반도 이게 수사가 되면 바로 땡수 있어요.

(위)
2014
1-28. (이)

정영학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남옥 예, 예. 염두해서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정영학 예 ^{2024년도}

남옥 어차피 그 공모 시기도 못당긴다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가

정영학 내년 몇 월 정도로?

남옥 4월에서

정영학 못 당기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합니까

남옥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 형) 당길수 있어. 잘못 알고 있어 알아봐 했으니까. 일단 1월달로 무조건 당겨달라고 얘기를 해놨고

정영학 (하하) 그러면 절차가 좀 늦어지나요? 시기가

남옥 글썄 뭐,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걸 못봤잖아요 저희는

정영학 그렇죠.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남옥 예에

정영학 아니면 시 내부 절차 때문에 늦어진다고도 할 수는 있어요. 의회 열리는거 늦게 열린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요.

남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해서. 하여간 하여튼 좀 뵈고 있다가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9시 9시

↳ 북극극락응원 박정준

남 옥 정준형이 보자고 그랬으니까 본인이 사겠죠.

정영학 (하하) 제가 한번 쓸게 있잖아요

남 옥 아, 그건 나중에 저희끼리 쓰고

정영학 오케이 저희끼리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남 옥 알겠습니다 형님

정영학 네네네네 9시. 9시까지 갈게요

남 옥 네네네

정영학 네네네네. 수고하십시오

남 옥 예. (끝)

○ 통화일시 : 2014. 11. 05. 오후 1:15 (6분24초)

○ 통 화 자 : 정영학, 남옥

남 옥 아, 설 틈 없어야 된다.

정 영 학 하하하. 그렇죠. '

남 옥 밖에서 잘하고 있는 것 맞지? 형, 밖에 일은 걱정하지 말고, 개도 내부에서 형 신세질 사람..

정 영 학 제 생각에 빨리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담당자들.. 아니 보니까, 문 회장 상대하는 사람이니까 남 대표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남 옥 네.

정 영 학 그 심기우 부장 같은 사람은 남 대표가 붙어서 즐즐즐 쫓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

남 옥 예. 아니 뭐 즐즐즐 따라다닐게 아니라,

정 영 학 확 멩겨오세요.

남 옥 한번 꺾어놓을게요.

정 영 학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뭐.

남 옥 예. 제가 한번 확 꺾어갖고.

정 영 학 예예예. 하면은 뭐 거의 가능해 보여요. 오늘 여하튼 뭐 (...)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은행들이 워낙 도시개발사업 다 물려있어서 싫은데, 자기네 이거 도시개발사업이라 생각 안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확, 하여튼 뭐 이미지도 되게 좋고.

남 옥 예. 정민용이 씨발 앓아갓고, 형님, 형 어떻게 할까요 했잖아요.

정 영 학 예?

남 옥 봤는데. 정민용이 그날 앓아갓고 불러다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 카드, 카드 신용불량 된 얘기까지 해줬는데.

정 영 학 하하하.

남 옥 그런 놈 갖다가 회계사로 앓혀놓고.

정 영 학 밥 먹을 때 한번 더 데리고 나오든지.

남 옥 예, 그래야죠. 그래서..

정 영 학 예예예. 그렇게 해서 하면, 은행 딱 잡고가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예. 우리은행이 여하튼 신의 한수라니까요. 신의 한수.

남 옥 예.

정 영 학 나중에 여기는 안 도망갈 것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에.

남 옥 그렇죠.

정 영 학 아니, 여기는 못 도망가죠. 튼질라고.

남 옥 못 도망가요. 그럼요.

정 영 학 아니 난 이게 진짜 신의 한수야.

남 옥 예.

정영학 여기 못 도망가면 원래 다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남 옥 그렇죠, 그렇죠.

정영학 하나은행도 안 도망갈 거고.

남 옥 두 개만 안 도망가면 되지 않겠어요?

정영학 아이,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정말 다행인 거가, 이 담당이 우리 사이즈가 아니고 좀 큰 사이즈라서 고점장님 안계셨으면 아유 힘들어, 좀 약간 좀 그러겠더라고.

남 옥 형, 우리도 좇나 사이즈 커요, 형. 우리 인제 씨발 뭐 에이- 돈이 우리보다 많은 거, 사업에 몇 번 성공한 거 말고, 우리도 사이즈 좇나 커요, 형. 하하하하.

정영학 하하하하. 아니 뭐 아침마다 거울 보고 반성하면 나오죠. 니가 제일 못난 놈이다. 하하하.

남 옥 아유, 형님. 어제도 이제 다 얘기하는데 애들이 걱정을 하면서, 야, 대한민국에서 실무에 관해서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누구냐. 정영학 회계사.

정영학 누가 그래요?

남 옥 내가 그랬죠!

정영학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남 옥 야, 니들, 민용이야 모르지만, 민걸이 너는 알거 아니냐. 알죠.

정영학

그래. 대한민국에서 그 양반이 최고의 전문가인데 뭐가 걱정이냐. 거기다가 실무 잘 아는 몽주 옆에서 챙기지. 핸드폰 딱 만들어서 3개월만 비밀리에 통화해갖고 추진하면 정리하면 끝이야. 걱정하지 마.

정영학 오케이. 예 예 예. 하여튼 뭐.

남 옥 예. 아유, 저는 형,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도 그렇고. 우리 에유 씨발, 우리 솔직히 사람이 소수정예이긴 하지만, 저 같은 또라이 하나 있죠. 실무 완벽하게 대한민국에서 형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영학 아니,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니고. 조금이고. 수박 겉핥기식이고, 그냥 진짜 수박 겉핥기식이고. 만든 거는 남 대표가 다 만든 것 맞아요. 제가 이걸 부인 안해요, 절대. 어디 가서 제가 뭐 제가 했습니다 하는 얘기 한마디도 안하고. 왜? 사실을 잘 아니까. 하하하. 절대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하니까. 예.

남 옥 만배형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만배형이 형 없을 때 하신 얘기. 니가 진짜 너의 정말, 너가 이 사업을 해도 되겠다고 본인이 판단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재창이 최고 영학이랑 화해해서 영학이 데리고 와서 둘이 세팅한 거다.

정영학 하하하. 아, 그래요?

남 옥 내가 그걸 딱 보면서, 못 할줄 알았는데 하는 거 보면서 아 저새끼 이 사업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섰다.

정영학 아, 그래요? 하하하.

남 옥 진정한 신의 한수, 저의 진정한 신의 한수는 형이에요. 형.

정영학 절대 아니에요. 우리은행. 저는 진짜 진정한 신의 한수는 양 변호사님이에

요. 양 변호사님이에요. 정말.

남 옥 이건 진짜..

정 영 학 양 변호사님이 최고의 수야. 양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최고의 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남 옥 어제는 동규형이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정 영 학 아.. 다행이네요. 하하.

남 옥 안간대 또.

정 영 학 예?

남 옥 안간대. 취소됐대.

정 영 학 아, 그래요?

남 옥 예.

정 영 학 하기사 분위기가.

남 옥 분위기가 좋다고 가지 말자고 그랬대.

정 영 학 그렇죠. 저도 아, 지금 이게 거기 나갈 저긴데. 분위기가.

남 옥 아니 근데 씨발 돈을 우리가 줬단 말이에요. 하하하.

정 영 학 하하하.

남 옥 그걸 갖고. 그러더니, 아 뭘 좀 의원들 다 나가는데 뭐 좀 조금씩 줘야겠

다 그러더라고. 많이 주지 말고 100개씩 주세요 그랬어요.
뭐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재미있게 어제 즐겁게. 다들 얼큰히 취해서
와갖고 하여튼.

) 정영학 예 예 예. 아..

) 남 옥 4천억짜리. 4천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야, 이거는 문제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

) 정영학 그렇죠, 형. 4천억짜리 도둑질인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 정영학 아 뭐 그냥 뭐.. 원래 우리 사업지였지 않습니까.

남 옥 아이 그러니까요. 몇 년을 버텼는데.

정영학 그럼요. 예.

남 옥 잘 될 겁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예예. 그러면,

남 옥 만배형은 제가 만나서..

정영학 그.. 그렇죠.

남 옥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서..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남 옥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마 그 오더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은행에서.

정영학 아~ 예.

남 옥 제 생각에.

정영학 예?

남 옥 제 생각엔 그 오더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고점장님, 그다음에 재정이형. 재정이 형이..

정영학 아~ (끝)

재정 (?)

박영수



0 녹음일시 : 2014. 11. 24. 오후 8:12 (4:30)

0 통화자 : 정영학, 이몽주

이 몽 주 그 담당하시는 분이 다 같이 들어가신 거니까.

정 영 학 아 그 안에?

이 몽 주 예, 다 같이 들어가셔서

정 영 학 정변이랑?

이 몽 주 네. 김현철 총장님 조금 담담하게 그래버리니까 잘 하시는 것 같고, 거기는 (...) 그렇죠

정 영 학 오케이 오케이. 그거 갖고 누가 뭐라 하지 않을거야 그래보여요.

이 몽 주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한 다음주 정도에 같이 그렇게 나가면 돼요.

정 영 학 오케이 오케이. 그럼 잘했네 고생했네요

이 몽 주 선진개발을 만나는데 제일 급한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정 영 학 그렇죠. 거기를 들어봐야지 거기는 직접 가는거죠?

이 몽 주 정변호사님이 직접 가는거죠

정 영 학 아, 오케이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직접해서 용역업체를 만나봐야지

이 몽 주 그런데 지금 김 이사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김 이사님도 내용을 모르시니까 이제 얘기를 막 하고나면, 정리가 그 자리에서 해결 안될수 있으

니까요.

정영학 아 그렇지

이몽주 그래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못하는게 좀,

정영학 그거는

이몽주 하기도 하고, 아유

정영학 그거는 참, 그렇다 이거 조금만 참자고.
아니면, 좀 방법이 없다, 가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응?

이몽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정영학 아니, 몰래 정 변호사를 이 팀장이 따라 가는건 어때? 그건 좀 그렇다.

이몽주 선진회사 선진개발에서 나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선진산업이 지금 어떻게 붙어있는지, (...)하고 붙어있어요, 그리고 시 (...) 하나가 붙어있기 때문에

정영학 안되겠다?

이몽주 예

정영학 말 나오니까

이몽주 예. 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정영학 아, 오케이

이몽주 오늘 시 주무관을 만나보셨다 하시더라고요

정영학 아

이몽주 시 주무관 만나고 와서, 제작년의 평가가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당겨졌으니까, 개발계획 공람을 좀 당김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산지 관련된 용역에서 그게, 댐거는 다 끝났으니 산지관련 용역이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안끝나서 아직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지분과 담당자를 내일 정도에 만나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협의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좀 하실려고 하시는것 같아요

정영학 아, 누가, 누가 만나러 간다고?

이몽주 정 변호사님이 선진개발 협회에 들어가시고요

정영학 아, 주무관이 만나는데 아니라?
↳ 정민용 (성남시청 전략사업팀장, 2014. 11. 3 ~ 2016. 2. 31.)

이몽주 그렇게 들어가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걸 당겨달라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정영학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이몽주 정 변호사님도 좀 추진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정영학 아

이몽주 무작정 일단 가서 만나고 보십시오

정영학 그게 맞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니 업무추진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몽주 네,네

정영학 사람이 하는 일, 아니 그 강단도 있어. 그래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몽주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하여튼 뭐 그렇게 해요.
하여튼 내일은 25일이니까 그 금액 받아서 집행하시고

이몽주 아 금액요?

) 정영학 예. 집행해야지

) 이몽주 예

) 정영학 아니 돈은 있잖아

) 이몽주 예, 돈은 있는데

) 정영학 그대신, 사업자등록 이번달 말까지 나와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이몽주 지금 생각, 다른 저희 뭐

정영학 다 받았지?

이몽주 세금계산서 이런거 다 못 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영학 그렇지, 빨리 빨리 해야돼

이몽주 법인 그 국민당에서 그들도 조금 왜냐하면, 분양 신고

정영학 가산세 있어서

이 몽 주 예. 그게 아니, 여쭙블 뻔 했는데, 저는 그냥 그러면 저희 설립되는 날짜로 세금계산서 끊느라고

정 영 학 설립등기일. 아니 사업자등록 나오면 하자고. 불부합 뜨니까. 조금 미안하긴 한데 업체들 괜찮아. 조금 늦게 끊어도

이 몽 주 네네. 알겠습니다

) 정 영 학 저기가 대표 거기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내일 다시 한번 물어봐. 뭐..

) 이 몽 주 네. (끝)

○ 통화일시 : 2014. 12. 01. 오후 5:26 (4분54초)

○ 통 화 자 : 정영학, 남옥

남 옥 확 끊더라고.

정 영 학 예예예.

남 옥 그러더니 인제 3시경엔가 용역 발주하겠다 그러니까, 보류. 하지 마. 그다음날 타당성 조사 하겠다 해도, 하지 마. 10일 이후에 얘기해.

정 영 학 예? 아..

남 옥 12월 10일 이후에 얘기해서 돌려보냈대요. 그래갖고 형, 나 10일 동안 놀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스케줄 못 맞춰 이제. 그랬더니, 알았다.

정 영 학 헐~

남 옥 무용수가
만배형하고 한참 얘기했는데, 목적이 있어서 저러는 거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러냐. 진짜로. 당장 돈을 안줘서 저러는 거냐. 아이, 씹새끼.

정 영 학 지금 10일이면, 하아~ 일주일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러네요.

남 옥 떴어요, 형. 돈 갖다 주기 전에 저거 안할 건데 뭐. 돈을 못 만들어, 그 사이에. 만들 수가 없어.

정 영 학 음.. 아니,

남 옥 할 수 없지.

정 영 학 지금 일주일이면 막판에 깔딱 모자라잖아요. 지금 일주일이.

남 옥 어차피 저거는 못해요 형. 지금.

정영학 왜 지금.. 예.

남 옥 아니 왜 그러겠어요? 뭐 내가, 그러니까 만배형하고 나하고 자기 자꾸 각 잡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돈을 못쓰게 할라고. 뭐 개소리야? 씨, 없으니까 못주는 거지. 상대방이 약속을 못 지키는거다. 기성이형 미국 갔잖아요.

정영학 예예. 아니, 아니 그래도 일은 제대로 해줘야..

남 옥 아니 그러니까, 일은 큰일은 (...) 만들고 있어. 큰일은 가게 해줘야, 해놓고 돈을 구해오라 마라 뭐.. 그건 아는데, 그렇다고 일을 스톱을 시키면 씨발 이걸 아니지 않냐.

정영학 예..

남 옥 죽어버릴 수도 없고, 씨발 진짜.

정영학 음.. 지금 일주일이 아유, 진짜 아쉬운데.

남 옥 에유.. 그러지. 위례는,

정영학 그 두 가지는 일주일 상관없어요 솔직히. 저게 문제죠. 환경영향평가 이쪽 이 문제죠. 아니, 산지. 산지. 그쪽은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10일날.

남 옥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돈 구경하는 거 아니니까 뭐 알아서 하겠죠. 타당성 그거를 뭐..

정영학 상관없어요. 그것도 60일 정도인데요.

남 옥 아니 그게 아니라 형, 이 돈을 안 만들어주면 안할 기세라니까. 그게 문제

유등규는 -2-

지.

정영학 아, 분위기가?

남욱 근본이 그거야. 하하하.

정영학 아이~ 씨.

이기성 [(죽)어감, 대탈이다]
(분명대행사)

남욱 기성이형이 들어와서 씨발 기성이형을 조지든지 해야 되는데.
만배형 얘기도 안 듣고 이제. 뭐 아니면 진짜 딴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만배형은 내가 뭐 달래라는데.

정영학 예, 달래셔야죠. 하하하.

남욱 아유, 좇같네. 아니 씨발 그래도 일을 같이 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스톱
시켜 버리면.

정영학 가서 얼른 좀, 가서 풀어보세요.

남욱 아니 그렇게 해결할 일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해결할 일은 아니
고요. 버전이 몇 개 있어요, 이게. 며칠에 걸쳐서.

정영학 예?

남욱 며칠에 걸쳐서 지금, 지난주부터 며칠에 걸쳐서 얘기하다가, 오늘 제가 한
마디 했더니 바로 스톱시켜 버리네.

정영학 아..

남욱 계속 제가 예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했거든요.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수요일날은 그럼 대충 뭐 혹시 분위기는요?

남 옥 아니 그, 아니 우리 부국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제가 듣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형님. 형님 말씀하시는 거를.

정영학 음..

남 옥 저를 좀 같이 설명 드리고 그거를 해야죠.

정영학 음.. 그럼 혹시 어느 정도 생각을 어떻게?

남 옥 아니 일단은 여기 주관은 어렵다. 그 저기 주주로 참여할 부분은 어렵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부국하고 어떻게 일할지에 대해서.

) 정영학 예..

) 남 옥 형 뭐 뭐 이것저것 막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 정영학 음.. 참. 하여튼 뭐.. 예. 분위기는 제가.. 어떠세요?

) 남 옥 예. 아니 그래서 그걸 상의해서 말씀을 서로 나눠봐야죠.

)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 남 옥 예, 형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약속잡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 정영학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남 옥 예. (끝)